

저자 진회 · 유근

국역 홍세영

해제 홍세영

국
역

神

應

經

비매품

95510



9 788959 702213 (EPUB)
9 788959 702237 (MOBI)
9 788959 702220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서문 序	1.1
재상군침도전종도 梓桑君鍼道傳宗圖	1.2
백혈법가 百穴法歌	1.3
절량법 折量法	1.4
보사수법 補瀉手法	1.5
혈법도 穴法圖	1.6
혈법도 穴法圖	1.6.1
인 수태음폐경 寅手太陰肺經	1.6.2
묘 수양명대장경 卯手陽明大腸經	1.6.3
진 족양명위경 辰足陽明胃經	1.6.4
사 족태음비경 巳足太陰脾經	1.6.5
오 수소음심경 午手少陰心經	1.6.6
미 수태양소장경 未手太陽小腸經	1.6.7
신 족태양방광경 申足太陽膀胱經	1.6.8
유 족소음신경 酉足少陰腎經	1.6.9
술 수궐음포락경 戌手厥陰包絡經	1.6.10
해 수소양삼초경 亥手少陽三焦經	1.6.11
자 족소양담경 子足少陽膽經	1.6.12

축 족궐음간경 丑足厥陰肝經	1.6.13
사화혈에 뜸뜨는 법 灸四花穴法	1.7
제풍부 諸風部	1.8
상한부 傷寒部	1.9
담천해수부 痰喘咳嗽部	1.10
제반 적취부 諸般積聚部	1.11
복통창만부 腹痛脹滿部	1.12
심비위부 心脾胃部	1.13
심사전광부 心邪癲狂部	1.14
곽란부 霍亂部	1.15
학질부 瘡疾部	1.16
종창부 腫脹部	1.17
한부 汗部	1.18
비궐부 瘰厥部	1.19
장치대변부 腸痔大便部	1.20
음산소변부 陰疝小便部	1.21
두면부 頭面部	1.22
인후부 咽喉部	1.23
귀와 눈 耳目部	1.24
비구부 鼻口部	1.25
흉배협부 胸背脅部	1.26
수족요액부 手足腰腋部	1.27
부인부 婦人部	1.28

소아부 小兒部	1.29
창독부 瘡毒部	1.30
잡병부 雜病部	1.31
축일인신소재 逐日人神所在	1.32
부록	2.1
팔혈구법 八穴灸法	2.1.1
침구택일 鍼灸擇日	2.1.2
발문 跋	2.1.3

해제·출판

해제	3.1
출판사항	3.2

1.1. 序 | 서문

1.1.1. 刊神應經序 | 신응경 간행 서문

恭惟我上殿下之六年也，命禮曹申嚴，醫敎設針¹灸專門法，擇其精於術者爲師，而資性明敏者爲弟子，勸勵之法甚悉焉。適有日本釋良心，以《神應經》來獻，兼傳其本國神醫和介氏丹波氏《治離疽八穴法》。其《八穴》雖未試用，《神應經》其傳授遠有所自，而所論折量補瀉法，皆古賢所未發者。其取穴又多有起發古人所未盡處。其所著穴，皆撮其切要，而得效多者。文簡而事周，令人披閱晷刻間，證與穴瞭然在目。

삼가 생각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6년² 만에 예조(禮曹)에 거듭 엄히 명하셨으므로, 의원(醫員) 교육 안에 침구(鍼灸)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설치하여 기술에 정밀한 이를 가려 스승으로 삼고, 자질과 품성이 명석하고 민첩한 이를 제자로 삼도록 장려하는 법이 모두 다 갖추어졌습니다. 마침 일본 승려인 양심(良心)이 《신응경(神應經)》을 가져와 바치면서 일본의 신의(神醫)인 화개씨(和介氏)와 단파씨(丹波氏)의 《치옹저팔혈법(治離疽八穴法)》을 함께 전하였습니다. 그 《팔혈법(八穴法)》은 아직 써 보지 않았지만, 《신응경》은 전수된 유래가 먼 데다 여기서 논한 절량보사법(折量補瀉法)은 모두 옛 현인들이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취혈법(取穴法) 또한 옛사람들이 다 쓰지 못한 자리를 많이 밝혀 내었습니다. 혈자리를 저술한 것은 모두 절실하고 중요하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을 모았습니다. 내용은 간략하지만 쓰임새가 광범위하여 사람들이 이 책을 잠깐만 읽고도 증상과 그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눈에 밝게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聖上嘉歎，命以《八穴法》付於《神應經》之末，銕梓廣布，且以永其傳焉。臣竊惟醫療之方，藥餌、針、灸不可偏廢，但藥非本國所產者頗多，大概皆求之中國，而又非盡出於中國也。轉轉市易，得之甚難，豈真贗陳新之可擇，而貧窮下賤與遠方之人，亦未易遍及也。唯砭焫之方，無費財遠求之勞，採暴合和之難。一針一艾，備應無方，運於指掌，辨³於談笑，貧富貴賤、遠近緩急，無適不宜。況於取效，常在藥力所不及攻

處, 而其功用神妙, 難以備述. 廉醫不知, 以爲卑辱, 至相詬病, 而不肯爲. 故世之病者, 生死壽夭, 率皆付之巫覡淫祀, 豈不哀哉. 聖上愍其然, 乃設專門, 益嚴勸督, 適有遐方之獻, 不以珍奇可玩之異物, 而以此救民濟世之神方. 不期而至, 以孚我聖上仁民愛物之盛德, 夫豈偶然哉.

성상께서 칭찬하시며 《팔혈법(八穴法)》을 《신응경(神應經)》 말미에 붙여서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고 또한 영원히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신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 침, 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폐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이 꽤 많고 대부분 중국에서 구해 오는 데다 중국에서 다 나지도 않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녀도 구하기가 매우 힘드니, 어찌 진짜와 가짜, 오래 묵은 것과 햅것을 가리겠으며, 가난하고 천한 사람과 먼 곳에 사는 이들에게 또한 쉽게 두루 미치지 못합니다. 침과 뜸을 쓰는 방법만이 비용을 들여 먼 곳에서 구해야 하는 수고와 채취하고 말려서 약을 만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침 한 대, 뜸 한 장에 대응할 방법이 무궁하고 손으로만 운용되며 담소하는 사이에 처리가 되니, 빈부(貧富)와 귀천(貴賤), 원근(遠近)과 완급(緩急)을 막론하고 알맞지 않음이 없습니다. 더구나 약의 힘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곳에서 항상 효과를 거두니, 그 신묘한 효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용렬한 의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얕잡아 보면서 모욕하는데 이르러 기꺼이 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환자들이 죽고 사는 것과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모두 무당에게 맡겨 망령된 제사를 지내게 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성상께서 이를 가엾게 여기시고 전담할 곳을 설치하여 더욱 엄하게 권장하고 감독하게 하셨는데, 마침 먼 곳에서 바친 것이 있어 진기하여 완상할 만한 특이한 물건이 아니라 이처럼 백성과 세상을 구제하는 신묘한 처방으로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이르러 우리 성상(聖上)의 백성을 사랑하고 사물을 아끼는 성대한 덕에 부합하였으니,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成化十年十一月二十一日 推忠定難翊戴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崇祿大夫 西平君
臣韓繼禧謹序

성화(成化) 10년 11월 21일 추충 정난 익대 순성 명량 경제 좌리 공신(推忠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승록대부(崇祿大夫) 서평군(西平君) 신(臣) 한계희(韓繼禧)가 삼가 서문을 씁니다.

1.1.2. 神應經序 | 신응경 서문

唐虞之紀官, 非剗子不能以明其制, 羲軒之製藥⁴, 非師襄則無以審其音. 是以聖人師之. 醫道之學, 吾未能也, 故有吾不如老農之嘆. 然人之有身, 血氣所醉, 嗜欲所汨, 寒暑所搏, 萬慮所攻, 鮮有不至於疾者, 非人至⁵曷能安之? 是以聖人因之而制砭炳之方出焉. 昔在太朴之世, 未有藥物, 獨用砭炳之方出⁶道, 活生民於掌握, 此醫道之大者也.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의 관직 제도는 염자(剗子)⁷가 아니면 밝힐 수 없고, 복희(伏羲)와 황제(黃帝)의 음악은 사양(師襄)⁸이 아니고는 그 음률을 살피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인(聖人 공자)께서 그들을 스승으로 삼으셨다. “의술의 도에 관한 학문은 내가 능하지 못하다”라고 하시고는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⁹”라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혈기(血氣)에 혹하거나, 욕망에 빠지거나, 추위와 더위가 치받거나, 온갖 근심이 들어오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 가 드무니, 지인(至人)¹⁰이 아니라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성인은 침과 뜸을 쓰는 방법을 만들어 내었다. 매우 질박하던 옛 세상에서는 약은 있지 않았고, 침과 뜸만을 써서 손으로만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이것이 의학의 위대한 도(道)이다.

予喜其無藥物咬咀之勞, 而能回生於指下, 可謂易矣. 乃求其術於醫者久, 而得之者十有餘家, 獨宏綱乃遇信鄉席真人所授之術. 故其補瀉折量之法, 其口訣指下之妙, 與世醫之所不同, 出於人者, 見於此也. 其徒二十四人, 獨劉瑾得其指下之秘, 故能繼宏綱之術, 而無墜也.

나는 약을 썰거나 찧는 수고가 없으면서 손가락 끝에서 회생시킬 수 있는 점을 좋게 여기니, 쉽다고 할 만하다. 이에 의원들에게 그 기술을 구하기를 오랫동안 하여 10여 명의 의가(醫家)를 얻었는데, 광강(宏綱)만이 신향(信鄉) 석진인(席眞人)이 전수해 준 의술과 합치하였다. 그러므로 그 보사법(補瀉法)과 절량법(折量法), 구결(口訣)과 손끝에서 나오는 신묘함은 세상의 의원들과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여기에서 드러났다. 그 문도 24인 가운데 유근(劉瑾)만이 손끝에서 나오는 비술을 얻었으므로 광강의 의술을 이어나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予謂于¹¹ 將雖衆, 至於劫病, 莫若一鍼之捷. 藥以氣味而達之, 故其宣利經絡也遲; 鍼以効而取之, 故其疏通血脈也. 神使之補履, 莫若一錐之能, 良藥雖速¹². 況加以冰臺, 灼以神燧, 助其真陽, 逐其陰邪, 而元氣充矣, 奚何病之有哉? 若人遇夜或在路, 倘有微恙, 藥不可得也, 惟砭炳之術, 可以應倉卒之用. 士之於世欲治生者, 不可不知, 予故愛而學之. 乃命醫士劉瑾, 重校其師宏綱先生所傳《廣愛書》十卷, 予止取其穴之切于用者, 爲一卷, 更其名曰《神應經》, 內五百四十八證, 計二百一十一穴. 又擇其劉瑾之經驗者, 六十四證, 計一百四十五穴, 纂爲一冊目, 曰《神應秘要》, 而以此心推之於衆庶, 不負宏綱廣愛之仁也. 此書世所未有, 用傳於世, 今命刊行, 以紀於首章云.

나는 간장(干將)이 신묘하더라도 신발을 수선하게 할 때는 바늘 하나만 못하고, 좋은 약이 많더라도 병을 없앨 때는 침 한 개의 신속함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약은 기미(氣味)로 도달하므로 경락에 베풀어지는 이로움이 느리고, 침은 찌르는 것으로 취하므로 혈맥을 소통시키는 것이 신속하다. 더구나 빙대(氷臺)¹³를 업고 신수(神燧)로 불을 붙여 진양(真陽)을 도와 음사(陰邪)를 몰아내면 원기가 충만해질 터인데 무슨 병이 있겠는가.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 우연히 가벼운 탈이 생겨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침과 뜸의 기술만은 창졸간에도 응용하여 쓸 수 있으니, 세상의 학자들 가운데 생명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애정을 가지고 배웠고, 곧 의사(醫士)인 유근에게 명하여 스승인 광강 선생이 전한 《광애서(廣愛書)》 10권(卷)

을 거듭 교정하도록 명하였고, 나는 다만 혈자리 가운데 매우 긴요하게 쓸 것만 절취하여 1권으로 만들어 다시 《신응경(神應經)》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안에 548가지 증상에 총 211개의 혈자리가 있다. 또한 유근의 경험방(經驗方)에서 추려 낸 것 64가지 증상에 총 145개의 혈자리를 1책목(冊目)으로 편찬하여 《신응비요(神應祕要)》라 하였다.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미루어 광강의 널리 사랑한 어짊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책은 세상에 있지 않았는데, 세상에 쓰임을 전하기 위해 지금 간행하도록 명하여 책머리에 엮어 둔다.

時在洪熙乙巳四月二十一日, 書.

홍희(洪熙) 을사(乙巳) 4월 21일에 쓰다.

-
1. 針 : 인조간본과 정보간본은 모두 ‘鍼’으로 되어 있다.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없는 이상 ‘針’자는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增補하신지6년 : 성종(成宗) 5년인 1474년을 말한다. ↪
 3. 辨 : 정보간본에는 ‘辨’으로 되어 있다. ↪
 4. 藥 : 정보간본에는 ‘藥’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정보간본을 따랐다. ↪
 5. 人至 : 인조간본과 정보간본에는 ‘至人’으로 되어 있다. 번역은 인조간본 등을 따랐다. ↪
 6. 方出 : 인조간본과 정보간본에는 없다. 연문으로 보고 해석하지 않았다. ↪
 7. 痘자(劗子) : 《춘추좌씨전》 <소공> 17년 조에 공자가 염자에게 관제를 물은 내용이 나온다. 염자(劗子)가 노(魯)나라에 조회를 갔을 때 소자(昭子)가 “소호씨(少皞氏)가 새의 이름으로 관명(官名)을 삼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으니, 염자가 말하기를, “나의 조상들의 일이니 내가 그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공자(孔子)가 그 말을 듣고서 나이가 배웠다. ↪

8. **사양(師襄)** : 노(魯)나라의 궁정 악사이다. 《사기》 <공자세가>에 따르면 공자가 사양(師襄)에게 거문고를 배웠다고 한다. ←

9. **나는.....못하다** : 《논어(論語)》 <자로(子路)>에, 번지(樊遲)가 농사일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공자(孔子)는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吾不如老農)”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이 일은 농사에 관해 언급한 것이지만 저자가 세인들에게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성인의 이름을 가탁하여 의도(醫道)에 관해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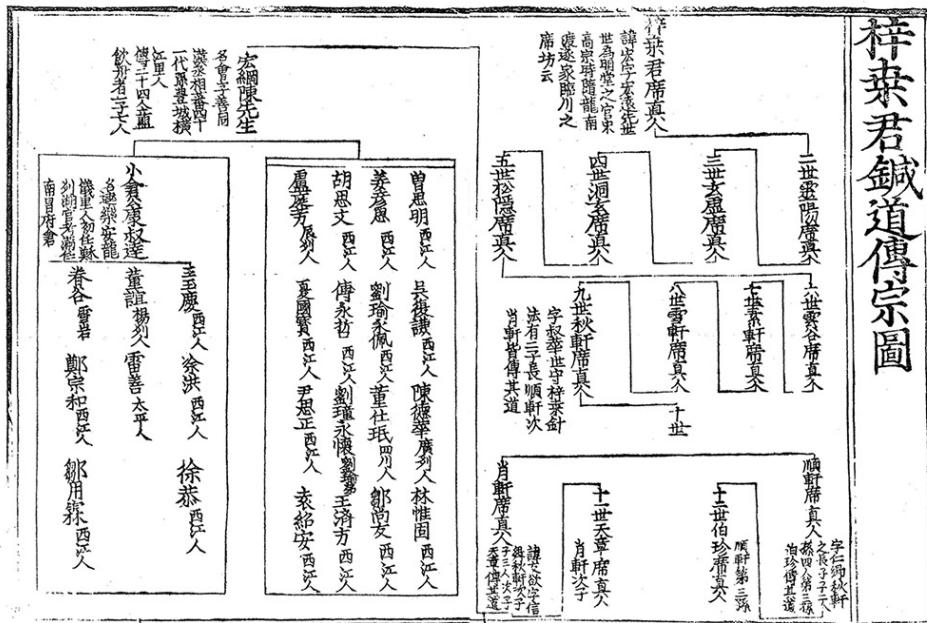
10. **지인(至人)** :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 형신(形身)>에서는 지인은 “덕을 두터이 하고 도를 온전히 하였으며 음양과 사시에 맞게 살았다.”라고 하였고, 《장자(莊子)》에서는 “세속을 초탈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를 사람”이라고 하였다. ←

11. **于** : 인조간본과 정보간본에 근거하여 ‘干’의 오기로 보고 번역하였다. ←

12. **干將.....雖速** : 인조간본과 정보간본에는 ‘干將雖神 使之補履 莫若一錐之能 良藥雖衆 至於劫病 莫若一鍼之捷 藥以氣味而達之 故其宣利經絡也遲鍼以 磬而取之 故其疏通血脉也速’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원문에 착안이 있는 듯하므로 인조간본 등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

13. **빙대(氷臺)** : 쑥의 이명. ←

1.2 梓桑君鍼道傳宗圖 | 재상군침도전종도 ¹⁴



一世	梓桑君席眞人 (諱宏, 字宏遠, 先世世爲明堂之 官. 宋高宗時隨 龍南渡, 遂家臨 川之席坊云.)	재상군(梓桑君) 석진인(席眞人) ¹⁵ : 휘(諱)는 광 (宏), 자(字)는 광원(宏遠)이며 조상 대대로 조정의 관료를 지냈다. 송 고종(宋高宗) 때 남방의 임천 (臨川)으로 천도(遷都)하면서 임천에 일가를 이끌 고 와 석씨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二世	靈陽席眞人	영양(靈陽) 석진인(席眞人)
三世	玄虛席眞人	현허(玄虛) 석진인(席眞人)
四世	洞玄席眞人	통현(洞玄) 석진인(席眞人)

五世	松隱席眞人	송은(松隱) 석진인(席眞人)
六世	雲谷席眞人	운곡(雲谷) 석진인(席眞人)
七世	素軒席眞人	소헌(素軒) 석진인(席眞人)
八世	雪軒席眞人	설헌(雪軒) 석진인(席眞人)
九世	秋軒席眞人(字叔 ■ ¹⁶ , 世守梓桑鍼 法. 有二子, 長順 軒, 次省 ¹⁷ 軒, 皆 傳其道.)	9대 추헌(秋軒) 석진인(席眞人 : 자(字)는 숙■(叔 ■), 대를 이어 재상군(梓桑君)의 침법을 지켰다. 두 아들을 두었으며 맏아들은 순헌(順軒)이고 둘 째는 성헌(省軒)으로 모두 그 도(道)를 전해 받았 다.)
十世	順軒席眞人(字 仁卿, 秋軒之長 子, 子二人孫四 人, 第三孫伯珍 傳其道.)-	순헌(順軒) 석진인(席眞人 : 자(字)는 인경(仁卿) 이며 추헌(秋軒)의 맏아들로서 아들 둘이고 손자 가 넷인데 셋째 손자인 백진(伯珍)이 그 도(道)를 전해 받았다.)
十一世	省軒席眞人(諱交 敬, 字信鄉 ¹⁸ , 秋 軒次子. 子三人, 次子天章傳其 道.)	성헌(省軒) 석진인(席眞人 : 휘(諱)는 교경(交敬) 이고 자(字)는 신향(信鄉)이며 추헌(秋軒)의 둘째 아들이다. 아들이 셋인데 둘째인 천장(天章)이 그 도를 전해 받았다.)
十二世		

一 世	軒次子.	들이다.
十 二 世	伯珍席眞人, 順 軒第三孫.	백진(伯珍) 석진인(席眞人), 순현(順軒)의 셋째 손 자이다.



宏綱陳先生(名會, 字善同. 漢丞相蕃四十一代孫, 豊城橫¹⁹江里人. 傳二十四人, 立■²⁰飲丹者, 一十²¹七人.)

굉강(宏綱) 진선생(陳先生 : 이름은 회(會)이고 자(字)는 선동(善同)이다. 한(漢)의 승상(丞相) 심(蕃)의 41대손이며 풍성(豊城) 횡강(橫江) 사람이다. 24명에게 전하였고 단(丹)²²을 마시고 맹서한 이가 17명이다.)

▼	▼
曾思明(西江人), 吳復謙(西江人), 陳德華 (廣州人), 林惟固(西江人), 姜彥思(西江人), 劉瑜永佩(西江人), 董珉(四明人), 鄒尚友 (西江人), 胡思文(西江人), 傅永哲(西江人), 劉瑾永懷(劉瑜弟), 王濟方(西江人), 盧庭芳 (辰州人), 夏國寶(西江人), 尹忠正(西江人), 袁紹安(西江人)	小倉公康叔達(名達, 樂安龍 儀里人. 初任蘇州湖官, 考滿 任南昌府倉)
증사명(서강인), 오부겸(서강인), 진덕화(광 주인), 임유고(서강인), 강언사(서강인), 유 유영패(서강인), 동민(사명인), 추상우(서강 인), 호사문(서강인), 부영철(서강인), 유근	소창공(小倉公) 강숙달(康叔 達 : 이름은 달(達)이고 낙안 (樂安) 용의(龍儀) 사람이다. 처음 부임한 곳은 소주(蘇州))

영회(유유제), 왕제방(서강인), 노정방(진주인), 하국보(서강인), 윤충정(서강인), 원소안(서강인)	의 호관(湖官)이었고 고만(考滿) ²³ 에 따라 남창부창(南昌府倉)으로 부임하였다.)
	▼
	王玉慶(西江人), 徐洪(西江人), 徐恭(西江人), 董誼(楊州人), 雷善(太平人), 春谷(雪岩), 鄭宗和(西江人), 鄒用霖(西江人)

14. 재상군침도전종도(梓桑君鍼道傳宗圖) : 남송(南宋)의 재상군(梓桑君) 석굉(席宏)으로부터 명(明)의 진회(陳會)와 유근(劉瑾)에 이르는 의술 전수의 계보이다. 글자가 희미하여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두 대교본을 참조하여 채워 넣었다. ↵

15. 진인(眞人) : 주로 도교에서 깨달은 사람을 일컬을 때 쓰이지만, 재상군으로부터 내려온 12명의 석씨 일가가 침구술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에 이러한 호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

16. ■ : 원문은 식별이 불가능한데, 인조간본에는 ‘善’, 정보간본에는 ‘華’로 되어 있다. ↵

17. 省 : 정보간본에는 ‘肖’로 되어 있다. 이하동일. ↵

18. 鄉 : 인조간본에는 ‘卿’으로 되어 있다. ←

19. 橫 : 인조간본에는 빠져 있다. ←

20. 盟 : 원문은 판독이 명확하지 않으며, 인조간본에는 ‘肆’로 되어 있고, 정조
간본에는 ‘盟’으로 되어 있다. 입력과 번역은 정보간본을 따랐다. ←

21. 十 : 정보간본에는 ‘子’로 되어 있다. ←

22. 단(丹) : 피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3. 고만(考滿) : 1393년부터 시행된 관리에 대한 심사제도이다. 중앙과 지방
의 관리들은 9년 임기 중 3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심사 결과 등
급에 따라 승진이나 강등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

1.3. 百穴法歌 | 백혈법가

手之太陰經屬肺, 尺澤肘中約紋是.

수태음경(太陰經)은 폐(肺)에 속하니, 척택(尺澤)은 팔꿈치 안쪽의 가로금에 있다.

列缺側腕寸有半, 經渠寸口陷脉記.

열결(列缺)은 손목 옆 1촌 5푼 자리이고, 경거(經渠)는 촌구(寸口)의 오목한 곳을 기억하라.

太淵掌後橫紋頭, 魚際節後散脉裏.

태연(太淵)은 손바닥 끝 가로금 머리에 있고, 어제(魚際)는 관절 지나 맥이 흘어지는 안쪽이다.

少商大指內側尋, 爪甲如葦此爲美.

소상(少商)은 엄지 안쪽에서 찾아야 하니, 손톱에서 부추만큼 떨어진 이곳이 좋다.

手陽明經屬大腸, 食指內側号商陽.

수양명경(手陽明經)은 대장(大腸)에 속하니, 식지(食指) 안쪽을 상양(商陽)이라 부른다.

本節前取二間定, 本節後勿三間忌²⁴.

본절(本節) 앞에 이간(二間)을 정해놓고, 본절(本節) 뒤에는 삼간(三間)을 잊지 말라.

岐骨陷中尋合谷, 陽谿腕中上側詳.

기골(岐骨)의 오목한 곳에서 합곡(合谷)을 찾고, 양계(陽谿)는 손목위쪽의 옆 부분이다.

三里曲池下三寸, 曲池曲肘外輔當.

수삼리(手三里)는 곡지(曲池) 아래로 3촌 내려가고, 곡지(曲池)는 구부린 팔꿈치 바깥이다.

肩髃肩端兩骨覓, 五分俠孔取迎香.

견우(肩髃)는 어깨 끝 두 뼈에서 구하고, 콧구멍 옆 5푼에서 영향(迎香)을 취한다.

足陽明兮胃之經, 頭維本神寸五分.

족양명(足陽明)은 위(胃) 경락이니, 두유(頭維)에서 본신(本神)까지는 1촌 5푼이다.

頰車耳下八分是, 地倉俠吻四分臨.

협거(頰車)는 귀 아래로 8푼에 있고, 지창(地倉)은 입가의 4푼에 있다.

伏兔陰市上三寸, 陰市膝上三寸鍼.

복토(伏兔)는 음시(陰市) 위로 3촌이고, 음시(陰市)는 무릎 위 3촌에 놓는다.

三里膝下三寸取, 上廉里下三寸主.

족삼리(足三里)는 무릎 아래 3촌에서 취하고, 상렴(上廉)은 족삼리 아래 3촌이다.

下廉上廉下三寸, 解谿腕上繫鞋處.

하렴(下廉)은 상렴(上廉) 아래 3촌이고, 해계(解谿)는 발목 위 가죽신 묶는 곳이다.

沖陽陷谷上二寸, 陷谷庭後二寸舉.

충양(冲陽)은 함곡(陷谷) 위 2촌이고, 함곡(陷谷)은 내정 뒤 2촌이다.

內庭次指外間求, 厲兌如葦足次指.

내정(內庭)은 둘째발가락 바깥쪽 사이에서 찾고, 여태(厲兌)는 둘째발톱에서 부추잎 만큼이다.

足之太陰經屬脾, 隱白大指內角宜.

족태음경(足太陰經)은 비(脾)에 속하니, 은백(隱白)은 엄지발가락 안쪽 귀퉁이이다.

大都節後白肉際, 太白後一下一爲.

대도(大都)는 마디 뒤의 백육제(白肉際)²⁵에 있고, 태백(太白)은 뒤로 1촌, 아래로 1촌이다.

公孫節後一寸得, 商丘踝下前取之.

공손(公孫)은 마디를 지나 1촌에서 찾고, 상구(商丘)는 안쪽 복사뼈 앞에서 취한다.

內踝三寸陰交穴, 陰陵膝內輔下施.

안쪽 복사뼈에서 3촌을 가면 삼음교(三陰交)혈이 있고, 음릉천(陰陵泉)은 무릎안쪽 보골(輔骨)²⁶ 아래에 있다.

手少陰兮心之經, 少海肘內節後明.

수소음(手少陰)은 심경(心經)이니, 소해(少海)는 팔꿈치 안의 관절 뒤에 명백하다.

通里腕後纔一寸, 神門掌後兌骨精.

통리(通里)는 손목 뒤로 겨우 1촌이고, 신문(神門)은 손바닥 뒤 태골(兌骨)에 있다.

手太陽兮小腸索, 小指之端取少澤.

수태양(手太陽)은 소장(小腸)에 매여 있으니, 소지(小指) 끝에서 소택(少澤)을
취하고,

前谷外側本節前, 後谿節後仍外側.

전곡은(前谷) 바깥쪽 본절(本節) 이전이고, 후계(後谿)는 본절(本節)을 지나
바깥쪽이다.

腕骨腕前起骨下, 陽谷兌下腕中得.

완골(腕骨)은 손목 앞 기골(起骨) 아래이고, 양곡(陽谷)은 손목의 태골(兌骨)
아래에 있다.

小海肘端去五分, 聽宮耳珠如菽側.

소해(小海)는 팔꿈치 끝에서 5푼을 가고, 청궁(聽宮)은 귓불에서 콩만큼 옆이
다.

大腸膀胱何處看, 晴明日眥內角畔.

대장(大腸)과 방광(膀胱)은 어디에서 보는가? 정명(晴明)은 눈자위 안쪽 가에
있다.

攢竹兩眉頭陷中, 絡却後髮四寸半.

찬죽(攢竹)은 양 눈썹머리 오목한 곳이고, 낙각(絡却)은 후발제(後髮際)²⁷에
서 4촌 5푼이다.

肺俞三椎膈俞七, 肝俞九椎之下按.

폐수(肺俞)는 3추(椎), 객수는(膈俞) 7추(椎), 간수(肝俞)는 9추(椎) 아래를 눌
러본다.

腎俞十四椎下傍, 膏肓四五三分筭.

신수(腎俞)는 14추(椎)아래 곁에 있고, 고황수(膏肓俞)는 4, 5추(椎) 사이에서 3푼(分)을 헤아린다.

委中膝膕約紋中, 承山腨下分肉斷.

위중(委中)은 오금의 가로금 가운데이고, 승산(承山)은 장딴지 근육이 나뉘는 끝이다.

崑崙踝下後五分, 金門踝下陷中撰.

곤륜(崑崙)은 복사뼈 아래에서 뒤로 5푼이고, 금문(金門)은 복사뼈 아래 오목한 가운데이다.

申脈踝下筋骨間, 可容爪甲慎勿亂.

신맥(申脈)은 복사뼈 아래의 뼈와 힘줄 사이에 있고, 손톱만큼의 틈밖에 없으니 삼가 어지러이 말라.

少陰腎兮安所覓, 然谷踝前骨下識.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은 어디에서 찾는가? 연곡(然谷)은 안쪽 복사뼈 앞쪽 아래이다.

太谿內踝後五分, 照海踝下四分的.

태계(太谿)는 안쪽 복사뼈 뒤로 5푼이고, 조해(照海)는 안쪽 복사뼈 아래 4푼이다.

復溜內踝上二寸, 向後五分太谿直.

부류(復溜)는 안쪽 복사뼈 위로 2촌이고, 뒤로 5푼 향하면 그곳이 바로 태계(太谿)이다.

手厥陰兮心包絡, 曲澤肘內橫紋作.

수궐음(手厥陰)은 심포락(心包絡)이니, 곡택(曲澤)은 팔꿈치 안쪽 가로금에 있다.

間使掌後三寸求, 內關二寸始無錯.

간사(間使)는 손바닥에서 3촌 떨어진 데서 찾고, 내관(內關)은 2촌이니 시작에 서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大陵掌後兩筋間, 中冲²⁸中指之端度.

대릉(大陵)은 손바닥 끝 두 힘줄 사이이고, 중총(中冲)은 중지(中指) 끝에서 해 아린다.

手少陽兮三焦論, 小次指間名液門.

수소양(手少陽)은 삼초(三焦)를 말하니,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 사이를 액문(液門)이라 한다.

中渚次指本節後, 陽池表腕有穴存.

중저(中渚)는 넷째 손가락 본절(本節)의 후방이고, 양지(陽池)는 손목 바깥쪽에 혈 자리가 있다.

腕後二寸外開絡, 支溝腕後三寸聞.

손목에서 2촌을 가면 외관(外開)이 이어지고, 지구(支溝)는 손목 뒤 3촌에서 찾는다.

天井肘上一寸許, 角孫耳廓開口分.

천정(天井)은 팔꿈치 위로 1촌을 올라가고, 각손(角孫)은 귓바퀴에서 입을 벌리면 나뉜다.

絲竹眉後陷中按, 耳門耳闕非虛文.

사죽공(絲竹空)은 눈썹 끝에서 오목한 가운데를 누르며, 이문(耳門)은 귀의 대
궐이라는 말이 헛되지 않다.

足少陽膽取聽會, 耳前陷中分明揣.

족소양담경(足少陽膽經)에서 청회(聽會)를 취하니, 귀 앞의 오목한 가운데에
분명히 간직되어 있다.

目上入髮際五分, 臨泣之穴於斯在.

눈 위의 발제를 지나 5푼을 들어가면 두임읍(頭臨泣)이 이곳에 있다.

目窓泣上一寸存, 風池後髮際中論.

목창(目窓)은 두임읍에서 1촌 위이고, 풍지(風池)는 후발제(後髮際)에서 논한
다.

肩井骨前看寸半, 帶脉肋下寸八分.

견정(肩井)은 뼈 앞의 1촌 5푼에서 보고, 대맥(帶脈)은 늑골 아래 1촌 8푼이다.

環跳髀樞尋宛宛, 風市髀外兩筋顯.

환도(環跳)는 고관절 깊이 움푹한 곳이고, 풍시(風市)는 허벅지 바깥에 두 힘
줄에서 드러난다.

陽陵膝下一寸求, 陽輔踝上四寸遠.

양릉천(陽陵泉)은 무릎 아래로 1촌에서 찾고, 양보(陽輔)는 바깥쪽 복사뼈 위
로 4촌을 간다.

絶骨踝上三寸從, 丘墟踝前有陷中.

절골(絶骨)은 바깥쪽 복사뼈 위로 3촌을 따라가고, 구허(丘墟)는 바깥쪽 복사
뼈 앞의 오목한 곳이다.

臨泣決谿後寸半, 俠谿小次岐骨縫.

족임읍(足臨泣)은 협계(夾谿) 뒤로 1촌 5푼이고, 협계는 네다섯째 발가락이 나뉘는 뼈에 붙어있다.

厥陰肝經果何處, 大敦母指有毛聚.

족궐음간경(足厥陰肝經)은 과연 어디인가? 대돈(大敦)은 엄지발톱에서 터럭이 모인 만큼이다.

行間骨尖動脉中, 太冲²⁹節後有脉據.

행간(行間)은 뼈의 끄트머리에 맥이 뛰는 곳이고, 태충(太冲)은 마디 뒤에 있는 맥에 근거하라.

中封一寸內踝前, 曲泉紋頭兩筋著.

중봉(中封)은 안쪽 복사뼈 앞쪽 1촌이고, 곡천(曲泉)은 주름 접히는 머리의 두 힘줄에서 드러난다.

章門臍上二寸量, 橫取六寸看兩傍.

장문(章門)은 배꼽 위로 2촌을 헤아려서 횡으로 양쪽의 6촌 위치에서 취한다.

期門乳傍一寸半, 直下寸半二肋詳.

기문(期門)은 유두(乳頭) 옆 1촌 5푼에서 똑바로 1촌 5푼 내려가 늑골 사이를 살핀다.

督脈水溝鼻柱下, 上星入髮一寸者.

독맥(督脈)의 수구(水溝)는 콧대 아래이고, 상성(上星)은 전발제(前髮際) 안쪽으로 1촌이다.

百會正在頂之巔, 風府後髮一寸把.

백회(百會)는 바로 정수리 꼭대기에 있고, 풍부(風府)는 후발제로부터 1촌에 서 잡는다.

痘門後髮際五分, 大椎第一骨上存.

아문(痘門)는 후발제(後髮際)로부터 5푼이고, 대추(大椎)는 첫 번째 경추 상에 있다.

腰俞二十一椎下, 請君子細詳經文.

요수(腰俞)는 21추(椎) 아래에 있으니, 청컨대 그대는 경문(經文) 자세히 살피 라.

任脉中行正居腹, 閩元臍下三寸錄.

임맥(任脉)은 배의 한 가운데를 지나니, 관원(閔元)은 배꼽 아래 3촌으로 정한다.

氣海臍下一寸半, 神闕臍中隨所欲.

기해(氣海)는 배꼽 아래 1촌 5푼이고, 신궐(神闕)은 배꼽 중앙이니 욕심을 쓸 아간다.

水分臍上一寸求, 中腕臍上四寸取.

수분(水分)은 배꼽 위 1촌에서 구하고, 중완(中腕)은 배꼽 위 4촌에서 취한다.

膻中兩乳中間索, 承漿宛宛唇下搜.

전중(膻中)은 양 젖가슴 가운데에서 찾고, 승장(承漿)은 입술 아래 오목한 곳에서 찾는다.

24. 忌 : 글자의 윗부분이 지워져 가필한 흔적이 있다. 이 내용은 모두 가결로 되어 있는데 수양명대장경의 2, 6, 8, 10구는 양(陽), 상(詳), 당(當), 향(香)으로 네 번째 구의 마지막 글자인 망(忘)과 운을 이룸을 알 수 있다. 두 대교본에도 모두 “忘”으로 되어 있다. ↪

25. **백육제(白肉際)** : 적백육제(赤白肉際)의 준말로 손발에서처럼 몸의 양쪽과 바깥쪽의 서로 다른 피부색이 만나는 경계를 말한다. ↵
26. **보골(輔骨)** : 비골(腓骨)을 말한다. ↵
27. **후발제(後髮際)** : 뒷덜미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말한다. ↵
28. **中冲** : 중충(中衝)과 같다. 원문에서는 현재 통용되는 태충(太衝), 소충(少衝)에서도 모두 충(冲)으로 표기하고 있다. ↵
29. **太冲** : 원문에서는 “대(大)”와 “태(太)”를 통용하고 있어 “太冲”을 모두 “太冲”으로 표기하였으나 독자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는 표기로 고쳤다. 나머지의 예도 이를 따랐으며 이하의 본문에서는 각주 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 ↵

1.4. 折量法 | 절량법 30

臣瑾曰, 夫鍼灸之術, 其旨微矣, 穴法之訛, 其來遠矣. 如背俞膏肓數穴, 皆起死迴生之要穴, 而折量分寸, 皆致訛謬. **臣**獲善同陳先生, 親授一穴一法, 毫釐有據. 且如背俞, 前賢書中皆云, 夾脊各寸半, 是共折三寸分兩傍取之, 殊不知言夾脊, 其夾字是除骨而言. 若帶脊骨當以兩傍各二寸, 共折四寸分兩傍. 又如膏肓二穴當除第一椎小骨不算. 若連第一椎數下, 當在五椎下兩傍各三寸半, 共折七寸分兩傍, 按其痠疼處, 乃是真穴. **臣**每依此灸療, 多獲痊愈. 又折量之法, 世俗盜學妄傳, 自頭部背部手足部, 一槩用同身寸量之, 殊不知頭部有頭部之尺寸, 腹部有腹部之尺寸, 橫直尺寸俱不同, 各有其要. 惟背部手足部, 並用同身寸取之, 學者于茲不可不注意焉. 故書此以正之.

(신(臣)) 유근(劉瑾)이 아뢰건대, 무릇 침구의 기술은 그 뜻이 미묘하여 취혈법(取穴法)이 잘못 전해진 지가 오래 되었다. 배수혈(背俞穴)인 고황(膏肓) 등 의 여러 혈 자리들은 모두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요긴한 혈들인데 혈위를 정하는 법이 모두 그릇되고 어긋나 있다. (신(臣)이) 선동(善同) 진(陳)선생의 신임을 받아 혈 자리 하나, 침법 하나를 친히 전수받았으니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근거에 맞게 하였다. 또한 배수혈(背俞穴)에 관해서는 옛 성현들이 책에서 모두 말해놓기를 척추를 끼고 1촌 5푼이라 하였고, 이를 합하여 3촌 길이의 양쪽 끝에서 취한다고 하였는데, 척추를 낀다는 표현이 그 뼈를 제외한다는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른다. 만일 척추까지 합한 길이라면 마땅히 양쪽으로 각각 2촌이라 해야 맞으며 모두 합해서 4촌 길이의 양쪽 끝이 된다. 또한 두 고황(膏肓) 혈은 제1추(椎)의 소골(小骨)은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첫 번째부터 헤아려 내려갔다면 당연히 5추(椎) 아래 양쪽으로 각 3촌 5푼 되는 곳에 있는 것이 되며, 합이 7촌 거리의 양쪽 끝을 눌러 시큰하게 아픈 곳이 바로 정확한 혈 자리가 된다. (신(臣)이) 항상 이에 의거해서 뜰을 뜨고 치료하여 치료한 경험이 많았다. 또한 절량법을 세속에서는 어깨너머로 훔쳐본 것을 가지고 흉내 내어 함부로 전하므로 머리와 등, 손발 부위를 모두 똑같은 방법의 인체 비율로 계산하니, 이는 머리에는 머리를 재는 길이 기준이 있고, 배에는 배를 재는 길이 기준이

있으며, 가로와 세로의 길이 기준이 모두 달라서 각각마다 그 요령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다만 등과 손발 부위는 동일한 인체 비율을 쓰니 배우는 자라면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하여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1.4.1. 頭部 | 두부

前髮際至後髮際, 折作十二節爲一尺二寸. 前髮際不明者, 取眉心上行三寸, 後髮際不明者, 取大椎上行三寸, 前後髮際不明者, 共折作一尺八寸.

전발제(前髮際)에서 후발제(後髮際)까지 12등분 한 것을 1척 2촌으로 삼는다. 전발제가 불분명한 사람은 눈썹 중앙에서 위로 3촌 되는 곳을 취하고, 후발제가 불분명한 사람은 대추(大椎)혈 위로 3촌 되는 곳을 취하여 총 1척 8촌으로 삼는다.

橫寸, 以眼內眥角比至外眥角, 爲一寸, 頭部橫寸, 並用此法.

가로 길이는 눈의 안쪽자위에서 바깥쪽자위까지를 1촌로 하며 머리의 가로 길이도 이 방법대로 쓴다.

神庭至曲差, 曲差至本神, 本神至頭維, 各一寸半, 自神庭至頭維, 共四寸半.

신정(神庭)에서 곡차(曲差), 곡차(曲差)에서 본신(本神), 본신(本神)에서 두유(頭維)까지는 각각 1촌 5푼이며, 신정(神庭)에서 두유(頭維)까지는 총 4촌 5푼이다.

1.4.2. 背部 | 배부

大椎穴下至尾骶, 共二十一椎, 通折作三尺.

대추(大椎)혈 아래에서 꼬리뼈 끝까지는 총 21개의 척추가 있으니 전체를 3척으로 보고 나눈다.

上七椎, 每椎一寸四分一厘, 共九寸八分七厘.

위의 7개 척추는 각 척추가 1촌 4푼 1리의 길이이며 총 9촌 8푼 7리이다.

中七椎, 每椎一寸六分一厘.

가운데의 7개 척추는 각 척추마다 1촌 6푼 1리이다.

十四椎與臍平, 共二尺一寸一分四厘.

14번째 척추는 배꼽과 같은 수평선상에 있으며 모두 2척 1촌 1푼 4리가 된다.

下七椎, 每椎一寸二分六厘.

아래의 7개 척추는 각 척추마다 1촌 2푼 6리이다.

第二行, 夾脊各寸半, 除脊一寸, 共折作四寸分兩傍.

2번째 열은 척추를 끼고 1촌 5푼거리이고, 이는 척추에 해당하는 1촌을 뺀 것
이니 합한 거리 4촌을 양쪽으로 나눈다.

第三行, 夾脊各三寸, 除脊一寸, 共折作七寸分兩傍.

3번째 열은 척추를 끼고 3촌 거리이고, 이는 척추에 해당하는 1촌을 뺀 것이니
합한 거리 7촌을 양쪽으로 나눈다.

1.4.3. 腹部 | 복부

橫寸膺部腹部並用, 乳間橫折作八寸, 腹部應有橫寸, 悉依上法. 直寸中行, 心蔽骨
下至臍, 共折作八寸, 人若無心蔽骨者, 取岐骨下至臍心, 共折九寸取之. 臍中至毛
際橫骨, 折作五寸.

가로 길이 기준은 가슴과 배 부위에서 함께 사용하는데, 양 유두 거리를 8촌으
로 재며 배 부위의 가로 길이도 모두 이 방법에 의거한다. 세로의 중심선은 심
폐골(心蔽骨) 아래부터 배꼽까지의 총 길이를 8촌으로 나누는데, 만약 심폐골

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골(岐骨)에서 배꼽까지의 거리를 재서 총 9촌으로 잡는다. 배꼽부터 치골결합까지는 5촌으로 잡는다.

天突至臺中爲准, 折作六寸八分, 下行一寸六分, 爲中庭. 上取天突下至中庭, 共折作八寸四分.

천돌(天突)에서 단중(臺中)까지는 6촌 8푼으로 잡으며, 아래로 1촌 6푼 내려간 곳이 중정(中庭)이 된다. 위의 천돌(天突)부터 아래로 중정(中庭)까지는 총 8 촌 4푼이다.

1.4.4. 手足部 | 수족부

並用同身寸取之.

동신촌(同身寸)을 함께 사용한다.

30. **절량법(折量法)**: 몸을 등분하여 혈 자리를 정하는 방법으로, 몸 각 부위 뼈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골도법(骨度法)이라고도 한다. ↪

1.5. 補瀉手法 | 보사수법

臣瑾曰, 夫針灸有劫病之功者, 在於手法而已. 倘穴不得其真, 功罔奏矣, 穴得真矣, 楠瀉不得, 其道亦徒然矣. 宏綱先生有曰, 世俗所謂楠瀉之法, 楠者以大指向外, 瀉者以大指向內, 此謬之甚矣. 世醫之所謂瀉, 針法之所謂補也, 其楠者, 針法之所謂瀉也. 孰不知楠瀉之法, 体之左有左楠瀉之法, 右有右楠瀉之法, 隨氣血所行而治之, 不合其理, 孰爲其治? 又曰素問內言, 針而不灸, 灸而不針, 廉醫針而復灸, 灸而復針, 後之醫者, 不明軒岐之道, 針而復灸, 灸而復針者有之. 孰不知書中所言, 某穴在某處, 或針幾分灸幾壯, 此言若用針, 當用幾分, 若用灸, 當灸幾壯, 謂其穴灸者, 不可復針, 針者不可復灸. 今之醫者, 凡灸必先灸三壯, 乃用針復灸數壯, 謂之透火艾之說, 是不識書中之意, 不明軒岐之旨, 深可慨也. 傳曰, 愚而好自用良有以也. 昔宏綱先生亦常言, 惟腹上用針, 隨灸數壯, 以固其穴亦可, 他處忌之, 不可以一例用之. 此醫家權變之說也, 不可不知.

(신(臣)) 유근(劉瑾)이 아뢰건대 무릇 침구(針灸)가 병을 쓸는 공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기법(手技法)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 혹시 혈 자리를 잘 못 잡아도 그 공이 없고, 혈 자리를 잘 잡았더라도 보사법(補瀉法)을 못쓰면 역시 부질없게 된다. 광강(宏綱)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 흔히 보사법(補瀉法)으로 부르는 것을 보면 보할 때는 엄지를 바깥으로 향하고 사할 때는 엄지를 안쪽으로 향하니 이는 매우 잘못 된 것이다. 세간의 의사들이 사(瀉)한다고 하는 것은 침법(針法)에서 말하는 보(補)이고, 세간에서 보한다고 하는 것은 침법(針法)에서 말하는 사(瀉)이다. 어찌하여 보사법에는 몸의 왼쪽에는 왼쪽의 보사법이 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의 보사법이 있어서 기혈(氣血)이 행하는 바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이치에 부합하지 못하니 어떻게 치료가 되겠는가?”라고 하셨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소문(素問)》에 말하길 침을 놓았으면 뜰을 뜨지 말고 뜰을 뜯으면 침을 놓지 말라고 하였거늘, 용렬한 의사는 침을 놓고 다시 뜰을 뜨거나 뜰을 뜯은 후 다시 침을 놓으니 후세 의사들이 현기(軒岐)³¹의 법도를 밝히지 않아서 침을 놓고 뜰을 뜨거나 뜰을 뜯은 후 침놓는 이가 있는 것이다. 책에서는 어느 혈이 어느 곳에 있고, 침은 몇 푼 깊이, 뜰

은 몇 장을 뜨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만일 침을 쓰게 되면 몇 푼 깊이로 놓고 뜸을 뜨게 되면 몇 장을 떠야하는가를 말한 것이며, 한 혈 자리에 뜸을 뜯으면 다시 침을 놓아서는 안 되고 이미 그 자리에 침을 놓았으면 다시 뜸을 떠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의사들은 대개 뜸을 뜰 때 반드시 먼저 뜸 세장을 뜯 후 이어서 침을 놓고 다시 뜸 여러장을 뜨면서, 그렇게 해야 뜸의 불기운이 들어간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는 책 속의 뜻을 모르는 것일뿐더러 헌기(軒岐)의 본뜻에도 어두운 것이니 매우 개탄할 일이다.”라고 하셨다. 옛말에 어리석은 이가 자기 딴에는 영리하다고 자부하며 제멋대로 하는 것도 다 까닭이 있다고 하였다. 예전에 광강(宏綱)선생께서 또 항상 말씀하시기를 “오직 배에 침을 놓을 때에만 연이어 뜸 몇장을 떠서 그 혈을 고정시켜도 될 뿐, 다른 부위에서는 이를 삼가야 하니 어떤 경우에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는 의가(醫家)의 재량에 관한 말씀이니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1.5.1. 瀉訣直說 | 사결직설

臣瑾曰, 昔宏綱先生授曰, 取穴既正, 左手大指掐其穴, 右手置針於穴上, 令患人咳嗽一聲, 隨咳納針至分寸. 候數穴針畢, 停少時, 用右手大指及食指, 持針細細動搖, 進退搓捻, 其針如手顫之狀, 謂之催氣. 約行五六次, 覺針下氣緊, 却用瀉法. 如針左邊, 用右手大指食指持針, 以大指向前, 食指向後, 以針頭輕提往左轉. 如有數針候依此法, 俱轉畢, 仍用右手大指食指持針, 却用食指, 連搓三下(謂之飛), 仍輕提住³²左轉, 夏退針半分許, 謂之三飛一退. 依此法行至五六次, 覺針下沉緊, 是氣至極矣, 再輕提往左轉一二次. 如針右邊, 以左手大指食指持針, 以大指向前, 食指向後, 依前法連搓三下, 輕提針頭往右轉, 是針右邊瀉法. 欲出針時, 令病人咳一聲, 隨咳出針, 此謂之瀉法也.

[신(臣)] 유근(劉瑾)이 아뢰건대, 옛날 광강(宏綱)선생께서 가르쳐주시며 말씀하시는 기록, 일단 혈 자리를 바르게 잘 잡았다면 왼손 엄지로 그 혈 자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침을 그 혈 자리 위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환자로 하여금 기

침을 한 번 하게 하여 그 기침하는 순간에 침을 얕은 깊이로 찌른다. 여러 혈에 침을 다 놓은 후 잠시 기다렸다가 오른손 엄지와 식지로 침을 잡고 약간 흔들어주고 조금 더 찔렀다가 약간 빼내거나 침을 비비며 돌려주는데, 그 침이 떨리는 상태가 되면 기가 도달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5-6차 행한 후 침 아래로 조이는 기운이 느껴지면 비로소 사법(瀉法)을 쓴다. 만약 침을 좌측에 놓았으면 오른 손 엄지와 식지를 써서 침을 잡고 엄지는 앞으로, 식지는 뒤로 움직이면서 침 머리를 가볍게 당겨주면서 왼쪽으로 돌려준다. 놓은 침들을 이 방법 모두 돌려주었다면, 다시 오른손 엄지와 식지로 침을 잡고 식지를 이용하여 연속 세 번을 비비며 내려주고(이를 “비(飛)”라고 한다) 다시 가볍게 비비면서 왼쪽으로 돌리고 침을 5푼 정도만 빼주는데 이를 “삼비일퇴(三飛一退)”라 한다. 이 방법대로 5-6차 행한 후 침 아래로 묵직하게 조이는 기운이 느껴진다면 기운이 최대로 이른 것이니, 다시 침을 가볍게 당기면서 왼쪽으로 1-2차 돌려준다. 침을 오른쪽에 놓았다면 왼손 엄지와 식지로 침을 잡고 엄지를 앞으로 밀고 식지를 뒤로 당기면서 앞의 방법대로 이어서 세 차례 비비며 내렸다가 침 머리를 가볍게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이는 침을 오른쪽으로 놓았을 때의 사법(瀉法)이다. 침을 빼고자 할 때에는 환자로 하여금 기침을 한 번 하게 하여 기침을 따라 침을 빼는데 이를 사법(瀉法)이라 한다.

1.5.2. 補訣直說 | 보결직설

臣瑾曰, 昔宏綱先生授曰, 凡人有疾, 皆邪氣所湊, 雖病人瘦弱, 不可專行補法. 經曰, 邪之所湊, 其氣必虛, 如患赤目等疾, 明見其爲邪熱所致, 可專行瀉法, 其餘諸疾, 只宜平補平瀉. 須先瀉後補, 謂之先瀉其邪, 後補真氣, 此乃先生不傳之祕祕³³訣也. 如人有疾, 依前法, 針用手法, 催氣取氣, 瀉之既畢, 却行補法. 令病人吸氣一口, 隨吸轉針, 如針左邊, 捏針頭轉向右邊, 以我之右手大指食指持針, 以食指向前, 大指向後, 仍捻針深入一二分, 使真氣深入肌肉之分. 如針右邊, 捏針頭轉向左邊, 以我之左手大指食指持針, 以食指向前, 大指向後, 仍捻針深入一二分, 如有數穴, 依此法行之, 既畢停少時, 却用手指於針頭上, 輕彈三下, 如此三次, 仍用我之左手大指

食指持針, 以大指連搓三下(謂之飛), 將針深進一二分, 以針頭轉向左邊, 謂之一進三飛. 依此法行, 至五六次, 覺針下沈緊, 或針下氣熱, 是氣至足矣. 令病人吸氣一口, 隨吸出針, 急以手按其穴, 此謂之補法也.

(신(臣)) 유근(劉瑾)이 아뢰건대, 옛날 광강(宏綱)선생께서 가르쳐주시며 말 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병이 든 것은 모두 사기(邪氣)가 모인 것이니 비록 환자가 수척하고 약하다 해도 보법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사기(邪氣)가 모이는 것은 그 기운이 반드시 허한 때문이니, 눈이 붉어지는 등의 병을 앓는 것은 사열(邪熱)로 인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므로 오로지 사법(瀉法)만을 써도 되나 그 외의 병들은 다만 완만히 보하고 완만히 사해야 한다. 먼저 사하고 나중에 보하라는 것은 먼저 그 사기(邪氣)를 사한 후에 진기(眞氣)를 보하라는 뜻이니 이것이 바로 선생께서 전하지 않은 비결(祕訣)이다. 사람이 병이 들면 앞의 방법에 따라 침의 수기법을 써서 기운을 끌어들이고 취하며, 사법을 다 마친 뒤에 비로소 보법을 행한다. 환자로 하여금 숨을 한 번 들이쉬게 하여 그 들숨에 따라 침을 돌리는데 침을 좌측에 놓았다면 침머리를 우측을 향해 돌려주고 나의 오른손 엄지와 식지로 침을 잡은 채로 식지를 앞으로 밀고 엄지를 뒤로 움직여 침을 돌리면서 1-2푼 깊이로 넣어줌으로써 진기(眞氣)가 기육(肌肉)에까지 깊이 이르도록 한다. 침을 오른쪽에 놓았다면 침머리를 좌측을 향해 돌려주고 나의 왼손 엄지와 식지로 침을 잡고 식지를 앞으로 가게하고 엄지를 뒤로 움직여 침을 돌리면서 1-2푼 깊이로 넣는데, 놓아야 할 혈 자리가 여러 개라면 이 방법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다 끝난 뒤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 머리를 가볍게 세 번 아래로 퉁겨주는 데 이렇게 세 번 한 뒤에 다시 나의 왼손 엄지와 식지로 침을 잡고 엄지로 세 번을 비비며 내려주고(이를 비(飛)라고 한다) 침을 1-2푼 더 밀어 넣어주면서 침머리를 좌측을 향해 돌려주니 이를 “일진삼비(一進三飛)”라고 한다. 이 방법대로 5-6차를 행하면 침 아래로 묵직하게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침 아래로 뜨

거운 기운이 생기는데 이것은 기운이 충분히 이르렀음을 말한다. 환자로 하여금 숨을 한 번 들이쉬게 하여 그 들숨에 따라 침을 빼고 빠르게 손으로 그 혈자리를 줄려주는데 이를 보법(補法)이라 한다.

31. **헌기(軒岐)** :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을 말한다. ↪

32. **住** : 《초간본》에는 “住”자로 가필이 되어 있으나 “往”자의 오기로 보인다. 두 대교본에 의거하여 해석은 “往”을 따랐다. ↪

33. **秘秘** : 겹쳐있는 글자 중 하나는 연문으로 보인다. 《인조간본》과 《정보간본》에는 한 글자로 되어 있다. ↪

1.6. 혈법도 穴法圖

1.6.1. 혈법도 穴法圖

1.6.2. 인 수태음폐경 寅手太陰肺經

1.6.3. 묘 수양명대장경 卯手陽明大腸經

1.6.4. 진 족양명위경 辰足陽明胃經

1.6.5. 사 족태음비경 巳足太陰脾經

1.6.6. 오 수소음심경 午手少陰心經

1.6.7. 미 수태양소장경 未手太陽小腸經

1.6.8. 신 족태양방광경 申足太陽膀胱經

1.6.9. 유 족소음신경 酉足少陰腎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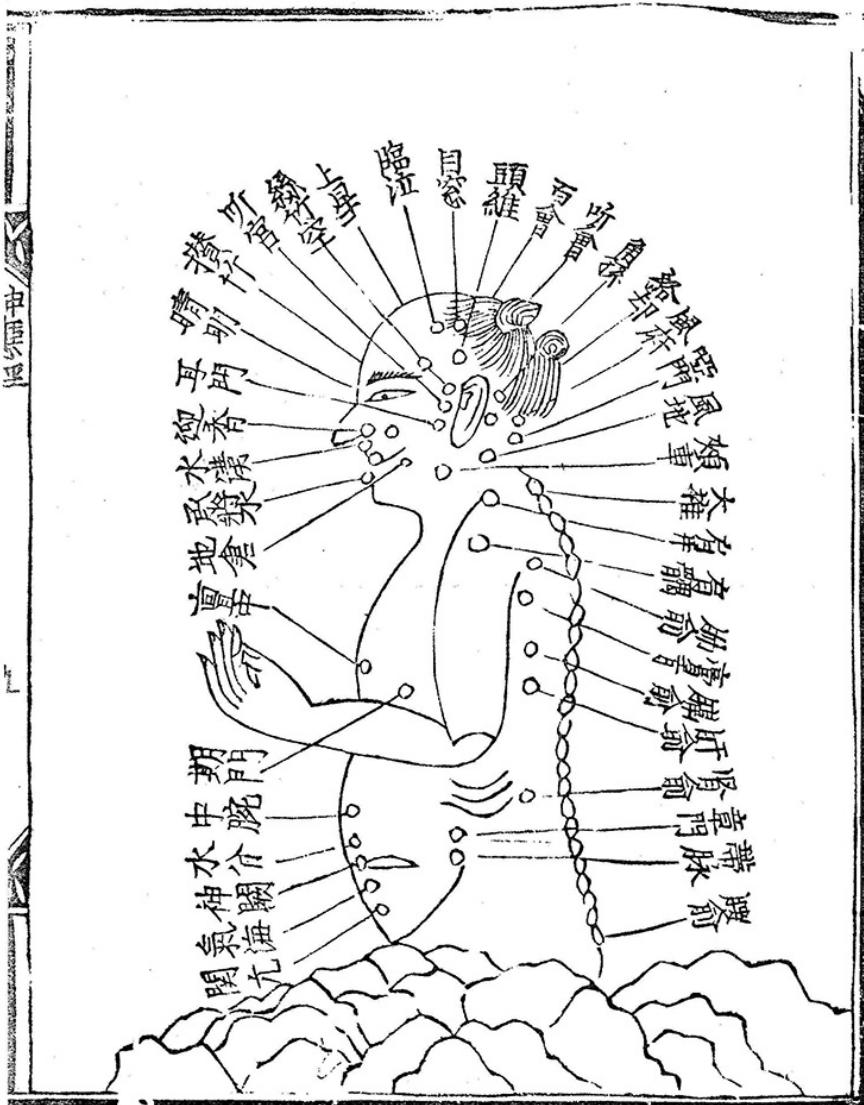
1.6.10. 술 수궐음포락경 戌手厥陰包絡經

1.6.11. 해 수소양삼초경 亥手少陽三焦經

1.6.12. 자 족소양담경 子足少陽膽經

1.6.13. 축 족궐음간경 丑足厥陰肝經

1.6.1. 穴法圖 | 혈법도



腰俞 帶脈 章門 腎俞 肝俞 脊俞 膏肓 肺俞 肩髃 肩井 大椎 頰車 風池 痘門 風府 絡却 角孫 聽會 百會 頭維 目窓 臨泣 上星 絲竹空 听³⁴ 宮 攢竹 晴明 耳門 迎香 水溝 承漿 地倉 壱中 期門 中腕 水分 神闕 氣海 関元

요수(腰俞) 대맥(帶脈) 장문(章門) 신수(腎俞) 간수(肝俞) 격수(膈俞) 고황(膏肓) 폐수(肺俞) 견우(肩髃) 견정(肩井) 대추(大椎) 협거(頰車) 풍지(風池) 아문(痘門) 풍부(風府) 낙각(絡却) 각손(角孫) 청회(聽會) 백회(百會) 두유(頭維) 목창(目窓) 두임읍(頭臨泣) 상성(上星) 사죽공(絲竹空) 청궁(听宮) 찬죽(攢竹) 정명(晴明) 이문(耳門) 영향(迎香) 수구(水溝) 승장(承漿) 지창(地倉) 단중(壹中) 기문(期門) 중완(中腕) 수분(水分) 신궐(神闕) 기해(氣海) 관원(關元)

1.6.1.1. 百會 | 백회

在頂中陷中. 容豆許, 去前髮際五寸, 後髮際七分³⁵. 灸七壯至七七.

정수리의 오목한 곳이다. 콩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이며 전발제(前髮際)로부터 5촌 떨어져 있고 후발제(後髮際)로부터 7촌 떨어져 있다. 뜸은 7장에서 49장까지 뜯다.

1.6.1.2. 上星 | 상성

在鼻上, 入髮際一寸. 針三分, 以細三稜針, 泄諸陽氣熱氣. 可灸七壯, 不宜多, 若頻灸, 拔氣上目不明.

콧날 선상에서 전발제(前髮際) 안으로 1촌 들어간다. 침은 3푼 깊이로 놓으며, 가느다란 삼릉침(三稜針)을 써서 제반 양기(陽氣)와 열기(熱氣)를 빼준다. 뜸은 7장을 뜰 수 있으며 많이 떠서는 안 되는데, 만약 자주 뜸을 뜨면 기운이 위로 뻗쳐 눈이 흐려진다.

1.6.1.3. 目窓 | 목창

在臨泣後一寸. 灸五壯, 針三分, 三度刺, 目大明.

두임읍(頭臨泣)에서 1촌 뒤에 있다. 뜸은 5장, 침은 3푼을 놓으며 3회 찌르면 눈이 크게 밝아진다.

1.6.1.4. 臨泣 | 두임읍

在目上直入髮際五分陷中. 針三分, 灸五壯.

눈 위에서 발제 안쪽으로 곧게 올라가 5푼 들어간 오목한 지점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5장을 뜯다.

1.6.1.5. 風府 | 풍부

在項後髮際上一寸, 大筋內宛宛中. 針四分. 禁灸, 灸之使人失音, 或七壯. ○頤會, 在上星後寸陷中.

뒷목에서 후발제(後髮際) 위로 1촌 거리에 있으며 굵은 근육 안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4푼 깊이로 놓는다. 금구혈(禁灸穴)로서 뜸을 뜯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나 혹 7장을 뜯기도 한다. ○ 신회(頤會)는 상성(上星) 뒤로 1촌의 오목한 곳이다. ○ 신회(頤會)³⁶

1.6.1.6. 瘰門 | 아문

壯項後, 入髮五分宛宛中, 仰頭取之. 針三分. 禁灸, 灸之令人啞. ○腦空, 在目窓後四寸, 挾玉枕骨下陷中. 針五分, 灸三壯.

목덜미 뒤 발제 안으로 5푼 들어가 오목한 곳이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취혈한다. 침은 3푼 깊이로 놓는다. 금구혈(禁灸穴)이며 뜸을 뜯으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 뇌공(腦空)은 목창(目窓)에서 뒤로 4촌을 가서 옥침골(玉枕骨) 옆에서 아래로 오목한 곳이다.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7. 風池 | 풍지

在腦空下髮際陷中. 針一寸二分. 灸不及針, 日七壯至百壯, 烊不用大.

뇌공(腦空)아래 후발제 경계상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1촌 2푼 깊이로 놓는다. 뜸은 침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나 하루에 7장에서 100장까지 뜰며, 뜸 심지는 크게 하지 않는다.

1.6.1.8. 絡却 | 낙각

在腦後髮際上兩傍, 起肉上各一寸三分. 腦後枕骨, 俠腦戶, 自髮際上四寸半. 針三分, 灸三壯.

머리 뒤 후발제 경계 위에 양쪽으로 살이 올라온 곳으로 후발제에서 각 1촌 3푼거리이다. 머리 뒤쪽의 침골(枕骨)에서 뇌호(腦戶)를 끼고 후발제에서 위로 4촌 5푼이다. 침은 3푼 깊이, 뜸은 3장을 뜯다.

1.6.1.9. 角孫 | 각손

在耳廓中間上, 開口有空. 針八分, 灸三壯.

귓바퀴 중간의 위쪽으로 입을 벌리면 구멍이 생기는 곳이다. 침은 8푼 깊이, 뜸은 3장을 뜯다.

1.6.1.10. 肩井 | 견정

在鉢盆上大骨前寸半, 以三指按, 當中指下陷中. 止可五分, 若深令人悶倒, 速三里下氣. ○竅.

결분(鉢盆) 위 대골(大骨) 앞의 1촌 5푼 되는 곳이며 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가운데 손가락 아래에 닿는 오목한 곳이다. 5푼 깊이에서 그쳐야 하는데 만약 깊이 찌르면 가슴이 답답해하면서 쓰러지게 되며, 이때는 속히 족삼리(足三里)³⁷에 침을 놓아 기운을 내려주어야 한다. ○ 규(竅)³⁸

1.6.1.11. 肩髃 | 견우

在肩端兩骨間, 有陷宛宛中, 舉臂取之. 針八分, 灸五壯, 可日七至二七. ○ 天柱, 挾項後髮際.

어깨 끝의 두 뼈 사이에 오목한 곳에 있으며 팔을 들고 취혈한다. 침은 8푼 깊이로 놓고, 뜸은 5장을 뜨며 하루에 7장에서 14장까지 뜰 수 있다. ○ 천주(天柱)는 목덜미를 끼고 후발제(後髮際) ○ 천주(天柱)³⁹

1.6.1.12. 晴明 | 정명

在目眥內角. 針寸半, 雀目者, 可久留針然後速出. 禁灸.

눈자위 안쪽에 있다. 침은 1촌 5푼을 놓으며 작목(雀目)⁴⁰에는 오래 침을 꽂아 두었다가 빠른 속도로 빼준다. 금구혈(禁灸穴)이다.

1.6.1.13. 攢竹 | 찬죽

在兩眉頭, 小陷宛宛中. 三分三度刺, 目大明, 宜鋒針出血.

두 눈썹 머리에 약간 오목한 곳이다. 3푼씩 3번을 찌르면 눈이 크게 밝아지며, 봉침(鋒針)으로 출혈시키는 것이 좋다.

1.6.1.14. 絲竹空 | 사죽공

在眉後陷中. 針三分, 宜瀉不宜補. 禁灸, 灸之使人41 目小無所見.

눈썹 끼리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으며 사해야 하고 보하면 안 된다.
금구혈(禁灸穴)이며 뜰을 뜯으면 눈이 작아지고 보이지 않게 된다.

1.6.1.15. 頭維 | 두유

在額角入髮際, 本神傍寸半, 取曲鬢一寸. 針三分, 禁灸.

관자놀이에서 발제(髮際) 옆으로 들어가서 본신(本神) 옆으로 1촌 5푼이며
곡빈(曲鬢)에서 1촌 거리이다. 침은 3푼이며 금구혈(禁灸穴)이다.

1.6.1.16. 迎香 | 영향

在鼻孔旁五分. 針三分, 不灸.

콧구멍 옆으로 5푼에 있다. 침은 3푼을 놓으며 금구혈(禁灸穴)이다.

1.6.1.17. 頰車 | 협거

在耳下八分, 近前曲頰端上陷中. 針四分, 灸日七壯至七七.

귀 아래로 8푼이며 하악각(曲頰端)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4푼을 놓고, 뜰은
하루에 7장에서 49장을 뜯는다.

1.6.1.18. 聽會 | 청회

在耳微前陷中, 上開下一寸, 動脈宛宛中. 開口取之. 針七分不補, 日五壯止三七壯.

귀에서 약간 앞의 꺼진 곳이며 입을 벌리면 열리는 곳에서 1촌 내려가 맥이 뛰는
오목한 곳이다. 입을 벌리고 취혈한다. 침은 7푼으로 놓되 보하지 말고 뜰은
하루에 5장에서 21장을 뜯는다.

1.6.1.19. 聽宮 | 청궁

在耳中珠子, 大如赤小豆. 針三分, 灸三壯.

귀 가운데에 구슬처럼 생긴 곳으로 크기가 팥알 만 하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20. 耳門 | 이문

在耳中起肉, 當耳缺陷中. 針三分. 禁灸, 有病不過三壯.

귀 가운데에 살이 도드라진 곳으로 귀 쪽으로 파여 들어간 곳이다. 침은 3푼을 놓는다. 금구혈(禁灸穴)이며 병이 있어도 3장을 넘기면 안 된다.

1.6.1.21. 地倉 | 지창

在夾口吻四分之外, 近下有脉微微動是也. 針三分半, 灸日七二七, 重者七七.

입가에서 4푼 떨어진 곳으로 약간 아래에 맥이 미미하게 뛰는 곳이다. 침은 3푼 5리를 놓고, 뜸은 하루에 7장에서 14장으로 뜨며 병이 중하면 49장을 뜯다.

1.6.1.22. 水溝(一名人中.) | 수구(水溝)(인중(人中)이라고도 한다. 一名人中)⁴²

在鼻柱下溝中央. 針四分, 灸不及針, 水腫惟得針此, 日三壯, 止二百壯.

콧날 아래 고랑의 중앙이다. 침은 4푼을 놓는데 뜸은 침만 못하고, 수종(水腫)이 있을 때에는 이곳에만 침을 놓을 수 있고 뜸은 하루에 3장에서 200장까지 뜯다.

1.6.1.23. 承漿 | 승장

在頤前, 唇稜下宛宛中. 針三分, 灸日七壯, 止七七, 烊依小筋頭大.

턱의 앞쪽이며 입술선 아래의 오목한 부위이다. 침은 3푼, 뜸은 하루 7장에서 49장까지 뜨며, 뜸 심지는 작은 젓가락 머리 크기 정도로 한다.

1.6.1.24. 売中 | 단증

在乳兩間, 折中而取之, 有陷是穴, 仰而取之. 禁針, 灸七壯, 止七七.

양 유두 사이의 중앙에서 취하되 꺼져 들어간 곳이며 누워서 취혈한다. 금침혈(禁針穴)이며 뜸은 7장에서 49장까지 뜯다.

1.6.1.25. 期門 | 기문

在乳傍一寸半, 直下又一寸半, 第二助端縫中. 其寸用胸前寸折量. 針四分, 灸五壯.

유두 바깥 1촌 5푼에서 아래로 다시 1촌 5푼을 곧게 내려와 2번째 늑골 끝과 만나는 지점이다. 길이 기준은 가슴 앞쪽의 절량법을 사용한다. 침은 4푼을 놓고, 뜸은 5장을 뜯다.

1.6.1.26. 中腕 | 중완

去蔽骨尖四寸下, 至臍四寸. 針八分, 灸二七至百壯, 止四百壯.

폐골(蔽骨)⁴³의 끝에서 4촌 아래이고 배꼽까지 4촌 거리이다. 침은 8푼, 뜸은 14장에서 100장까지 뜨며 400장을 넘기지 않는다.

1.6.1.27. 水分 | 수분

在臍上一寸. 水病灸之大良. 禁針, 針水盡卽死. 針八分, 灸七壯至四百壯.

배꼽 위 1촌이다. 수종(水腫)에 뜰을 뜯을 때 매우 좋다. 금침혈(禁針穴)이며, 수종(水腫)에 침을 놓으면 물이 다 빠진 후에 죽는다. 침은 8푼, 뜸은 7장에서 400장까지 뜯다.

1.6.1.28. 章門 | 장문

在臍上二寸, 兩傍各六寸. 其寸用胸前兩乳間, 橫折八寸內之六寸, 側臥屈上足伸下足, 取動脈, 灸日七壯至二七壯.

배꼽 위 2촌에서 양쪽 옆으로 6촌씩 간다. 길이 기준은 가슴 앞쪽 양 유두사이 거리를 8촌으로 나누었을 때 그 안의 6촌이다. 옆으로 누워 위의 다리는 굽히고 아래 놓인 다리는 편 상태로 맥이 뛰는 곳을 취하며, 뜸은 하루에 7장에서 14장 뜯다.

1.6.1.29. 帶脈 | 대맥

在季肋下一寸八分, 脍上二分兩傍各七寸半. 針六分, 灸七壯.

11번 늑골 아래 1촌 8푼이며, 배꼽 위 2푼에서 양 옆으로 각 7촌 5푼거리에 있다. 침은 6푼을 놓고, 뜸은 7장을 뜯다.

1.6.1.30. 神闕 | 신궐

當臍中. 禁刺. 刺之使人臍中瘍潰, 屢出者死. 灸百壯.

배꼽 가운데이다. 침은 금한다. 침을 놓으면 배꼽이 곪으며, 분변이 비어져 나오면 죽는다. 뜸은 100장을 뜯다.

1.6.1.31. 氣海 | 기해

當臍下一寸半宛宛中. 針八分, 灸百壯.

배꼽 아래 1촌 5푼에서 오목한 곳이다. 침은 8푼을 놓고, 뜸은 100장을 뜯다.

1.6.1.32. 閔元 | 관원

在臍下三寸. 自臍心至橫骨, 通折五寸. 針八分, 灸百壯至三百, 灸不及針.

배꼽 아래 3촌이다. 배꼽중앙에서 치골결합까지를 5촌으로 잡는다. 침은 8푼, 뜸은 100장에서 300장을 뜨되 뜸은 침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

1.6.1.33. 大椎 | 대추

在脊骨第一椎上, 陷者宛宛中. 人髮不明者, 從此穴上行三寸. 針五分, 灸以年爲壯.

제1추(椎) 위의 오목한 곳이다. 머리카락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 혈을 따라 위로 3촌 되는 곳을 발제(髮際)로 삼는다. 침은 5푼, 뜸은 나이 수대로 뜯다.

1.6.1.34. 肺俞 | 폐수

在第三椎下, 兩傍各二寸. 灸百壯, 針中之二日卒.

3추(椎) 아래에서 양 옆으로 2촌 거리에 있다. 뜸은 100장을 뜨고 침을 놓아 증상에 적중하면 2일 만에 마친다.

1.6.1.35. 膽俞 | 격수

在第七椎下兩傍各二寸. 灸百五壯.

7추(椎) 아래에서 양 옆으로 2촌이다. 뜸은 105장을 뜯다.

1.6.1.36. 肝俞 | 간수

在第九椎下兩傍各二寸. 灸七壯, 針中之五日卒.

9추(椎) 아래에서 양 옆으로 2촌이다. 뜸은 7장을 뜨고, 침은 증상에 적중하면 5일 만에 마친다.

1.6.1.37. 腎俞 | 신수

在第十四椎下, 與臍平兩傍各二寸. 灸以年爲壯, 針中之六日卒.

14추(椎) 아래로 배꼽과 같은 높이에 있으며, 양쪽으로 2촌 거리이다. 뜸은 나 이 숫자대로 뜨고 침은 증상에 적중하면 6일 만에 마친다.

1.6.1.38. 膏肓 | 고황

在第五椎下兩傍各三寸半. 四肋三間, 去胛骨容側指許. 灸百壯止一千.

5추(椎) 아래에서 양쪽으로 3촌 5푼이다. 4개의 늑골에서 3번째 늑간이며 견갑 골에서 옆으로 손가락 두께만큼 떨어진 곳이다. 뜸은 100장을 뜨고 1000장을 채우면 중단한다.

1.6.1.39. 腰俞 | 요수

在二十一椎下. 自大椎至此, 折三尺, 舒身以腹挺地, 兩手相重支額, 縱四體後乃取之. 針八分, 灸七壯至七七.

21추(椎) 아래다. 대추(大椎)에서 이곳까지를 3척으로 하여 몸을 펴고 배를 바닥에 대고 누워 양손을 서로 겹쳐 이마를 받치고 몸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취혈 한다. 침은 8푼, 뜸은 7장에서 49장을 뜯다.

1.6.1.40. 前頂 | 전정⁴⁴

在上星後二寸五分.

상성(上星)에서 2촌 5푼 뒤에 있다.

1.6.1.41. 後頂 | 후정

在百會後一寸五分.

백회(百會)에서 1촌 5푼 뒤에 있다.

³⁴. 听 : “聽”의 약자로 썼다. ↵

³⁵. 七分 : 백회혈의 위치로 볼 때 “七寸”이 맞다. 《인조간본》은 “七分”으로 표기된 것을 다시 “七寸”으로 고쳐 놓았고 《정보간본》에는 “七寸”으로 바르게 적혀 있다. ↵

³⁶. ○ 신회(顛會) : 《초간본》의 소장자가 덧붙인 항목이다. ↵

³⁷. 족삼리(足三里) : 원문에서 족삼리와 수삼리를 구별해 놓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삼리(三里)”로 표기하고 있다. 이 항목 역시 원문에는 “삼리(三里)”라고 되어 있으나 두 혈의 혈성을 고려하여 번역문에서는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

³⁸. ○ 규(竅) : 소장자가 덧붙인 내용이나 뒷부분은 종이 손상으로 손실되었다.
↪

³⁹. ○ 천주(天柱) : 소장자가 덧붙인 항목이나 뒷부분은 손실되었다. ↵

⁴⁰. 작목(雀目) : 밤눈이 어두운 것을 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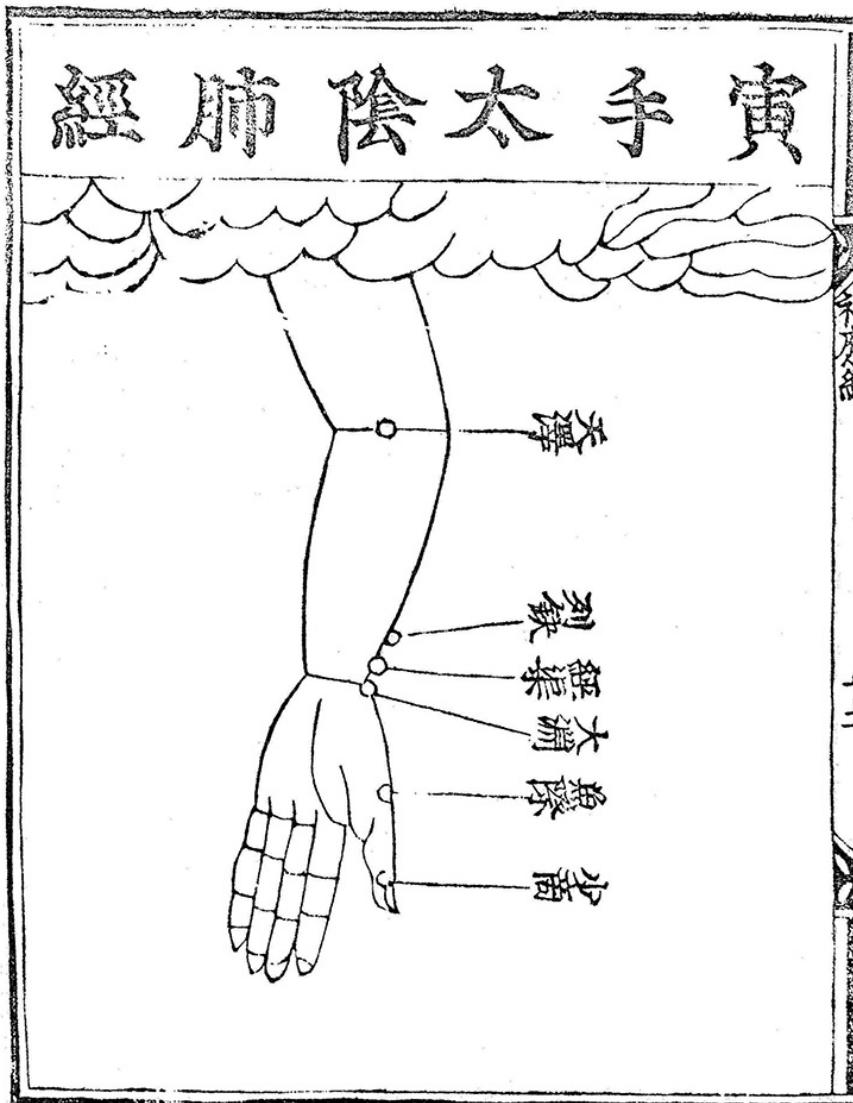
41. 人 : 소장자가 원문을 복원하면서 “入”으로 가필하였으나 문맥상 “人”이 맞으므로 고쳤다. ↪

42. 一名人中 : 소장자가 덧붙여 놓았다. ↪

43. 폐골(蔽骨) : 검상돌기를 말한다. ↪

44. 前頂 : 이 항목과 아래의 후정(後頂) 항목은 《초간본》의 소장자가 덧붙인 내용이다. ↪

1.6.2. 寅手太陰肺經 | 인⁴⁵ 수태음폐경



尺澤 列缺 經渠 太淵 魚際 少商

척택(尺澤) 열결(列缺) 경거(經渠) 태연(太淵) 어제(魚際) 소상(少商)

1.6.2.1. 尺澤(合水) | 척택(합수(合水))⁴⁶

在肘中約紋上, 兩筋間動脈. 針三分, 灸五壯.

팔꿈치 안쪽의 접히는 무늬 위에 있으며 양 근육 사이에 맥이 뛰는 곳이다. 침은 3푼을 놓되 깊이 놓아서는 안되며, 뜸은 5장을 뜯다.

1.6.2.2. 列缺 | 열결

在手側腕上寸半. 以手交中指頭末, 兩筋兩骨罅中. 針三分, 灸七七壯.

손의 측면이며 손목 위로 1촌 5푼 올라간 곳에 있다. 악수할 때 가운데 손가락 머리의 끝이 놓이는 곳이며 두 근육과 두 뼈의 사이에 있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49장을 뜯다.

1.6.2.3. 經渠(經金) | 경거(경금)

在寸口陷中, 動脈應手. 針二分, 禁灸.

총구(寸口)의 오목한 곳이며 맥이 뛰는 것이 손에 잡힌다. 침은 2푼을 놓으며, 금구혈(禁灸穴)이다.

1.6.2.4. 太淵(俞土) | 태연(수토)

在掌後內側, 橫紋頭動脈. 針二分, 灸三壯.

손바닥에서 물러나 안쪽 측면이며 손목금의 맥이 뛰는 부위이다. 침은 2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2.5. 魚際(榮火) | 어제(形화)

在大指本節後, 白肉際. 針三分.

엄지손가락 본절(本節) 뒤의 적백육제(赤白肉際)⁴⁷에 있다. 침은 3푼을 놓는다.

1.6.2.6. 少商(井木) | 소상(정목)

在手大指內側, 去爪甲如葦葉. 針一分. 禁灸, 可鋒針.

엄지손가락 안쪽이며 손톱으로부터 부추잎 만큼 떨어진 곳이다. 침은 1푼을 놓는다. 금구혈(禁灸穴)이며 봉침(鋒針)을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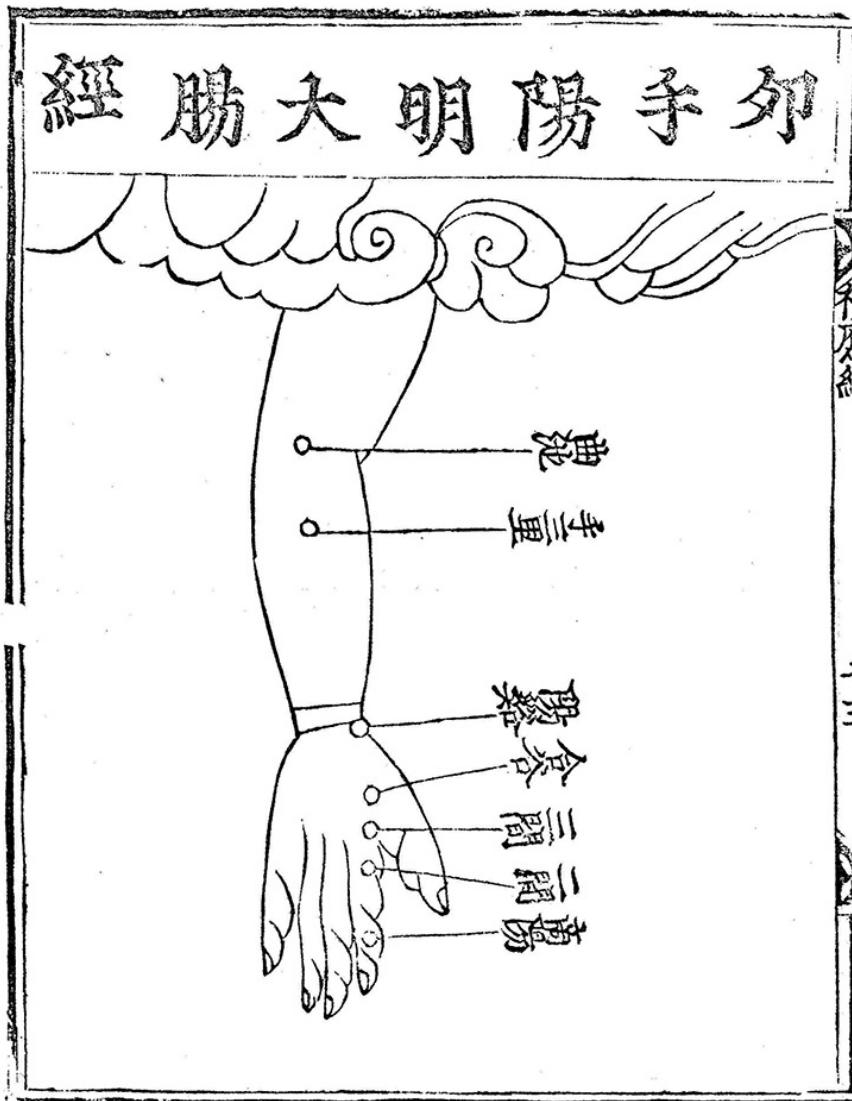
⁴⁵. 인(寅): 십이경락에 배속되는 십이지를 표기해 놓았다. 이하도 이와 같다.



⁴⁶. 합수(合水): 오수혈(五俞穴) 배속을 표기해 놓았는데 모두 소장자가 덧붙인 것이다. 이 혈은 합혈(合穴)이자 수혈(俞穴)에 해당한다. 오수혈은 정형수경합(井榮水經合)의 다섯 가지에 배속되며 동시에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행에도 배속되는데, 음경(陰經)이면 말단부터 목화토금수의 순서가 되지만 양경(陽經)일 경우에는 금수목화토로 순서가 바뀌게 된다. ←

⁴⁷. 적백육제(赤白肉際): 색이 짙은 손등과 색이 흰 손바닥의 경계부위를 말한다. ←

1.6.3. 卯手陽明大腸經 | 묘 수양명대장경



曲池 三里 陽谿 合谷 三間 二間 商陽

곡지(曲池) 삼리(三里) 양계(陽谿) 합곡(合谷) 삼간(三間) 이간(二間) 상양(商陽)

1.6.3.1. 商陽(井金) | 상양(정금)

在手大指次指內側, 去爪甲角如韭葉. 針一分, 灸三壯.

둘째손가락 안쪽이며 손톱귀퉁이에서 부추잎 만큼 떨어져 있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3.2. 二間(滎水) | 이간(형수)

在手大指次指本節前, 內側陷中. 針三分, 灸三壯.

둘째손가락 본절(本節) 이전의 안쪽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3.3. 三間(俞木) | 삼간(수목)

在手大指次指本節後, 內側陷中. 針三分, 灸三壯.

둘째손가락 본절(本節)을 지나서 안쪽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3.4. 合谷(原) | 합곡(원)

在手大指次指岐骨間陷中. 針三分, 灸三壯. 孕婦不可針.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나뉘는 뼈 사이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임신한 부인에게는 이곳에 침을 놓으면 안 된다.

1.6.3.5. 陽谿(經火) | 양계(경화)

在手腕中, 上側兩筋間陷中. 針三分, 灸三壯.

손목의 측면 위쪽에 양 힘줄 사이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 을 뜯다.

1.6.3.6. 手三里 | 수삼리

在曲池下三寸, 按之肉起兌肉端. 針三分, 灸三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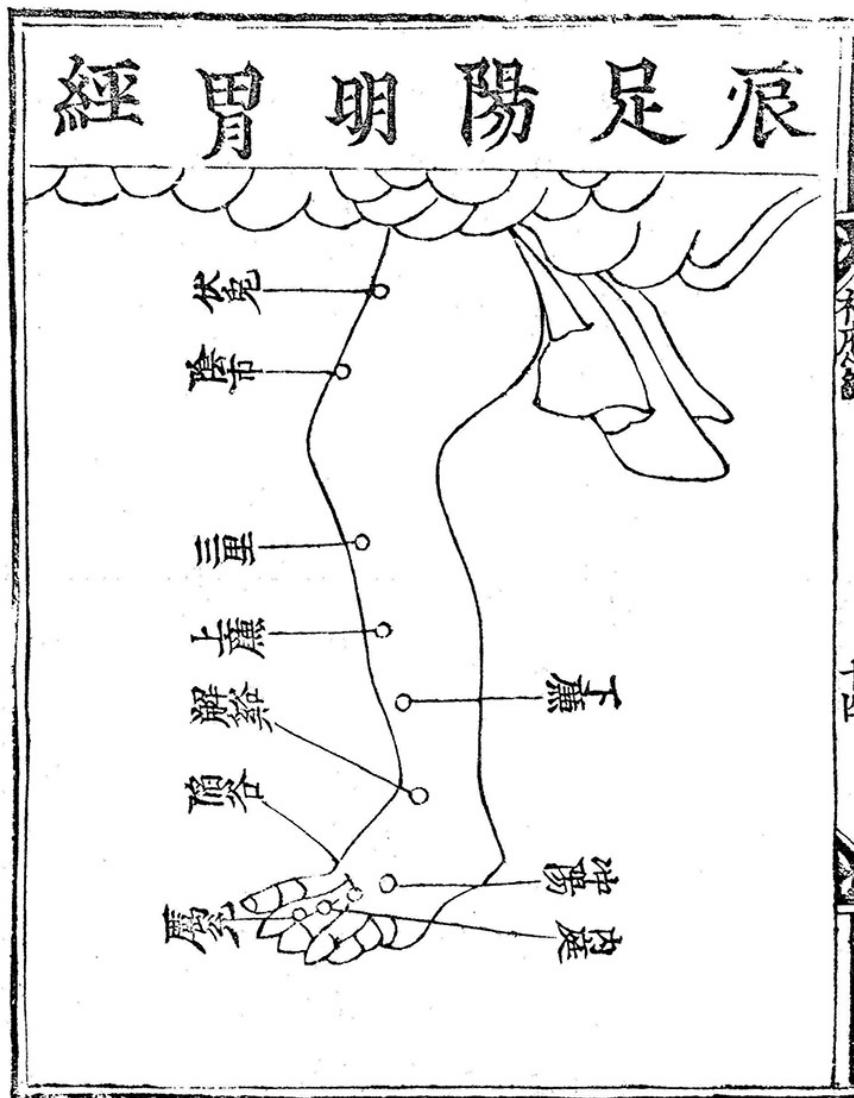
곡지 아래로 3촌이며 만졌을 때 살이 솟아있는 태육(兌肉)의 끝부분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3.7. 曲池 | 곡지

在肘外輔骨, 曲肘橫文頭陷中. 拱胸取之. 針七分, 灸七壯, 可日七至二百.

팔꿈치 바깥 보골(輔骨)에 있으며 팔을 굽혔을 때 잡히는 주름의 끝머리에 있는 오목한 곳이다. 팔을 가슴에 대고 취혈한다. 침은 7푼을 놓고, 뜸은 7장 뜯는데, 하루에 7장에서 200장까지 뜰 수 있다.

1.6.4. 辰足陽明胃經 | 진 족양명위경



伏兔 隱市 三里 上廉 下廉 解谿 衝陽 陷谷 內庭 厥兌

복토(伏兔) 음시(陰市) 삼리(三里) 상렴(上廉) 하렴(下廉) 해계(解谿) 총양(衝陽) 함곡(陷谷) 내정(內庭) 여태(厲兑)

1.6.4.1. 伏兎 | 복토

在陰市上三寸, 循起肉, 坐而取之. 針三分. 禁灸.

음시(陰市) 위 3촌에 살이 솟은 곳을 따라서 있으며 앓아서 취혈한다. 침은 3푼을 놓으며 금구혈(禁灸穴)이다.

1.6.4.2. 陰市 | 음시

在膝蓋上三寸, 拜而取之. 針三分. 不灸.

슬개골 위 3촌이며 끊어앉아 취혈한다. 침은 3푼을 놓으며 뜸은 뜨지 않는다.

1.6.4.3. 三里(合土) | 족삼리(합토)

在膝蓋下三寸, 肱骨間大筋內, 坐而取之. 針八分, 灸止百壯. ○ 瘢鼻, 在膝膿下骭挾解大筋中, 微刺之.

슬개골 아래 3촌이고 경골(肱骨) 사이의 큰 힘줄 안쪽이며 앓아서 취혈한다. 침은 8푼을 놓고, 뜸은 100장을 넘지 않게 한다. ○ 독비(瘡鼻)는 슬개골 아래 경골을 끼고 큰 힘줄과 만나는 곳에 있으며 살짝만 찌른다. 독비(瘡鼻)⁴⁸

1.6.4.4. 上廉 | 상렴

在三里下三寸, 兩筋兩骨罅陷宛宛中, 蹲坐取. 針三分.

족삼리(足三里) 아래 3촌이며 두 힘줄과 두 뼈 사이의 오목한 곳으로, 다리를 구부리고 취혈한다. 침은 3푼을 놓는다.

1.6.4.5. 下廉 | 하렴

在上廉下三寸, 取穴法與上廉同. 針三分, 並灸七壯.

상렴(上廉) 아래 3촌이며 취혈법은 상렴과 같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함께 7장을 뜯다.

1.6.4.6. 解谿(經火) | 해계(경화)

在冲陽後寸半, 腕上繫鞋帶處取之. 針五分, 灸三壯.

충양(冲陽)에서 1촌 5푼 물러난 곳이며 발목 위에서 가죽신을 묶는 곳이다.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4.7. 冲陽(原) | 충양(원)

在足趺上, 去陷谷二寸, 骨間動脈是穴. 針五分, 灸三壯.

발등 위에 있고 함곡(陷谷)에서 2촌 떨어진 곳이며 뼈 사이에 맥이 뛰는 곳이다.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4.8. 陷谷(膾木) | 함곡(수목)

在足大指次指外間, 本節後陷中, 去內庭二寸. 針三分, 灸三壯.

둘째발가락 바깥쪽 본절(本節)에서 물러나 오목한 곳이며, 내정(內庭)에서 2촌 떨어져 있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4.9. 內庭(榮水) | 내정(형수)

在足大指次指外間陷中. 針三分, 灸三壯.

둘째발가락 바깥쪽의 둘째와 셋째발가락 사이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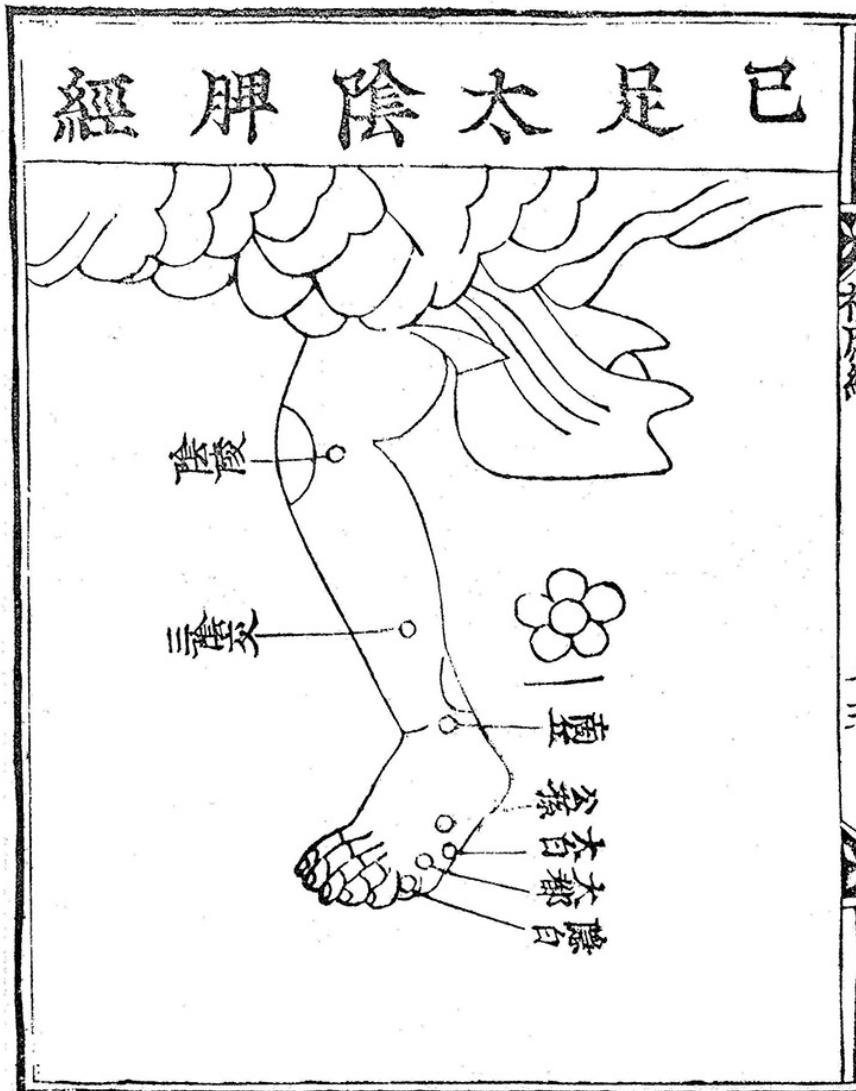
1.6.4.10. 厥兌(井木) | 여태(정목)

在足大指次指端, 去爪角如薤葉. 針一分, 灸一壯.

둘째발가락 끝의 발톱귀퉁이에서 부추잎 만큼 떨어진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1장을 뜯다.

⁴⁸. **독비(犢鼻)**: 소장자가 덧붙인 항목이다. ↪

1.6.5. 巳足太陰脾經 | 사 족태음비경



隱白 大都 太白 公孫 商丘 三陰交 陰陵

은백(隱白) 대도(大都) 태백(太白) 공손(公孫) 상구(商丘) 삼음교(三陰交) 음릉(陰陵)

1.6.5.1. 隱白(井木) | 은백(정목)

在足大指端內側, 去爪甲如韭葉. 月事不止, 刺之立愈. 針二分, 灸三壯.

엄지발가락 안쪽의 발톱귀퉁이에서 부추잎 만큼 떨어진 곳이다. 월경이 그치지 않을 때 침을 놓으면 바로 낫는다. 침은 2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5.2. 大都(榮火) | 대도(형화)

在足大指本節後內側, 白肉際陷中. 針三分, 灸三壯.

엄지발가락 본절(本節) 뒤의 안쪽이며 적백육제(赤白肉際)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5.3. 公孫 | 공손

在足大指本節後一寸. 針四分, 灸三壯.

엄지발가락 본절(本節) 뒤로 1촌이다. 침은 4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5.4. 太白(膾土) | 태백(수토)

在足大指內側, 大都後一寸下一寸. 針三分, 灸三壯.

엄지발가락 안쪽이며 대도(大都)에서 뒤로 1촌, 아래로 1촌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5.5. 商丘(經金) | 상구(경금)

在內踝下微前陷中. 前有中封, 後有照海, 其穴居中. 針三分, 灸三壯.

발 안쪽 복사뼈 아래에서 약간 앞으로 가서 오목한 곳이다. 앞에는 중봉(中封)이 있고 뒤에는 조해(照海)가 있으며 이 혈은 그 가운데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5.6. 三陰交 | 삼음교

在內踝上, 除踝上三寸, 骨下陷中. 針三分, 灸二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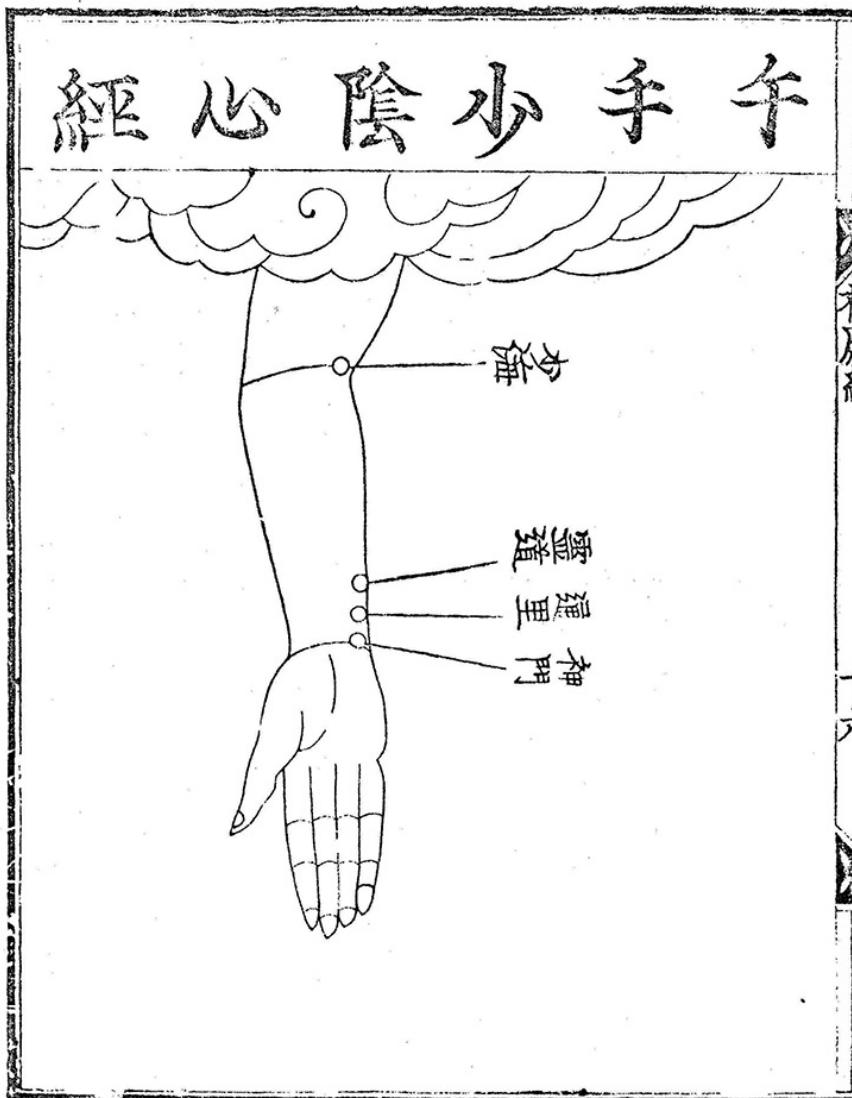
발 안쪽 복사뼈 위로 복사뼈를 제하고 3촌 거리이며 뼈 아래로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2장을 뜯다.

1.6.5.7. 陰陵泉(合水) | 음릉천(합수)

在膝下內側, 輔骨下陷中. 針三分, 灸三壯. 對陽陵泉, 而稍高一寸許. 曲膝取之, 針五分, 灸七壯.

무릎 밑 안쪽 보골(輔骨) 아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양릉천(陽陵泉)과 대칭이면서도 1촌쯤 더 높다. 무릎을 굽히고 취혈하며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7장을 뜯다.

1.6.6. 午手少陰心經 | 오 수소음심경



少海 靈道 通里 神門

소해(少海) 영도(靈道) 통리(通里) 신문(神門)

1.6.6.1. 少海(水) | 소해(수)

在肘內節後, 去肘端五分. 曲肘取之. 針三分, 灸三壯.

팔꿈치 안쪽의 관절 뒤에 있으며 팔꿈치의 뾰족한 끝에서 5푼 떨어져 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 취혈한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6.2. 通里(金) | 통리(금)

在腕後一寸陷中. 針三分, 灸七壯.

손목에서 뒤로 1촌 떨어진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7장을 뜯다..

1.6.6.3. 神門(土) | 신문(토)

在掌後兌骨端陷中. 針三分, 灸七壯, 烤如小麥.

손바닥에서 뒤로 물러나와 솟은 뼈(兑骨) 끝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7장을 뜨며 뜸 심지는 밀알 크기로 한다.

1.6.6.4. 靈道 | 영도

在掌後寸半, 或一寸. 針三分, 灸三壯.

손바닥에서 뒤로 물러나와 1촌 5푼, 혹은 1촌에 있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6.5. 小冲(木) | 소총 49(목)

在少指內庶端, 去爪甲如韭葉. 針一分, 灸七壯.

새끼손가락 안쪽 끝으로서 손톱귀퉁이에서 부추잎 만큼 떨어져 있다. 침은 1 푼을 놓고, 뜸은 7장을 뜯다.

1.6.6.6. 神門 | 신문

一名兌冲, 在掌後脫骨端陷中. 針三分, 灸七壯, 烊如⁵⁰大.

태충(兌冲)이라고도 하며, 손바닥에서 뒤쪽으로 태골(脫骨) 끝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7장을 뜨며 뜸의 심지는 밀알 크기로 한다.

1.6.6.7. 少付(火) | 소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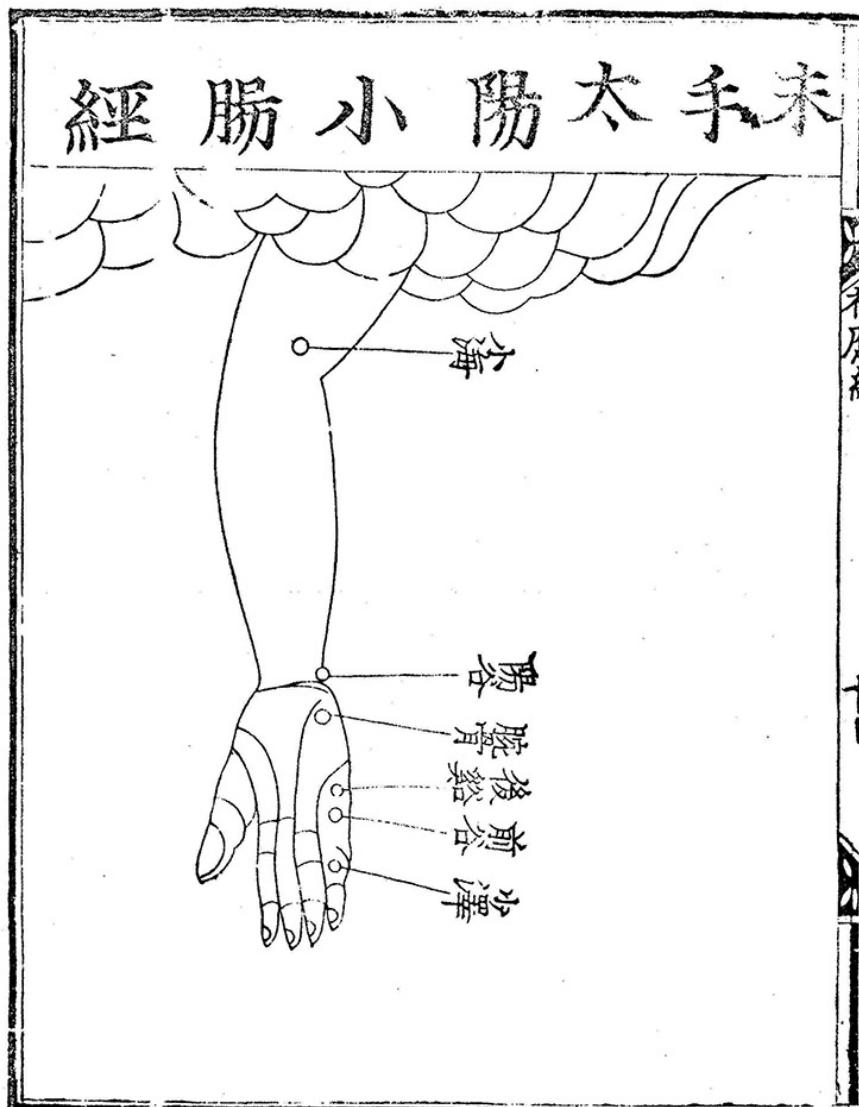
在勞宮傍一寸陷中.

노궁(勞宮) 옆으로 1촌 부위의 오목한 곳이다.

⁴⁹. 본문은 소해(少海), 통리(通里), 신문(神門), 영도(靈道)의 네 혈로 이루어져 있으나 일차 소장자가 원본의 여백에 본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소충(少沖), 신문(神門), 소부(少付)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고 신문(神門)은 원문과 중복이 되므로 다시 지우고자 한 흔적이 있다. ↪

⁵⁰. 小麥 : 원문에 누락된 것을 대교본과 중국판본에 근거하여 넣었다. ↪

1.6.7. 未手太陽小腸經 | 미 수태양소장경



小海 陽谷 腕骨 後谿 前谷 少澤

소해(小海) 양곡(陽谷) 완골(腕骨) 후계(後谿) 전곡(前谷) 소택(少澤)

1.6.7.1. 少澤(井金) | 소택(정금)

在手小指端, 去爪甲一分陷中. 針一分, 灸一壯.

새끼손가락 끝 손톱귀퉁이에서 1푼 떨어진 오목한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1장을 뜯다.

1.6.7.2. 前谷(榮水) | 전곡(형수)

在手小指外側, 本節前陷中. 針一分, 灸三壯.

새끼손가락 바깥쪽 본절(本節) 이전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7.3. 後谿(膾木) | 후계(수목)

在手小指外側, 本節後陷中. 針一分, 灸三壯.

새끼손가락 바깥쪽 본절(本節)을 지나 오목한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7.4. 腕骨(原) | 완골(원)

在手後側, 腕前起骨下陷中, 有岐骨罅縫. 針二分, 灸三壯.

손등의 측면에서 손목 앞쪽으로 솟은 뼈 아래의 오목한 곳이며 뼈가 갈라지는 부위의 틈이다. 침은 2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7.5. 陽谷(經火) | 양곡(경화)

在手外側腕中, 兌骨下陷中. 針一分, 灸三壯.

손목의 바깥쪽 측면에 솟은 태골(兌骨) 아래 오목한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7.6. 小海(合土) | 소해(합토)

在肘內大骨外, 去肘端五分陷中, 屈肘向頭取之. 針三分, 灸三壯.

팔꿈치 안쪽의 큰 뼈(大骨) 바깥쪽으로서, 팔꿈치 끝에서 5푼 떨어져 오목한 곳이며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 쪽으로 향하게 한 후 취혈한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8. 申足太陽膀胱經 | 신 족태양방광경



委中 承山 崑崙 金門 申脈

위중(委中) 승산(承山) 곤륜(崑崙) 금문(金門) 신맥(申脈)

1.6.8.1. 通谷(榮水) | 통곡⁵¹(형수)

在足小指本節前陷中.

새끼발가락 본절(本節) 이전의 오목한 곳이다.

1.6.8.2. 委中(合土) | 위중(합토)

在足膕中央, 兩筋間約紋中, 動脈應手. 針八分.

오금의 중앙으로 두 힘줄 사이의 가로금 위에 있으며 맥이 잡히는 곳이다. 침은 8푼을 놓는다.

1.6.8.3. 承山 | 승산

在腿肚尖下, 分肉間陷中. 針八分. 灸不及針, 止七七.

장딴지 근육이 뾰족하게 모이는 곳 아래에 살이 갈라지는 지점의 오목한 부위이다. 침은 8푼을 놓는다. 뜸은 침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며 49장을 넘기지 않는다.

1.6.8.4. 崑崙(經火) | 곤륜(경화)

在足外踝後五分, 跟骨陷中. 針三分, 灸三壯.

발의 바깥쪽 복사뼈에서 뒤로 5푼이며 발뒤꿈치뼈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 뜸은 3장.

1.6.8.5. 申脈 | 신맥

在外踝下陷中容爪甲. 白肉際前後有筋, 上有踝骨, 下有軟骨, 其穴居中. 針三分.

발의 바깥쪽 복사뼈 아래의 오목한 곳으로 손톱이 들어갈 만한 정도이다. 적백 육제(赤白肉際) 전후에 힘줄이 있는데 위로는 복사뼈, 아래로는 연골(軟骨)이 있고, 그 사이에 이 혈 자리가 있다. 침은 3푼을 놓는다.

1.6.8.6. 金門 | 금문

在外踝下少後, 丘墟後申脉前. 針一分, 灸三壯, 烤如小麥.

바깥쪽 복사뼈 아래에서 약간 뒤쪽이고 구허(丘墟) 뒤, 신맥(申脉) 앞에 있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뜨며, 뜸 심지는 밀알크기로 한다.

1.6.8.7. 束骨(膾木) | 속골 ⁵²(수목)

在足小指本節後陷中. 針三分, 灸三壯.

새끼발가락 본절(本節)을 지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8.8. 付陽 | 부양

在足外踝上三寸, 太陽前少陰後筋骨間. 針五分. ⁵³

발의 바깥쪽 복사뼈 위로 3촌이고 태양(太陽)의 앞, 소음(少陰)의 뒤에 있는 힘줄과 뼈 사이이다. 침은 5푼을 놓는다.

1.6.8.9. 承筋 | 승근

在腨腸中央陷中, 一名腨腸一■■■可■.

장딴지 중앙의 오목한 곳이며 서장(腨腸)이라고도 한다. ⁵⁴

1.6.8.10. 至陰(井金) | 지음(정금)

在足小指外側, 去爪甲如韭葉. 鈎■.

새끼발가락 바깥쪽에서 발톱귀퉁이로부터 부추잎 만큼 떨어진 곳이다. 침은.

55

1.6.8.11. 噙嘻 | 의희

在肩髀內廉, 俠脊第六頸下■傍■.

어깨(肩髀)의 안쪽 모서리로서 6추를 끼고 그 아래에서 옆으로. 56

51. 통곡(通谷) : 이 항목은 소장자가 덧붙인 것이다. ↵

52. 束骨이하 5개 혈은 소장자가 추가한 내용이다. ↵

53. 이하에도 더 내용이 있는 듯하나 종이 손상으로 알 수 없다. ↵

54. 이하에 소장자가 덧붙인 내용이 누락되었다. ↵

55. 이하에 소장자가 덧붙인 내용이 누락되었다. ↵

56. 이하에 소장자가 덧붙인 내용이 누락되었다. ↵

1.6.9.酉足少陰腎經 | 유 족소음신경



復溜 太谿 照海 然谷 湧泉

부류(復溜) 태계(太谿) 조해(照海) 연곡(然谷) 용천(湧泉)

1.6.9.1. 然谷(榮火) | 연곡(形火)

在內踝前起大骨下陷中. 針三分, 灸三壯, 不宜見血.

안쪽 복사뼈 앞쪽에 솟은 큰 뼈(大骨) 아래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뜨며 피를 내서는 안 된다.

1.6.9.2. 大谿(膾土) | 태계(수토)

在內踝後五分, 跟骨上有動脈. 針三分, 灸三壯.

안쪽 복사뼈에서 뒤로 5푼이며 뒷꿈치뼈 위의 맥이 뛰는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9.3. 照海 | 조해

在內踝下四分. 前後有筋, 上有踝骨, 下有軟骨, 其穴居中. 針三分, 灸七壯.

안쪽 복사뼈 아래로 4푼이다. 앞뒤로 힘줄이 있으며 위로는 복사뼈, 아래로는 연골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 혈이 있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7장을 뜯다.

1.6.9.4. 復溜(經金) | 부류(경금)

在內踝上, 除踝二寸, 跟後五分, 與大谿相直. 針三分, 灸三壯.

안쪽 복사뼈에서 복사뼈를 제하고 2촌 위이며, 복사뼈 뒤쪽으로 5푼이고 태계(大谿)와 일직선상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9.5. 湧泉(井木) | 용천(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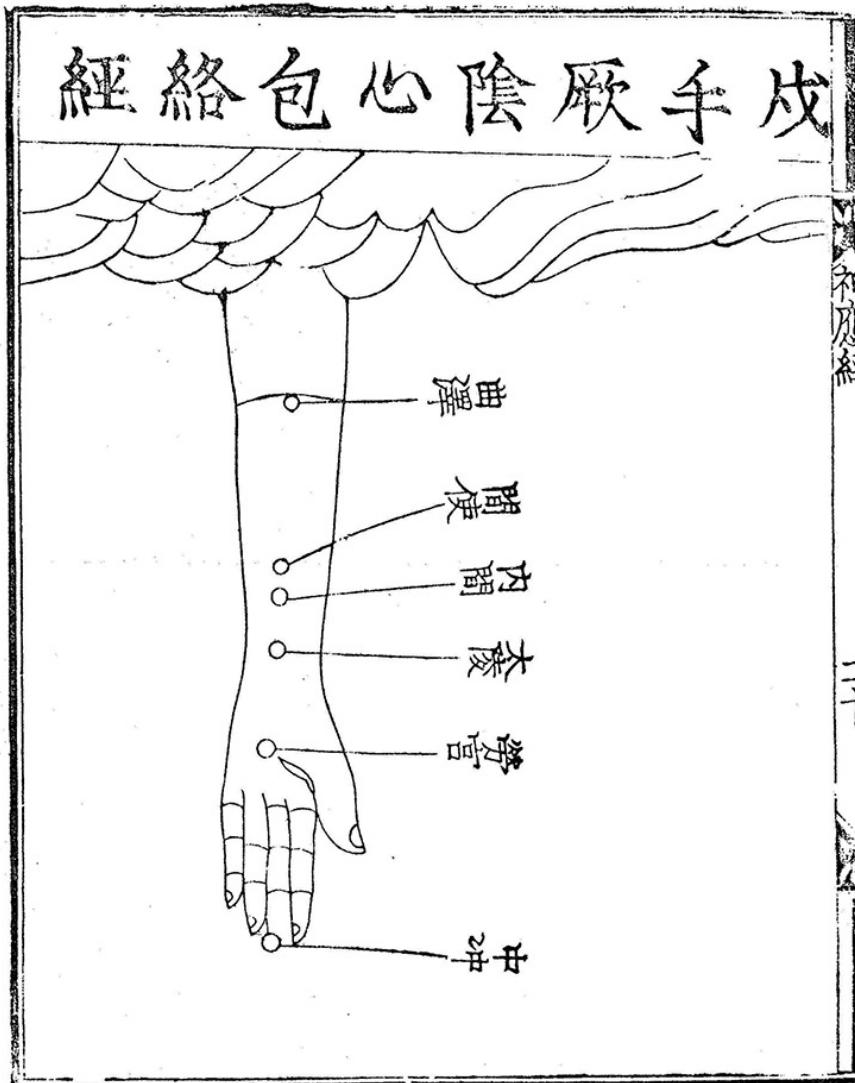
在足屈足卷指, 取之宛宛中, 白肉際.

발을 구부리고 발가락을 오그려 오목한 곳을 취혈하며, 흰 기육(肌肉) 사이에 있다.

1.6.9.6. 隱谷⁵⁷(合水) | 음곡(합수)

57. 음곡(陰谷) : 소장자가 추가한 항목이다. ↵

1.6.10. 戌手厥陰包絡經 | 술 수궐음포락경



曲澤 間使 內開 太陵 勞宮 中冲

곡택(曲澤) 간사(間使) 내관(內關) 대릉(大陵) 노궁(勞宮) 중충(中沖)

1.6.10.1. 曲澤(合水) | 곡택(합수)

在肘內廉陷中. 屈肘取之, 大筋內側橫紋中動脈. 針三分, 灸三壯.

팔꿈치 안쪽 모서리의 오목한 곳이다. 팔꿈치를 굽히고 취혈하며 큰 근육(大筋) 안쪽의 가로금에서 맥이 뛰는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0.2. 間使(經金) | 간사(경금)

在手掌後橫紋上三寸, 兩筋間陷中, 去腕後三寸. 針三分, 灸五壯.

손바닥을 지나 가로금 위로 3촌으로, 두 힘줄 사이의 오목한 곳이며 손목에서 3촌 떨어져 있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5장을 뜯다.

1.6.10.3. 內關 | 내관

在手掌後橫紋上二寸, 兩筋間. 針五分, 灸三壯.

손바닥을 지나 가로금 위로 2촌이며 두 힘줄 사이이다.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0.4. 中冲(井木) | 중충(정목)

在手中指端, 去爪甲如葷葉. 針一分, 灸一壯.

가운데손가락 끝의 손톱귀퉁이에서 부추잎 만큼 떨어진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1장을 뜯다.

1.6.10.5. 大陵(膾土) | 대릉(수토)

在掌後橫紋中，兩筋間陷中。針五分，灸五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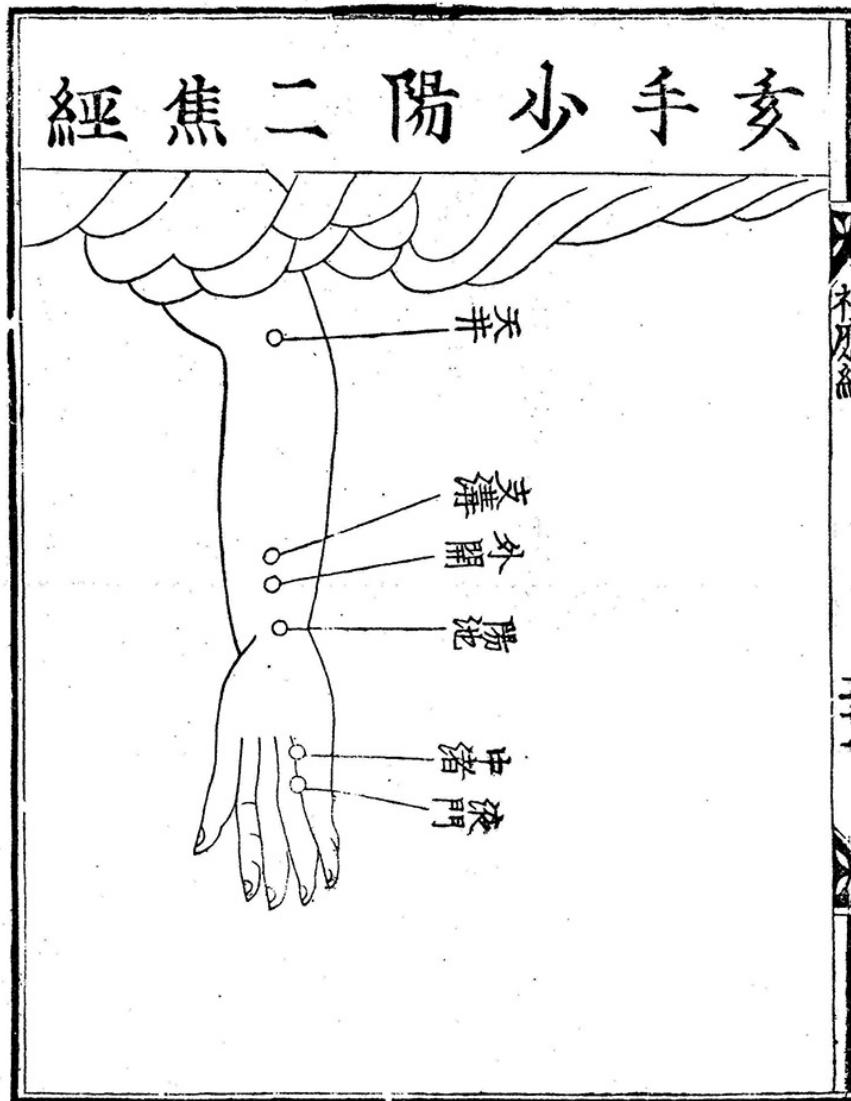
손바닥을 지나 가로금 위에 있으며 두 힘줄 사이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5장을 뜯다.

1.6.10.6. 勞宮(榮火) | 노궁(형화)

在掌心，屈指取之，在無名指尖盡處，是穴。

손바닥에 있고 손가락을 구부려 취혈하며 네 번째 손가락 끝이 닿는 곳이다.

1.6.11. 亥手少陽三焦經 | 해 수소양삼초경



天井 支溝 外開 陽池 中渚 液門

천정(天井) 지구(支溝) 외관(外關) 양지(陽池) 중저(中渚) 액문(液門)

1.6.11.1. 液門(榮水) | 액문(형수)

在手小指次指間, 屈拳取之. 針三分, 灸三壯.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 사이에 있으며 주먹을 쥐고 취혈한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1.2. 中渚(膾木) | 중저(수목)

在手小指次指, 本節後陷中. 針三分, 灸三壯.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 사이의 본절(本節)을 지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1.3. 陽池(原) | 양지(원)

在手表腕上同骨陷中. 針二分. 不宜多灸可三壯.

손등의 손목 위 동골(同骨)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2푼을 놓는다. 뜸은 많이 떠서는 안 되나 3장은 놓을 수 있다.

1.6.11.4. 外關 | 외관

在腕後二寸, 兩骨間陷中. 針三分, 灸五壯.

손목에서 2촌이며 두 뼈 사이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5장을 뜯다.

1.6.11.5. 支溝(經火) | 지구(경화)

在腕後三寸, 兩骨間陷中. 針二分, 灸二七壯.

손목에서 3촌이며 두 뼈 사이의 오목한 곳이다. 침은 2푼을 놓고, 뜸은 14장을 뜯다.

1.6.11.6. 天井(合土) | 천정(합토)

在肘外大骨後, 肘上一寸兩筋間陷中. 又手按膝頭取之, 屈肘取亦可. 針一寸, 灸三壯.

팔꿈치 바깥쪽의 대골(大骨)을 지나 팔꿈치 위 1촌의 두 힘줄 사이 오목한 곳이다. 손으로 무릎을 누른 상태로 취혈하기도 하며 팔꿈치를 구부려 취혈하기도 한다. 침은 1촌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1.7. 關衝(井金) | 관충⁵⁸(정금)

在小指次指外側, 去爪甲如葷葉. 針一分, 灸三壯.

넷째손가락 바깥쪽 손톱귀퉁이에서 부추임 만큼 떨어진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⁵⁸. 관충(關衝) : 이 항목은 소장자가 덧붙인 것이다. ↪

1.6.12. 子足少陽膽經 | 자 족소양담경



環跳 風市 陽陵 陽輔 懸鍾 丘墟 臨泣 俠谿

환도(環跳) 풍시(風市) 양릉(陽陵) 양보(陽輔) 현종(懸鍾) 구허(丘墟) 임읍(臨泣) 협계(俠谿)

1.6.12.1. 環跳 | 환도

在髀樞中, 卽硯子骨下宛宛中也. 側臥伸下足, 屈上足取. 針二寸, 灸五壯, 止五十壯.

고관절의 머리뼈(硯子骨) 아래로 움푹한 곳이다. 옆으로 누워서 아래에 놓인 다리는 평고 위에 놓인 다리는 굽힌 채 취혈한다. 침은 2촌을 놓으며, 뜸은 5장 을 뜨고 50장을 넘기지 않는다.

1.6.12.2. 風市 | 풍시

在膝上外側兩筋間, 直舒手着腿, 當中指盡頭陷中.

무릎 위에서 바깥쪽으로 두 힘줄 사이이며 팔을 곧게 늘어뜨려 넓적다리에 붙였을 때 중지 끝이 닿는 부위의 오목한 곳이다.

1.6.12.3. 陽陵(合土) | 양릉천(합토)

在膝下一寸外廉陷中, 膝下外尖骨前六分. 灸七壯.

무릎에서 1촌 아래 바깥 모서리의 오목한 곳이며, 외첨골(外尖骨) 앞 6푼이다. 뜸은 7장을 뜬다.

1.6.12.4. 陽輔(經火) | 양보(경화)

在外踝上除骨四寸. 輔骨前絕骨端, 如前三分, 去丘墟七寸. 針五分, 灸三壯.

바깥 복사뼈 위로 복사뼈를 제하고 4촌이다. 보골(輔骨) 앞의 절골(絶骨) 끝부분에서 앞으로 3푼이며, 구허(丘墟)에서 7촌 떨어져 있다.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2.5. 懸鍾 | 현종

一名絶骨. 雖曰外踝上除踝三寸, 必以絶隴處爲穴. 針六分, 灸五壯.

절골(絶骨)이라고도 한다. 바깥 복사뼈 위로 복사뼈를 제하고 3촌이라고는 하나, 반드시 뼈가 나뉜 틈을 혈위로 정한다. 침은 6푼을 놓고, 뜸은 5장을 뜯다.

1.6.12.6. 丘墟(原) | 구허(원)

在外踝如前陷中, 去臨泣三寸. 針五分, 灸三壯.

바깥 복사뼈 앞쪽의 오목한 곳이며 족임읍(足臨泣)에서 3촌 떨어져 있다. 침은 5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2.7. 臨泣(膍木) | 족임읍(수목)

在足小指次指, 本節後陷中, 去俠谿寸半. 針一分, 灸三壯.

넷째발가락 본절(本節)을 지나 오목한 곳이며 협계(俠谿)에서 1촌 5푼 떨어져 있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2.8. 俠谿(滎水) | 협계(형수)

在足小指次指岐骨間本節陷中. 針一分, 灸三壯.

넷째발가락과 다섯째발가락이 나뉘는 지점의 본절(本節)에 있는 오목한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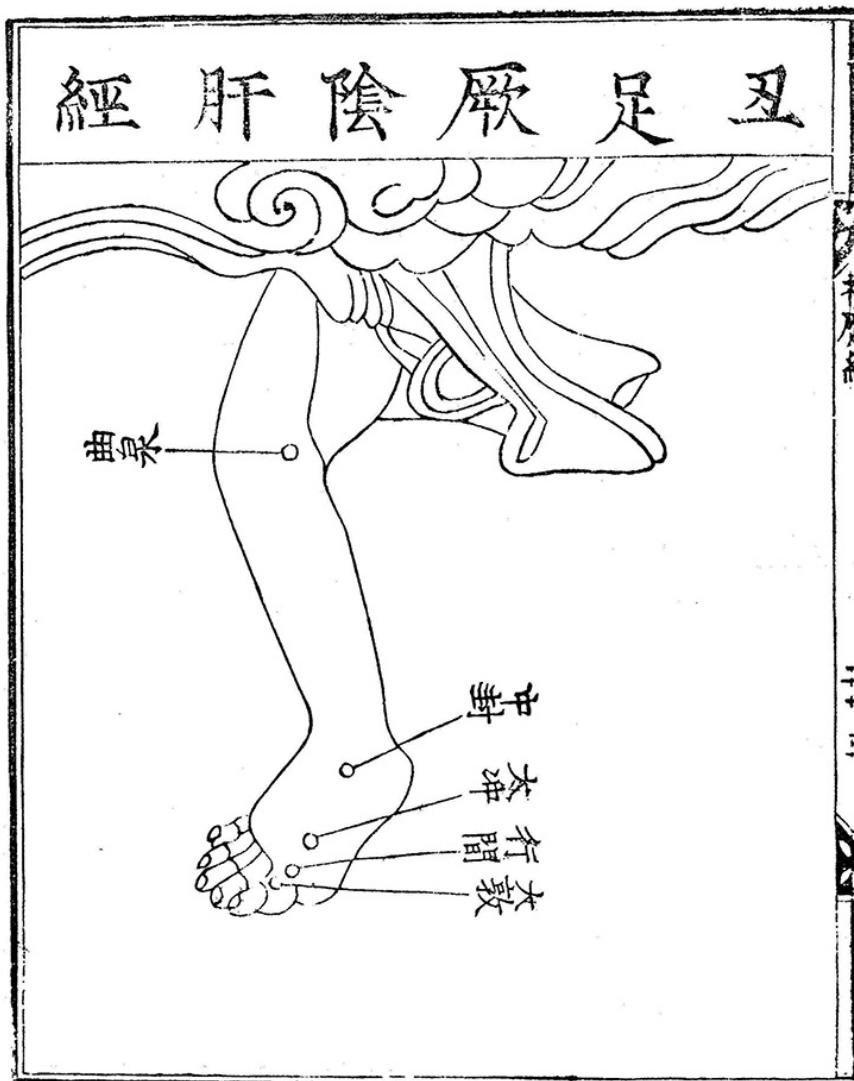
1.6.12.9. 足竅陰(金) | 족규음⁵⁹(금)

在小指次指外間, 去爪甲如葦葉. 鈎一分, 灸三壯.

넷째발가락 바깥쪽 발톱귀퉁이에서 부추잎 만큼 떨어진 곳이다. 침은 1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⁵⁹. **족규음(足竅陰)** : 소장자가 덧붙인 항목이다. ↵

1.6.13 丑足厥陰肝經 | 축 족궐음간경



曲泉 中封 太沖 行間 大敦

곡천(曲泉) 중봉(中封) 태충(太冲) 행간(行間) 대돈(大敦)

1.6.13.1. 大敦(井木) | 대돈(정목)

在足大指端, 去爪甲如一葦葉許. 針二分, 灸三壯.

엄지발가락 끝 발톱귀퉁이에서 부추임 만큼 떨어진 곳이다. 침은 2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3.2. 行間(榮火) | 행간(형화)

在是大指本節前. 上下有筋前後有小骨尖, 其穴正居陷中, 有動脈應手. 針六分, 灸三壯.

엄지발가락 본절(本節) 이전이며 위아래로는 힘줄이 있고 앞뒤로는 소골첨(小骨尖)이 있는데, 이 혈은 그 사이의 오목한 곳에 있으며 맥이 뛰는 것이 만져진다. 침은 6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3.3. 太冲(膾土) | 태충(수토)

在大指後內間, 有絡亘連. 橫至地五會二寸, 骨縫罅間, 動脈應手陷中. 針三分, 灸五壯.

엄지발가락을 지나 안쪽의 사이에 혈관이 항상 이어지는 곳이다. 지오회(地五會)에서 가로로 2촌 떨어져 있고 뼈가 만나는 곳의 틈이며, 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오목한 곳이다. 침은 3푼을 놓고, 뜸은 5장을 뜯다.

1.6.13.4. 中封(經金) | 중봉(경금)

在內踝前一寸. 貼大筋後仰足, 伸足取而得之. 針四分, 灸三壯.

안쪽 복사뼈 앞쪽으로 1촌에 있다. 대근(大筋)을 불인 후 발등을 위로 한 채 발을 펴고 취혈한다. 침은 4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1.6.13.5. 膝闕 | 슬관⁶⁰

在犢鼻下二寸陷中.

독비(犢鼻) 아래로 2촌 내려가 오목한 곳이다.

1.6.13.6. 曲泉(合水) | 곡천(합수)

在膝內輔骨下, 大筋上小筋下陷中. 屈膝取之, 當膝曲臥橫紋頭, 內外兩筋間宛宛中.
針六分, 灸三壯.

무릎 안쪽 보골(輔骨) 아래로서 대근(大筋) 위, 소근(小筋) 아래에 있는 오목한 곳이다. 무릎을 구부리고 취혈하며, 오금에서 가로금이 끝나는 지점에서 안팎의 힘줄 사이에 있는 오목한 곳이다. 침은 6푼을 놓고, 뜸은 3장을 뜯다.

60. 슬관(膝闕) : 소장자가 덧붙인 항목이다. ↪

1.7. 灸四花穴法 (白圈是灸處, 黑點不是灸處.) | 사화혈에 뜸뜨는 법 (흰 동그라미
가 뜸뜨는 부위이고, 검게 점찍은 곳은 뜸뜨는 부위가 아니다.)



1.7.1. 第一次二穴 | 제1차 2혈

先令患人, 平身正立. 取一細繩, 用蠟, 蠟之勿令展縮. 以繩頭, 於男左女右脚, 大拇指端, 比齊順腳底下, 蹤定引繩, 至脚根, 直上脚肚, 至曲臍中大橫紋, 截斷. 令患者解髮, 分兩邊, 要見頭縫, 自顙門平分, 至腦後. 乃平身正坐, 將先比繩子一頭於鼻端上, 按定引繩, 向上循頭縫, 至腦後, 貼肉垂下, 當脊骨正中, 繩頭盡處, 以墨點記之.

먼저 환자는 몸을 펴고 똑바로 서도록 한다. 가는 끈에 밀납을 먹이는데, 밀납을 먹이는 것은 늘어지거나 오그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끈의 한쪽 끝을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다리의 엄지발가락 끝과 가지런하게 놓고 발밑을 따라 끈을 밟고 선 후 끈을 당겨 뒤큔치에 도달하면 종아리 위로 곧게 올려서 오금의 가로금에 이르는 곳에서 끈을 자른다. 환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양쪽으로 가르마를 타는데 정수리를 확인한 후 신문(顙門)의 평평한 곳에서부터 뇌후(腦後)까지를 가른다. 이제 몸을 펴고 똑바로 앉게 한 후 앞서 잔 끈 한 쪽을 코끝에 대고 눌러 고정시키고 머리 위 정수리를 돌아 뇌후(腦後)에 이르게 하여 살에 끈을 밀착시킨 상태로 아래로 드리워 척추정중선에서 끈이 끝나는 지점에 먹으로 점을 찍어 표시한다.

婦人纏足者, 不遂生成, 自然之理, 若以足量, 必不及也. 當於右肩髃穴點定, 以繩頭按其穴上, 伸手引繩向下, 至中指盡處截斷, 是穴男子亦可.

전족(纏足)을 한 부인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발을 가지고 재면 반드시 길이가 못 미치게 된다. 반드시 오른쪽 견우혈(肩髃穴)에 점을 찍어 정하고 끈의 한쪽을 그 혈 자리에 고정한 후 팔을 펴고 끈을 당겨 아래로 늘어뜨리게 하여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끈을 잘라야 하는데, 이 혈은 남자도 역시 쓸 수 있다.

却令患者合口, 以短蠟繩一頭, 自口左角按定鉤起繩子, 向上至鼻根, 斜下至口右角, 作△此樣, 就齊口角, 截斷. 將此繩展令直摺取中, 以墨點記之. 將於先, 脊骨墨點處, 以繩子上中心墨點, 正壓脊骨墨點上, ⁶¹頭取平⁶², 勿令高下, 於繩子兩頭, 以墨圈

記之, 此是二穴也.

한편, 환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밀납 먹인 짧은 끈의 한쪽 끝을 왼쪽 입가에 눌러 고정시고 끈을 위로 끌어올려 콧날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게, 하고 비스듬히 내려 오른쪽 입가에 이르게 하여 ∧와 같은 모양을 만든 후 입가에서 끈을 자른다. 이제 이 끈을 펴서 반으로 접고 그 중간에 먹으로 점을 찍어 표시한다. 앞에서 척추에 먹으로 점을 찍은 부위를 지금 찍은 노끈 중앙의 먹점으로 누르고, 끈의 양쪽 끝을 수평이 되게 하여 높낮이 차이가 없게 한 후 끈의 양쪽 끝이 닿는 곳에 먹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이것이 바로 그 두 혈이다.

已上是第一次, 點二穴.

이상이 1차로 찍은 두 혈이다.

1.7.2. 次二穴 | 제2차

令患人, 平身正坐, 稍縮臂膊. 取一蠟繩, 繞項自大椎骨上挂住, 向前双垂, 與鳩尾尖齊(鳩尾是心蔽骨. 人無心蔽骨者, 從胸前岐骨下, 量取一寸, 卽是鳩尾也) 卽双截斷, 就轉繩頭向項後, 將繩當喉嚨結骨上按住, 以其繩夾項双垂, 循脊骨上正中繩頭盡處, 以墨點記之.

환자에게 몸을 펴고 바로 앉게 하는데 어깻죽지를 약간 움츠리게 한다. 밀납을 바른 끈을 목덜미에 감는데, 대추골(大椎骨)을 지나게 하여 앞으로 양쪽 끝을 드리우며, 구미(鳩尾)의 끝과 나란한 곳에서(구미(鳩尾)는 심폐골(心蔽骨)이다. 심폐골이 없는 사람은 가슴 앞 기골(岐骨) 아래로 1촌 되는 곳을 취하면 이 곳이 구미(鳩尾)이다) 양쪽을 자른 후 끈 머리를 뒷목 쪽으로 돌리는데, 끈은 목을 대 뼈 위에 고정시킨 채로 뒷목을 끼고 양끝을 드리우며,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중앙선에서 끈이 끝나는 곳에 먹으로 점을 찍어 표시한다.

却令患人合口, 以短臘繩於口上, 橫量如一字樣齊, 兩吻截斷. 如前中摺於脊骨上墨點處, 橫量如前法, 繩子兩頭盡處, 以墨圈記之. 此是四花穴橫二穴也.

그런 다음 환자에게 입을 다물게 하고 짧은 밀납 끈을 입에 대고 일자로 가로 길이를 재서 자른다. 앞에서처럼 등골의 먹점 찍은 곳에 절반되는 지점을 댄 후 앞에서처럼 가로로 길이를 재는데 끈의 양쪽 끝머리가 닿는 곳에 먹으로 동 그라미 표시를 한다. 이것이 사화혈(四花穴)의 가로 두 혈이다.

已上是第二次點穴, 通前共四穴同時灸, 各七壯至二七壯, 至百日⁶³壯, 或一百五十壯爲妙. 候火瘡發時, 方依後法, 灸二穴.

이상이 2차로 찍은 혈이며 앞의 혈과 합하여 4개의 혈에 동시에 뜸을 뜨는데, 각 7장을 뜨고 하루 100을 뜨며, 150장을 떠도 좋다. 뜸 뜯 부위가 혈 어 상처가 생기면 뒤에 기록한 방법대로 두 혈에 뜸을 뜬다.

1.7.3. 又次二穴 | 다음의 두 혈

以第二次量口吻短繩子, 於第二次雙繩頭盡處, 脊骨上墨點處, 以短繩中墨點, 壓脊骨上墨點, 上下直放, 務要中正, 相停於上下, 繩頭盡處以墨圈記之. 此是四花穴上下二穴也.

2차에서 입의 길이를 잰 짧은 끈을 2차에서 양끝 점을 기록한 척추 위의 먹점 부위에 짧은 끈의 중간에 찍은 먹점을 겹치게 누르고, 위아래로 끈을 펴서 중 양선에 오게하여 위아래로 고정시키고, 끈의 머리가 닿는 양 끝점에 먹으로 동 그라미를 표시한다. 이것이 바로 사화혈(四花穴)의 상하 두 혈이다.

已上是第三次點穴, 謂之四花穴, 灸兩穴各百壯, 三次共六穴. 取火日灸之, 唯用三月三日艾最佳. 百日內慎飲食房室, 安心靜處將息. 若一月後, 仍覺未差, 復於初穴上再灸.

이상이 3차 점혈(點穴)로서 이를 사화혈(四花穴)이라 하고 두 혈에 각 100장씩 뜸을 뜨는데 3차까지 모두 여섯 혈이다. 화일(火日)을 택하여 뜸을 뜨며 3월 3일에 채취한 쑥이 가장 좋다. 뜸을 뜯 후 100일 안에는 음식과 범방(犯房)을 삼

가야 하며, 마음을 편히 하고 거처를 고요히 하면서 조리해야 한다. 만약 한 달 뒤에도 차도를 느끼지 못한다면 처음의 혈 자리에 다시 뜸을 뜨도록 한다.

61. **兩** : 《초간본》 원문에는 지워져 있다. 두 대교본을 참고하여 넣었다. ↪

62. **平** : 《초간본》 원문에는 희미해진 글자 위에 “平”자를 가필하였다. 《인조간본》에도 “平”으로 되어 있으나 《정보간본》에는 “手”로 되어 있다. ↪

63. **百日** : 《인조간본》에는 “百餘”로 되어 있고 《정보간본》에는 “百升”, 즉 120장을 뜯다고 되어 있다. ↪

1.8. 諸風部 | 제풍부

1.8.1. 偏風半身不遂 | 한쪽으로 풍이 와서 반신을 못 쓰는 것

肩髃、曲池、列缺、合谷、手三里、環跳、風市、三里、委中、絕骨、丘墟、陽陵泉、崑崙、照海.

견우(肩髃)、곡지(曲池)、열결(列缺)、합곡(合谷)、수삼리(手三里)、환도(環跳)、풍시(風市)、족삼리(足三里)、위중(委中)、절골(絕骨)、구허(丘墟)、양릉천(陽陵泉)、곤륜(崑崙)、조해(照海).

1.8.2. 足無膏澤 | 발에 윤기가 없는 것

上廉.

상렴(上廉).

1.8.3. 左癱右瘓 | 좌측이나 우측으로 풍이 와서 팔다리를 못 쓰는 것

曲池、陽谿、合谷、中渚、三里、陽輔、崑崙.

곡지(曲池)、양계(陽谿)、합곡(合谷)、중저(中渚)、족삼리(足三里)、양보(陽輔)、곤륜(崑崙).

1.8.4. 肘不能屈 | 팔꿈치를 굽히지 못하는 것

腕骨.

완골(腕骨).

1.8.5. 偏腫 | 한 쪽으로 붓는 것

列缺、冲陽.

열결(列缺)、충양(冲陽).

1.8.6. 身體反折 | 몸이 뒤로 휘는 것

肝俞.

간수(肝俞).

1.8.7. 中風肘牽 | 중풍으로 팔꿈치가 떨리는 것

內關.

내관(內關).

1.8.8. 目戴上 | 눈이 뒤집히는 것

絲竹空.

사죽공(絲竹空).

1.8.9. 吐涎 | 묽은 침을 토하는 것

絲竹空、百會.

사죽공(絲竹空)、백회(百會).

1.8.10. 不識人 |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水溝、臨泣、合谷.

수구(水溝)、두임읍(頭臨泣)⁶⁴、합곡(合谷).

1.8.11. 脊反折 | 척추가 뒤로 휘면서 꺾이는 것

啞門、風府.

아문(啞門)、풍부(風府).

1.8.12. 風痺 | 풍으로 인해 저린 것

天井、尺澤、少海、委中、陽輔.

천정(天井)、척택(尺澤)、소해(少海)、위중(委中)、양보(陽輔).

1.8.13. 驚癇 | 경기나 간질

尺澤(一壯)、少冲、前頂、束骨.

척택(尺澤)(뜸 1장)、소충(少冲)、전정(前頂)、속골(束骨).

1.8.14. 風癇 | 풍으로 인한 간질

神庭、百會、前頂、湧泉、絲竹空、神闕(一壯)、鳩尾(三壯).

신정(神庭)、백회(百會)、전정(前頂)、용천(湧泉)、사죽공(絲竹空)、신궐(神闕)(뜸 1장)、구미(鳩尾)(뜸 3장).

1.8.15. 風勞 | 풍으로 기운이 소모된 것

曲泉、膀胱俞(七壯. 在).

곡천(曲泉)、방광수(膀胱俞)(뜸 7장. ■에 있다.■⁶⁵)

1.8.16. 風疰 | 풍주(風疰)⁶⁶

百會(三壯)、肝俞(三壯)、脾俞(三壯)、腎俞(年爲壯)、膀胱俞.

백회(百會)(뜸 3장)、간수(肝俞)(뜸 3장)、비수(脾俞)(뜸 3장)、신수(腎俞)
(나이 수만큼)、방광수(膀胱俞).

1.8.17. 風眩 | 풍으로 인한 어지럼증

臨泣、陽谷、腕骨、申脉.

두임읍(頭臨泣)、양곡(陽谷)、완골(腕骨)、신맥(申脉).

1.8.18. 中風 | 중풍

臨泣、百會、肩井、肩髃、曲池、天井、間使、內關、合谷、風市、三里、解谿
、崑崙、照海.

두임읍(頭臨泣)、백회(百會)、견정(肩井)、견우(肩髃)、곡지(曲池)、⁶⁷
간사(間使)、내관(內關)、합곡(合谷)、풍시(風市)、족삼리(足三里)、해계
(解谿)、곤륜(崑崙) ⁶⁸、조해(照海).

1.8.19. 口眼喎 | 눈과 입이 돌아간 것

列缺、大淵、二間、申脉、內庭、行間、通谷、地倉、水溝、頰車、合谷.

열결(列缺)、태연(大淵)、이간(二間)、신맥(申脉)、내정(內庭)、행간(行間)
、통곡(通谷)、지창(地倉)、수구(水溝)、협거(頰車)、합곡(合谷)

1.8.20. 瘡瘍 |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支溝、間使、合谷、魚際、靈道、陰谷、復溜、然谷、通谷.

지구(支溝)、간사(間使)、합곡(合谷)、어제(魚際)、영도(靈道)、음곡(陰谷)
、부류(復溜)、연곡(然谷)、통곡(通谷).

1.8.21. 口禁不開 | 입을 굳게 다문 채 벌리지 못하는 것

頰車、承醬、合谷.

협거(頰車)、승장(承醬)、합곡(合谷).

1.8.22. 凡患風癇疾發則僵仆在地 | 무릇 풍으로 인한 간질이 일어나서 바닥에 쓰러 질 때

灸風池, 百會.

풍지(風池)와 백회(百會)에 뜸을 뜯다.

黃帝問岐伯曰, 凡人中風半身不遂, 如何灸之, 答曰, 人未中風時, 兩月前或三五箇月前, 非時足脛上忽發痠疼頑痺, 良久方解, 此將中風之候也. 便須急灸三里與絕骨穴四處各三壯, 後用薄荷及桃柳葉煎湯, 淋洗灸瘡, 令驅逐風氣於瘡口中出也. 灸瘡若春好秋更灸, 秋好春更灸, 常令二足上有灸瘡爲妙. 凡人不信此法, 或飲食不絕, 酒色過度, 忽中此風, 言語蹇澁, 半身不遂, 宜於七處, 各灸三壯. 如風在左灸右, 在右灸左.

황제(黃帝)가 기백(岐伯)에게 묻기를, “대개 사람이 중풍으로 반신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뜸을 떠야 하는가” 하니 이에 답하기를, “중풍이 아직 오기 2달 전이나 3-5달 전에 느닷없이 정강이가 시큰하게 아프거나 감각이 둔해지면서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다가 한참 뒤에 풀린다면 이는 장차 중풍이 오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즉시 양쪽 족삼리(足三里)와 절골(絕骨)의 4혈에 3장씩 뜸을 뜯 후, 박하(薄荷)나 도류엽(桃柳葉)을 달여서 뜸 상처를 씻어줌으로써 뜸 상처를 통

해 풍 기운을 빠져나오게 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뜸 상처가 만일 봄에 괜찮았으면 가을에 다시 뜸을 뜨고, 가을에 괜찮았으면 봄에 다시 뜸을 떠서 항상 두 다리에 뜸 상처가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방법을 믿지 않은 채 음식을 절제 없이 먹기도 하고 술과 여색이 지나치기도 하여 갑자기 풍에 맞으면 말이 어눌해지고 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니, 마땅히 일곱 군데 혈 자리에 각각 3장씩 뜸을 뜨되 풍이 좌측에 있으면 우측에 뜸을 뜨고 우측에 있으면 좌측에 뜸을 뜹니다.”라고 하였다.

一百會, 二耳前髮際, 三肩井, 四風市, 五三里, 六絕骨, 七曲池.

1. 백회(百會)
2. 귀 앞의 발제(髮際)
3. 견정(肩井)
4. 풍시(風市)
5. 족삼리(足三里)
6. 절골(絕骨)
7. 곡지(曲池)

右七穴神效極多, 依法灸之, 萬無一失也.

이상의 일곱 혈은 효과가 매우 좋으니 법에 맞추어 뜸을 뜯다면 잘못됨이 없을 것이다.

1.8.23. 黃帝灸法 | 황제구법(黃帝灸法)

療中風眼戴上, 及不能語者.

중풍으로 눈이 뒤집히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낫게 한다.

灸第二椎并五椎上, 各七壯同灸, 炙如半棗核大⁶⁹.

2추(椎) 및 5추(椎) 위에 각 7장 씩 동시에 뜸을 뜨되, 뜸 심지는 대추씨 절반 만하게 한다.

⁶⁴. 두임읍(頭臨泣) : 원문에 족임읍(足臨泣)과 두임읍(頭臨泣)을 구별해 놓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임읍(臨泣)”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항목 역시 원문

에는 “임읍(臨泣)”이라 되어 있으나 족임읍(足臨泣)과 두임읍(頭臨泣)의 혈성
을 각각 고려하여 번역문에서는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

65. ■ : 혈위를 설명하는 듯하나 이하의 내용은 종이 손상으로 식별이 불가능
하다. 소장자가 덧붙인 내용이다. ←

66. 풍주(風疰) : 주(疰)는 머무른다는 뜻이다. 사람이 죽어서 3년이 지나면 혼
신(魂神)이 풍진(風塵)이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 붙으면 병이 되는데, 풍주(風
疰), 한주(寒疰), 기주(氣疰), 생주(生疰), 양주(涼疰), 주주(酒疰), 식주(食疰),
수주(水疰), 시주(尸疰) 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

67. 천정(天井) : 원문에는 없으나 종이 손상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대교
본과 중국판본을 참조하여 넣었다. ←

68. 족삼리(足三里)、해계(解谿)、곤륜(崑崙) : 원문에는 없으나 종이 손상으
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대교본과 중국판본을 참조하여 넣었다. ←

69. 大 : 원문에는 종이 손상으로 누락되어 있다. 두 대교본을 참조하여 넣었
다. ←

1.9. 傷寒部 | 상한부

1.9.1. 身熱頭疼 | 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픈 것

攢竹、大陵、神門、合谷、魚際、中渚、液門、少澤、委中、太白.

찬죽(攢竹)、대릉(大陵)、신문(神門)、합곡(合谷)、어제(魚際)、중저(中渚)
、액문(液門)、소택(少澤)、위중(委中)、태백(太白).

1.9.2. 洒⁷⁰淅惡寒, 寒慄鼓頷 | 오싹하게 오한이 들고 이를 부딪치며 덜덜 떠는 것

魚際.

어제(魚際).

1.9.3. 身熱 | 몸에 열이 나는 것

陷谷、呂細(足寒至膝, 乃出針. 內踝骨尖上三■)、三里、復溜、俠谿、公孫、太
白、委中、湧泉.

음곡(陷谷)、여세(呂細)(발에서 무릎까지 차가워지면 침을 뺀다. **안쪽 복사뼈
의 솟은 뼈 위로 3■⁷¹**)、족삼리(足三里)、부류(復溜)、협계(俠谿)、공손(公
손)、태백(太白)、위중(委中)、용천(湧泉).

1.9.4. 寒熱 |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

風池、少海、魚際、少冲、合谷、復溜、臨泣、太白.

풍지(風池)、소해(少海)、어제(魚際)、소충(少冲)、합곡(合谷)、부류(復溜)
、족임읍(足臨泣)、태백(太白).

1.9.5. 傷寒汗不出 | 상한에서 땀이 나지 않는 것

風池、魚際、終渠(各瀉), 二間.

| 풍지(風池)、어제(魚際)、경거(終渠)(각각 사(瀉)한다), 이간(二間).

1.9.6. 過經不解 | 과경불해(過經不解)⁷²

期門.

| 기문(期門).

1.9.7. 餘熱不盡 | 열이 깨끗이 내리지 않는 것

曲池、三里、合谷.

| 곡지(曲池)、족삼리(足三里)⁷³、합곡(合谷).

1.9.8. 腹脹 | 배가 팽팽히 불러오는 것

三里、內庭.

| 족삼리(足三里)、내정(內庭).

1.9.9. 陰證傷寒 | 상한의 음증

灸神闕(三百壯).

| 신궐(神闕)에 뜸을 뜯다(300장⁷⁴).

1.9.10. 大熱 | 열이 심한 것

曲池、三里、復溜.

곡지(曲池)、족삼리(足三里)、부류(復溜).

1.9.11. 嘔噦 | 구역과 땀꾹질

百會、曲澤、間使、勞宮、商丘.

백회(百會)、곡택(曲澤)、간사(間使)、노궁(勞宮)、상구(商丘).

1.9.12. 腹寒熱氣 | 배에 춥고 더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

少冲、陰陵、商丘、太沖、三陰交、行間、隱白.

소충(少冲)、음릉천(陰陵泉)、상구(商丘)、태충(太沖)、삼음교(三陰交)、행
간(行間)、은백(隱白).

1.9.13. 發狂 | 발광

百勞、間使、合谷、復溜.

백로(百勞)、간사(間使)、합곡(合谷)、부류(復溜).

1.9.14. 不省人事 | 인사불성

中渚、三里、大敦.

중저(中渚)、족삼리(足三里)、대돈(大敦).

1.9.15. 秘塞 | 대변이 막히는 것

照海、章門.

조해(照海)、장문(章門).

1.9.16. 小便不通 |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

陰谷、陰陵.

음곡(陰谷)、음릉천(陰陵泉).

70. 洒 : 《초간본》 원문에는 “泗”로 되어 있으나 글자 형태 상 윗부분의 획이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두 대교본에도 모두 “洒”로 나오므로 고쳐 넣었다. ↵

71. 안쪽복사뼈의솟은뼈위로3■ : 소장자가 추가한 내용이다. ↵

72. 과경불해(過經不解) : 상한병(傷寒病)은 6일이 지나면 태양경에서 궤음경 까지 6경의 전변이 한번 끝나므로 7일째는 풀려야 하는데 이것이 풀리지 않고 다시 전경해서 13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 것을 말한다. ↵

73. 족삼리(足三里) : 원문에는 “三”자의 윗 획이 지워져 “二里”로 표기되어 있다. 두 대교본에도 “三里”로 나오므로 고쳐 넣었다. ↵

74. 삼백장(三百壯) : 두 대교본에는 “二三百壯”으로 나온다. ↵

1.10. 痰喘咳嗽部 | 담천해수부

1.10.1. 咳嗽 | 기침

列缺、經渠、尺澤、魚際、少澤、三里、解谿、崑崙、肺俞(百壯)、壹中(七壯).

열결(列缺)、경거(經渠)、척택(尺澤)、어제(魚際)、소택(少澤)、**족삼리(足三里)**⁷⁵、해계(解谿)、곤륜(崑崙)、폐수(肺俞)(100장)、단중(壹中)(7장).

1.10.2. 咳嗽飲水 | 기침을 하면서 물을 찾는 것

太淵.

태연(太淵).

1.10.3. 引兩脇痛 | 양 옆구리가 당기고 아픈 것

肝俞.

간수(肝俞).

1.10.4. 引尻痛 | 꼬리뼈가 당기고 아픈 것

魚際.

어제(魚際).

1.10.5. 咳血 |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 것

列缺、三里、肺俞、百勞、乳根、風門、肝俞.

열결(列缺)、족삼리(足三里)、폐수(肺俞)、백로(百勞)、유근(乳根)、풍문(風門)、간수(肝俞).

1.10.6. 唾血內損 | 침에 피가 섞이고 장부(臟腑)가 상한 것

魚際(瀉)、尺澤(補)、間使、神門、太淵、勞宮、曲泉、太淵、太谿、然谷、太冲、肺俞(百壯)、肝俞(三壯)、脾俞(三壯).

어제(魚際)(사(瀉))、척택(尺澤)(보(補))、간사(間使)、신문(神門)、태연(太淵)、노궁(勞宮)、곡천(曲泉)、태연(太淵)⁷⁶、태계(太谿)、연곡(然谷)、태충(太冲)、폐수(肺俞)(100장)、간수(肝俞)(3장)、비수(脾俞)(3장).

1.10.7. 咳血振寒 | 침에 피가 섞이면서 추위 떠는 것

大谿、三里、列缺、大淵.

태계(太谿)、족삼리(足三里)、열결(列缺)、태연(太淵).

1.10.8. 嘔血 | 피를 게우는 것

曲澤、神門、魚際.

곡택(曲澤)、신문(神門)、어제(魚際).

1.10.9. 咳膿 | 침에 놓이 섞인 것

壐中.

단증(壐中).

1.10.10. 咳濁 | 침이 탁한 것

尺澤、間使、列缺、少商.

척택(尺澤)、간사(間使)、열결(列缺)、소상(少商).

1.10.11. 嘔吐 | 구토

曲澤、通里、勞宮、陽陵、太谿、照海、太沖、大都、隱白、通谷、胃俞、肝俞.

곡택(曲澤)、통리(通里)、노궁(勞宮)、양릉천(陽陵泉)、태계(太谿)、조해
(照海)、태충(太冲)、대도(大都)、은백(隱白)、통곡(通谷)、위수(胃俞)、간
수(肝俞).

1.10.12. 嘔食不化 | 음식을 게우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

太白⁷⁷.

태백(太白).

1.10.13. 嘔逆 | 구역질

大陵.

대릉(大陵).

1.10.14. 嘔嚥 | 구역과 땀꾹질

太淵.

태연(太淵).

1.10.15. 喘嘔欠伸 | 숨이 차고 구역질을 하며 하품을 하는 것

經渠.

경거(經渠).

1.10.16. 上喘 | 위로 숨이 치받는 것

曲澤、大陵、神門、魚際、三間、商陽、解谿、崑崙、臺中、肺俞.

곡택(曲澤)、대릉(大陵)、신문(神門)、어제(魚際)、삼간(三間)、상양(商陽)
、해계(解谿)、곤륜(崑崙)、단중(臺中)、폐수(肺俞).

1.10.17. 數欠而喘 | 자주 하품하면서 숨이 찬 것

太淵.

태연(太淵).

1.10.18. 咳喘隔食 | 기침하고 숨차면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

膈俞.

격수(膈俞).

1.10.19. 喘滿 | 숨차고 그득한 것

三間、商陽.

삼간(三間)、상양(商陽).

1.10.20. 肺脹膨膨, 氣搶脇下, 热滿痛 | 폐가 팽팽히 불러와 기운이 옆구리 아래를 눌러 열이 나면서 그득하고 아픈 것.

陰都(灸)、太淵、肺俞.

음도(陰都)(肺)、태연(太淵)、폐수(肺俞).

1.10.21. 喘息不能行 | 숨이 차서 다니지 못하는 것

中脘、期門、上廉.

중완(中脘)、기문(期門)、상렴(上廉).

1.10.22. 諸虛百損, 五勞七傷, 失精勞証 | 제반 허약과 백가지 손상, 오로와 칠상, 실정과 노증

肩井、大椎、膏肓、脾俞、胃俞、肺俞、下脘、三里.

견정(肩井)、대추(大椎)、고황(膏肓)、비수(脾俞)、위수(胃俞)、폐수(肺俞)
、하완(下脘)、족삼리(足三里)

1.10.23. 傳尸骨蒸肺痿 | 전시⁷⁸, 골증⁷⁹, 폐위⁸⁰.

膏肓、肺俞、四花穴.

고황(膏肓)、폐수(肺俞)、사화혈(四花穴).

1.10.24. 乾嘔 | 헛구역질

間使(三壯)、膽俞、通谷、隱白. 灸乳下一寸半.

간사(間使)(3장⁸¹)、담수(膽俞)、통곡(通谷)、은백(隱白). 유두 아래 1촌 5푼
되는 곳에 뜸을 뜯다.

1.10.25. 噎氣 | 트림

神門、大淵、少商、勞宮、太谿、陷谷、太白、大敦.

신문(神門)、태연(大淵)、소상(少商)、노궁(勞宮)、태계(太谿)、함곡(陷谷)
、태백(太白)、대돈(大敦).

1.10.26. 痰涎 | 가래침

陰谷、然谷、復溜.

음곡(陰谷)、연곡(然谷)、부류(復溜).

1.10.27. 結積留飲 | 결적(結積)과 유음(留飲)⁸²

膈俞(五壯), 通谷(灸).

격수(膈俞)(5장), 통곡(通谷)(灸).

75. 족삼리(足三里) : 《인조간본》과 《정보간본》에는 소택(少澤)과 족삼리(足三里) 사이에 전곡(前谷)이 추가되어 있다. ↪

76. 태연(太淵) : 《초간본》과 《정보간본》에는 “태연(太淵)”이 중복되어 들어가 있다. 《인조간본》에는 두 번째 들어간 “태연(太淵)” 자리에 “대릉(大陵)”이 들어갔다. ↪

77. 太白 : 원문에는 “白”이 아닌 “自”로 들어가 있다. 두 대교본을 참고하여 고쳐 넣었다. ↪

78. 전시(傳尸) : 사람이 죽은 후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이다. ↪

79. **골증(骨蒸)**: 음기가 부족하여 뼈에서부터 열이 나는 것을 말한다. ↵
80. **폐위(肺痿)**: 진액이 소모되면서 폐에 열이 생겨 폐엽을 마르게 하는 것이다. ↵
81. **3장**: 《인조간본》과 《정조간본》에는 모두 “三十壯”으로 되어 있다. ↵
82. **결적(結積)과 유음(留飲)**: 결적(結積)은 뱃속에 덩어리져 뭉친 것을 말하고 유음(留飲)은 명치 아래 물이 머무는 것을 말한다. ↵

1.11. 諸般積聚部 | 제반 적취⁸³ 부

1.11.1. 氣塊冷氣, 一切氣疾 | 기가 뭉쳐 냉기가 도는 것, 모든 기병

氣海.

기해(氣海).

1.11.2. 心氣痛連脇 | 심기통이 옆구리까지 이어진 것

百會、上腕、支溝、大陵⁸⁴、三里.

백회(百會)、상완(上腕)、지구(支溝)、대릉(大陵)、족삼리(足三里).

1.11.3. 心下如杯 | 가슴 아래의 솔잔 같은 것

中腕、百會.

중완(中腕)、백회(百會).

1.11.4. 結氣上喘, 及伏梁氣 | 기운이 뭉쳐 위로 숨이 차거나 복량⁸⁵이 된 것

中腕.

중완(中腕).

1.11.5. 脇下積氣 | 옆구리 아래의 적기

期門.

기문(期門).

1.11.6. 血結如杯 | 피가 뭉쳐 술잔 같이 생긴 것

関元.

관원(關元).

1.11.7. 貢豚氣 | 분돈⁸⁶

章門、期門、中腕、巨闕、氣海(百壯).

장문(章門)、기문(期門)、중완(中腕)、거궐(巨闕)、기해(氣海)(100장).

1.11.8. 氣逆 | 기운이 치밀어 오르는 것

尺澤、商丘、太白、三陰交.

척택(尺澤)、상구(商丘)、태백(太白)、삼음교(三陰交).

1.11.9. 喘逆 | 숨이 차면서 치밀어 오르는 것

神門、陰陵、崑崙、足臨泣.

신문(神門)、음릉천(陰陵泉)、곤륜(崑崙)、족임읍(足臨泣).

1.11.10. 噎氣上逆 | 트림이 치밀어 오르는 것

太淵、神門.

태연(太淵)、신문(神門).

1.11.11. 咳逆 | 해역⁸⁷

支溝、前谷、大陵、曲泉、三里、陷谷、然谷、行間、臨泣、肺俞.

| 지구(支溝)、전곡(前谷)、대릉(大陵)、곡천(曲泉)、족삼리(足三里)、함곡
(陷谷)、연곡(然谷)、행간(行間)、족임읍(足臨泣)、폐수(肺俞).

1.11.12. 咳逆無所出者 | 해역에 치밀어 오르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는 것

先取三里, 後取太白. 太淵、魚際、太谿、竅陰、肝俞.

| 먼저 족삼리(足三里)를 취하고 이후에 태백(太白)을 취한다. 태연(太淵)、어
제(魚際)、태계(太谿)、규음(竅陰)、간수(肝俞).

1.11.13. 咳逆振寒 | 해역에 추워 떠는 것

少商、天突(炙二壯).

| 소상(少商)、천돌(天突)(灸 2장).

1.11.14. 久病咳 | 오랜 기침

少商、天突(炙三壯).

| 소상(少商)、천돌(天突)(灸 3장).

1.11.15. 厥氣冲腹 | 뱃속에서 기운이 치밀어 오르는 것

解谿、天突.

| 해계(解谿)、천돌(天突).

1.11.16. 短氣 | 숨이 짧은 것

大陵、尺澤.

대릉(大陵)、척택(尺澤).

1.11.17. 少氣 | 기운이 약한 것

間使、神門、大陵、少冲、三里、下廉、行間、然谷、至陰、肝俞、氣海.

간사(間使)、신문(神門)、대릉(大陵)、소충(少冲)、족삼리(足三里)、하령
(下廉)、행간(行間)、연곡(然谷)、지음(至陰)、간수(肝俞)、기해(氣海).

1.11.18. 欠氣 | 하품

通里、內庭.

통리(通里)、내정(內庭).

1.11.19. 諸積 | 모든 적취

三里、陰谷、解谿、通谷、上腕、肺俞、膈俞、脾俞、三焦俞.

족삼리(足三里)、음곡(陰谷)、해계(解谿)、통곡(通谷)、상완(上腕)、폐수
(肺俞)、격수(膈俞)、비수(脾俞)、삼초수(三焦俞).

1.11.20. 腹中氣塊 | 배 속에 기가 뭉친 것

塊頭上一穴, 針二寸半, 灸二七壯. 塊中一穴, 針一二寸, 灸三七壯. 塊尾一穴, 針三寸半, 灸七壯.

덩어리의 머리 부분에 1혈을 잡아 침 2촌 5푼을 놓고 뜸 14장을 뜯다. 덩어리 가운데에 1혈을 잡아 침 1-2촌을 놓고 뜸을 21장 뜯다. 덩어리의 꼬리부분에 1혈을 잡아 침 3촌 5푼을 놓고 뜸을 7장 뜯다.

1.11.21. 胸腹膨脹氣喘 | 가슴과 배가 팽팽히 불러오면서 숨이 찬 것

合谷、三里、期門、乳根(乳下一寸).

합곡(合谷)、족삼리(足三里)、기문(期門)、유근(乳根)([유두 아래 1촌](#)⁸⁸).

1.11.22. 灸哮法 |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천식에 뜸뜨는 법

天突、尾窮骨尖.

천돌(天突)과 미궁골(尾窮骨)의 끝에 뜸을 뜯다.

又背上一穴, 其法以線一條, 套頸上垂下, 至鳩尾尖上截斷, 牽往後脊骨上, 線頭盡處是穴. 灸七壯妙.

또 등 위에 1혈이 있는데, 그 방법은 끈 한 줄을 목에 둘러 아래로 늘어뜨린 후 구미혈 끝에서 자르고, 다시 뒤쪽의 척추뼈 쪽으로 돌리면 줄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혈 자리이다. 뜸 7장을 뜯면 좋다.

83. **적취(積聚)**: 기운이 운행하지 못하여 덩어리져서 뭉치거나 모여 쌓인 것으로 적(積)은 형태가 고정되어 만져지나 취(聚)는 고정된 형태가 없이 움직이는 것이 다르다. [←](#)

84. **大陵**: 원문에서는 大와 太를 혼용하여 쓰고 있다.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랐다. [←](#)

85. **복량(伏梁)**: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내경(內經)》에 나오는 의미로는 소복부의 옹종(癰腫)이나 넓적다리에서 정강이까지 부으면서 배꼽주변이 아픈 것을 말하지만, 보통은 심적증(心積症)을 가리키며 배꼽에서 일어나 팔뚝 같은 것 이 심하로 치미는 증상을 말한다. [←](#)

86. **분돈(賁豚)** : 신적증(腎積症)이며 소복부에서 발생하여 명치까지 이르고 그 모양이 마치 새끼돼지가 질주하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87. **해역(咳逆)** : 해수(咳嗽)에서 기가 상역(上逆)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88. **유두아래1촌** : 《초간본》의 소장자가 덧붙인 내용이다. ↵

1.12. 腹痛脹滿部 | 복통창만부

1.12.1. 腹痛 | 복통

內關、三里、陰谷、陰陵、復溜、大谿、崑崙、陷谷、行間、太白、中腕、氣海
、膈俞、脾俞、腎俞.

내관(內關)、족삼리(足三里)、음곡(陰谷)、음릉천(陰陵泉)、부류(復溜)、태
계(大谿)、곤륜(崑崙)、함곡(陷谷)、행간(行間)、태백(太白)、중완(中腕)、
기해(氣海)、격수(膈俞)、비수(脾俞)、신수(腎俞).

1.12.2. 食不下 |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것

內關、魚際、三里.

내관(內關)、어제(魚際)、족삼리(足三里).

1.12.3. 小腹急痛不可忍, 及小腸氣, 外腎串, 痢氣, 諸氣痛, 心痛 | 갑작스럽고 참을 수 없는 소복통, 소장기⁸⁹, 외신조⁹⁰, 산기⁹¹, 제반 기통, 심통

灸足大指次指下, 中節橫紋當中, 灸五壯. 男左女右, 極妙, 二足皆灸亦可.

두 번째 발가락의 중간마디 가로금 가운데에 뜰 5장을 뜯다.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뜨면 매우 좋고 두 발 모두 뜰을 떠도 된다.

1.12.4. 小腹脹痛 | 아랫배가 불러오면서 아픈 것

氣海.

기해(氣海).

1.12.5. 繞臍痛 | 배꼽부위가 꼬이듯 아픈 것

水分、神闕、氣海.

수분(水分)、신궐(神闕)、기해(氣海).

1.12.6. 小腹痛 | 소복통

陰市、承山、下廉、復溜、中封、大敦、小海、關元、腎俞(隨年壯).

음시(陰市)、승산(承山)、하령(下廉)、부류(復溜)、중봉(中封)、대돈(大敦)

、소해(小海)、관원(關元)、신수(腎俞)(나이 수만큼 뜰을 뜯다).

1.12.7. 夾臍痛 | 배꼽 주위로 아픈 것

上廉.

상령(上廉).

1.12.8. 臟痛 | 배꼽의 통증

曲泉、中封、水分.

곡천(曲泉)、중봉(中封)、수분(水分).

1.12.9. 引腰痛 | 허리까지 당기는 통증

太冲、太白.

태충(太冲)、태백(太白).

1.12.10. 腹滿 | 배가 그득한 것

少商、陰市、三里、曲泉、崑崙、商丘、通谷、太白、大都、隱白、陷谷、行間.

| 소상(少商)、음시(陰市)、족삼리(足三里)、곡천(曲泉)、곤륜(崑崙)、상구
(商丘)、통곡(通谷)、태백(太白)、대도(大都)、은백(隱白)、함곡(陷谷)、행
간(行間).

1.12.11. 腹脹滿 | 배와 옆구리가 그득한 것

陽陵、三里、上廉.

| 양릉천(陽陵泉)、족삼리(足三里)、상렴(上廉).

1.12.12. 心腹脹滿 | 윗배가 불러오면서 그득한 것

絶骨、內庭.

| 절골(絶骨)、내정(內庭).

1.12.13. 小腹脹滿痛 | 아랫배가 불러오고 그득하면서 아픈 것

中封、然谷、內庭、大敦.

| 중봉(中封)、연곡(然谷)、내정(內庭)、대돈(大敦).

1.12.14. 腹脹 | 배가 불러오는 것

尺澤、陰市、三里、曲泉、陰谷、陰陵、商丘、公孫、內庭、太谿、太白、厲兌
、隱白、膈俞、腎俞、中脘、大陽俞.

척택(尺澤)、음시(陰市)、족삼리(足三里)、곡천(曲泉)、음곡(陰谷)、음릉천(陰陵泉)、상구(商丘)、공손(公孫)、내정(內庭)、태계(太谿)or(太白)、여태(厲兑)、은백(隱白)、격수(膈俞)、신수(腎俞)、중완(中腕)、대장수(大陽俞).

1.12.15. 脹而胃痛 | 배가 불리오면서 위가 아픈 것

膈俞.

격수(膈俞).

1.12.16. 腹堅大 | 배가 단단하면서 부른 것

三里、陰陵、丘墟、解谿、冲陽、期門、水分、神闕、膀胱俞.

족삼리(足三里)、음릉천(陰陵泉)、구허(丘墟)、해계(解谿)、충양(冲陽)、기문(期門)、수분(水分)、신궐(神闕)、방광수(膀胱俞).

1.12.17. 寒熱堅大 |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단단하게 부른 것

冲陽.

충양(冲陽).

1.12.18. 鼓脹 | 고창⁹²

復溜、中封、公孫、太白、水分、三陰交.

부류(復溜)、중봉(中封)、공손(公孫)、태백(太白)、수분(水分)、삼음교(三陰交).

1.12.19. 腹寒不食 | 배가 차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陰陵泉.

음릉천(陰陵泉).

1.12.20. 痰癧腹寒 | 담벽⁹³이 있으면서 배가 찬 것

三陰交.

삼음교(三陰交).

1.12.21. 腹鳴寒熱 | 배에서 소리가 나면서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

復溜.

부류(復溜).

1.12.22. 胸腹膨脹氣鳴 | 가슴과 배가 팽팽히 불러오면서 소리가 나는 것

合谷、三里、期門.

합곡(合谷)、족삼리(足三里)、기문(期門).

89. 소장기(小腸氣) : 산증(疝症)을 말한다. ↪

90. 외신조(外腎弔) : 음낭이 붓고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말한다. ↪

91. 산기(疝氣) : 대개 복부가 격렬하게 아프면서 대소변이 불통하거나 남녀의 외생식기가 붓고 아픈 증상을 말한다. 역대 의서에 따라 의미변천이 존재해 왔으며 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 ↪

92. 고창(鼓脹) : 뱃가죽이 북처럼 당기면서 속이 그득한 증상을 말한다. ↪

93. **담벽(痰癥)**: 담(痰)이 모여 생긴 벽(癥)이다. 벽(癥)이란 양 옆구리 아래에
덩이가 생겨 평소에는 만져지지 않다가 통증이 올 때 만져지는 것을 말한다.



1.13. 心脾胃部 | 심비위부

1.13.1. 心痛 | 심통

曲澤、間使、內關、大陵、神門、太淵、太谿、通谷、心俞(百壯)、巨闕(七壯).

곡택(曲澤)、간사(間使)、내관(內關)、대릉(大陵)、신문(神門)、태연(太淵)
、태계(太谿)、통곡(通谷)、심수(心俞)(100장)、거궐(巨闕)(7장).

1.13.2. 心痛, 食不化 | 심통 및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

中腕.

중완(中腕).

1.13.3. 胃脘痛 | 위완통

太淵、魚際、三里、兩乳下(各一寸 各三十壯)、膈俞、胃俞、腎俞(隨年壯).

태연(太淵)、어제(魚際)、족삼리(足三里)、양젖가슴 아래(각 1촌, 각 30장)
、격수(膈俞)、위수(胃俞)、신수(腎俞)(나이 수만큼 뜯다).

1.13.4. 心煩 |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것

神門、陽谿、魚際、腕骨、少商、解谿、公孫、太白、至陰.

신문(神門)、양계(陽谿)、어제(魚際)、완골(腕骨)、소상(少商)、해계(解谿)
、공손(公孫)、태백(太白)、지음(至陰).

1.13.5. 煩渴心熱 | 답답하고 울렁거리면서 갈증이 나고 가슴에 열이 나는 것

曲澤.

곡택(曲澤).

1.13.6. 心煩怔忡 |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면서 두근거리고 불안한 것

魚際.

어제(魚際).

1.13.7. 卒心疼不可忍, 吐冷酸水 | 갑자기 가슴이 참을 수 없이 아프면서 차가운 신물을 토하는 것

灸足大指次指內紋中, 各一壯, 炙如小麥大, 立愈.

둘째발가락 안쪽 가로금 가운데에 뜸을 1장씩 뜨되 뜸 심지를 밀알크기로 하며 바로 효과가 있다.

1.13.8. 思慮過多, 無心力, 忘前失後 | 생각이 많아 마음이 약해지면서 앞뒤의 일을 잘 잊어버리는 것

灸百會.

백회(百會)에 뜸.

1.13.9. 心風 | 심풍

心俞(灸)、中腕.

심수(心俞)(肺)、중완(中腕).

1.13.10. 煩悶 | 마음이 답답하면서 괴로운 것

腕骨.

완골(腕骨).

1.13.11. 虛煩口乾 | 심이 허하여 가슴이 답답하면서 입이 마른 것

肺俞.

폐수(肺俞).

1.13.12. 煩怨不臥 | 가슴이 답답하면서 원망으로 인해 누워있지 못하는 것

太淵、公孫、隱白、肺俞、陰陵泉、三陰交.

태연(太淵)、공손(公孫)、은백(隱白)、폐수(肺俞)、음릉천(陰陵泉)、삼음교
(三陰交).

1.13.13. 煩心喜噫 | 가슴이 답답하면서 자주 트림하는 것

少商、太谿、陷谷.

소상(少商)、태계(太谿)、함곡(陷谷).

1.13.14. 心痺悲恐 | 가슴이 저리면서 슬프고 두려운 것

神門、大陵、魚際.

신문(神門)、대릉(大陵)、어제(魚際).

1.13.15. 懈惰 | 게으르게 늘어지는 것

照海.

조해(照海).

1.13.16. 心驚恐 | 마음이 놀라고 두려운 것

曲澤、天井、靈道、神門、大陵、魚際、二間、液門、少沖、百會、厲兌、通谷
、巨闕、章門。

곡택(曲澤)、천정(天井)、영도(靈道)、신문(神門)、대릉(大陵)、어제(魚際)
、이간(二間)、액문(液門)、소충(少沖)、백회(百會)、여태(厲兌)、통곡(通
谷)、거궐(巨闕)、장문(章門).

1.13.17. 嗜臥 | 자꾸 눕고 싶은 것

百會、天井、三間、二間、太谿、照海、厲兌、肝俞.

백회(百會)、천정(天井)、삼간(三間)、이간(二間)、태계(太谿)、조해(照海)
、여태(厲兌)、간수(肝俞).

1.13.18. 嗜臥不言 | 누워만 있고자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膈俞.

격수(膈俞).

1.13.19. 不得臥 | 누워있지 못하는 것

太淵、公孫、隱白、肺俞、陰陵泉、三陰交.

태연(太淵)、공손(公孫)、은백(隱白)、폐수(肺俞)、음릉천(陰陵泉)、삼음교
(三陰交).

1.13.20. 支滿不食 | 속이 치받치고 그득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 것

肺俞.

폐수(肺俞).

1.13.21. 振寒不食 | 추워 몸을 떨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冲陽.

충양(冲陽).

1.13.22. 胃熱不食 | 위열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下廉.

하렴(下廉).

1.13.23. 胃脹不食 | 위가 불러오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水分.

수분(水分)

1.13.24. 心恍惚 | 마음이 흐릿하고 혼란한 것

天井、巨闕、心俞.

천정(天井)、거궐(巨闕)、심수(心俞).

1.13.25. 心喜笑 | 줄곧 기뻐하며 웃는 것

陽谿、陽谷、神門、大陵、列缺、魚際、勞宮、復溜、肺俞.

양계(陽谿)、양곡(陽谷)、신문(神門)、대릉(大陵)、열결(列缺)、어제(魚際)
、노궁(勞宮)、부류(復溜)、폐수(肺俞).

1.13.26. 胃痛 | 위가 아픈 것

太淵、魚際、三里、腎俞、肺俞、胃俞、兩乳下(各一寸, 各二十壯).

태연(太淵)、어제(魚際)、족삼리(足三里)、신수(腎俞)、폐수(肺俞)、위수
(胃俞)、양 유두 아래(각 1촌, 각 20장)

1.13.27. 翻胃 | 번위⁹⁴.

先取下腕, 後取三里(瀉). 胃俞、膈俞(百壯)、中腕、脾俞.

먼저 하완(下腕)을 침하고 그 다음에 족삼리(足三里)를 침한다(사(瀉)). 위수
(胃俞)、격수(膈俞)(100장)、중완(中腕)、비수(脾俞).

1.13.28. 噫食不下 | 목메임⁹⁵으로 음식이 막혀 넘어가지 않는 것

勞宮、少商、太白、公孫、三里、中魁〔在中指第二節尖〕、膈俞、心俞、胃俞、
三集俞、中腕、大腸俞.

노궁(勞宮)、소상(少商)、태백(太白)、공손(公孫)、족삼리(足三里)、증고
(中魁)(가운데손가락 둘째마디 끝에 있다)、격수(膈俞)、심수(心俞)、위수
(胃俞)、삼초수(三集俞)、중완(中腕)、대장수(大腸俞).

1.13.29. 不能食 |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少商、三里、然谷、膈俞、胃俞、大腸俞.

| 소상(少商)、족삼리(足三里)、연곡(然谷)、격수(膈俞)、위수(胃俞)、대장수(大腸俞).

1.13.30. 不嗜食 |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것

中封、然谷、內庭、厲兌、隱白、陰陵泉、肺俞、脾俞、胃俞、小腸俞.

| 중봉(中封)、연곡(然谷)、내정(內庭)、여태(厲兌)、은백(隱白)、음릉천(陰陵泉)、폐수(肺俞)、비수(脾俞)、위수(胃俞)、소장수(小腸俞).

1.13.31. 食氣飲食聞食臭 | 식기음식문식취

百會、少商、三里. 炙壹中.

| 백회(百會)、소상(少商)、족삼리(足三里). 단증(壹中)은 뜰을 뜯다.

1.13.32. 食多身疲 | 음식을 많이 먹어 몸이 피곤한 것

脾俞、胃俞.

| 비수(脾俞)、위수(胃俞).

1.13.33. 脾寒 | 비장이 찬 것

三間、中渚、液門、合谷、商丘、三陰交、中封、照海、陷谷、太谿、至陰、腰俞.

삼간(三間)、중저(中渚)、액문(液門)、합곡(合谷)、상구(商丘)、삼음교(三陰交)、중봉(中封)、조해(照海)、함곡(陷谷)、태계(太谿)、지음(至陰)、요수(腰俞).

1.13.34. 胃熱 | 위에 열이 있는 것

懸鍾.

현종(懸鍾).

1.13.35. 胃寒有痰 | 위가 차고 담이 있는 것

膈俞.

격수(膈俞).

1.13.36. 脾虛腹脹 穀不消 | 비가 허하여 배가 불리오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

三里.

족삼리(足三里).

1.13.37. 脾病溏泄 | 비에 병이 있어 변이 묽은 것

三陰交.

삼음교(三陰交).

1.13.38. 脾虛不便 | 비가 허하여 대변을 못 보는 것

商丘.

상구(商丘).

1.13.39. 膽虛嘔逆, 热上氣 | 담이 허하여 구역질이 나고 열이 위로 오르는 것

三陰交(三十壯).

삼음교(三陰交)(30장).

94. 번위(翻胃) : 식후에 배가 창만하고 속이 메스꺼우며 아침에 먹은 것을 저녁에 토하거나 저녁에 먹은 것을 아침에 토하는 것을 주증으로 한다. ↵

95. 목메임(噎證) : 열증(噎證)은 혈과 진액이 다 줄어들어 위완(胃脘)의 상부인 목구멍 쪽이 말라서 음식을 넘기기 어려운 증상이다. ↵

1.14. 心邪癲狂部 | 심사전광부

1.14.1. 心邪癲狂 | 심장의 사기로 인한 전광⁹⁶

攢竹、尺澤、間使、陽谿.

찬죽(攢竹)、척택(尺澤)、간사(間使)、양계(陽谿).

1.14.2. 癲狂 | 전광

曲池、小海、少海、間使、陽谿、陽谷、大陵、合谷、魚際、腕骨、神門、液門
、冲陽、行間、京骨、肺俞(百壯).

곡지(曲池)、소해(小海)、소해(少海)、간사(間使)、양계(陽谿)、양곡(陽谷)
、대릉(大陵)、합곡(合谷)、어제(魚際)、완골(腕骨)、신문(神門)、액문(液
門)、충양(冲陽)、행간(行間)、경골(京骨)、폐수(肺俞)(100장).

1.14.3. 癲癇 | 간질병

攢竹、天井、小海、神門、金門、商丘、行間、通谷、心俞(百壯)、後谿、鬼眼
四穴(在手大指足大指內側爪甲角, 其艾炷, 半在爪上半在肉上, 三壯極妙).

찬죽(攢竹)、천정(天井)、소해(小海)、신문(神門)、금문(金門)、상구(商丘)
、행간(行間)、통곡(通谷)、심수(心俞)(100장)、후계(後谿)、귀안사혈(鬼
眼四穴)(엄지손톱 안쪽귀퉁이와 엄지발톱 안쪽귀퉁이에 있으며, 뜸 심지의
반은 손톱 위에, 반은 살 위에 오게 하여 3장을 뜨면 매우 좋다).

1.14.4. 癲疾 | 전질⁹⁷

上星、百會、風池、曲池、尺澤、陽谿、腕骨、解谿、後谿、申脈、崑崙、商丘、然谷、通谷、承山(針三分速出, 灸百壯).

상성(上星)、백회(百會)、풍지(風池)、곡지(曲池)、척택(尺澤)、양계(陽谿)、완골(腕骨)、해계(解谿)、후계(後谿)、신맥(申脈)、곤륜(崑崙)、상구(商丘)、연곡(然谷)、통곡(通谷)、승산(承山)(침은 3푼을 놓고 바로 빼주며 뜰은 100장을 뜯다).

1.14.5. 狂言 |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

太淵、陽谿、下廉、崑崙.

태연(太淵)、양계(陽谿)、하렴(下廉)、곤륜(崑崙).

1.14.6. 狂言不樂 | 불쾌한 기색으로 광언을 하는 것

大陵.

대릉(大陵).

1.14.7. 多言 | 말이 많은 것

百會.

백회(百會).

1.14.8. 癲狂, 言語不擇尊卑 | 전광으로 위아래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灸唇裏中央肉弦上一壯, 灸如小麥大, 又用鋼刀割斷更佳.

입술 안쪽에서 중앙의 잇몸과 연결되는 부위에 뜰 한 장을 뜨는데 심지는 밀알 크기로 하며 칼로 그 부위를 잘라주면 더욱 좋다.

1.14.9. 狂言數回顧 | 광언과 함께 고개를 자꾸 비트는 것

陽谷、液門.

양곡(陽谷)、액문(液門).

1.14.10. 喜笑 | 자꾸 웃는 것

水溝、列缺、陽谿、大陵.

수구(水溝)、열결(列缺)、양계(陽谿)、대릉(大陵).

1.14.11. 喜哭 | 자꾸 우는 것

百會、水溝.

백회(百會)、수구(水溝).

1.14.12. 目妄視 | 헛것을 보는 것

風府.

풍부(風府).

1.14.13. 鬼擊 | 귀신에게 맞은 것(鬼擊)⁹⁸

間使、支溝.

간사(間使)、지구(支溝).

1.14.14. 鬼邪 | 귀신의 사기(邪氣)

間使. 仍針後十三穴.

간사(間使). 이와 함께 다음의 13개혈에 침을 놓는다.

第一鬼宮(卽人中穴).

제1 귀궁(鬼宮)(인중(人中)혈이다).

第二鬼信(手大指爪甲下, 入三分).

제2 귀신(鬼信)(엄지손가락 손톱 밑단에서 3푼 들어간 곳).

第三鬼壘(足大指爪甲下, 入肉二分).

제3 귀루(鬼壘)(엄지발가락 발톱 밑단에서 살 쪽으로 2푼 들어간 곳).

第四鬼心(卽太淵穴入半寸).

제4 귀심(鬼心)(태연(太淵)에서 5푼 들어간다).

未必併針, 止五六穴即可矣. 若是邪蠱之精, 便自言說論其由來往驗. 有實立得精靈,
未必須盡其命, 求去與之. 男從左起針, 女從右起針, 若數處不言, 便通穴針之.

반드시 침을 다 놓을 필요는 없으며 5-6혈만 놓아도 된다. 고(蠱)⁹⁹의 정(精)은
그것을 퍼뜨린 사람에 관해 말하면 효험이 있다. 고독(蠱毒)의 정령(精靈)이
들어왔으면 그 명을 다 하기가 어려우며, 없애고자 한다면 남에게 주어야 한
다. 남자는 왼쪽으로부터 침을 놓고 여자는 오른쪽으로부터 침을 놓으며, 만약
여러 혈 자리에 침을 놓았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면 변통(便通)혈에 침을 놓는
다.

第五鬼路(卽申脉穴, 火針七鋸二三下).

제5 귀로(鬼路)(신맥(申脉)혈이며 화침(火針) 7대를 2-3회 놓는다).

第六鬼枕(大椎上入髮際一寸).

제6 귀침(鬼枕)(대추(大椎)위 발제(髮際) 안쪽으로 1촌이다).

第七鬼床(耳前髮際穴).

제7 귀상(鬼床)(귀 앞의 발제(髮際)에 있다).

第八鬼市(卽承漿穴).

제8 귀시(鬼市)(승장(承漿)혈이다).

第九鬼營(卽勞宮穴).

제9 귀영(鬼營)(노궁(勞宮)혈이다).

第十鬼堂(卽上星, 火針七鋸).

제10 귀당(鬼堂)(상성(上星)혈이며, 화침(火針) 7대를 놓는다).

第十一鬼藏(陰下縫, 灸三壯).

제11 귀장(鬼藏)(음하(陰下)의 막혀있는 부위이며 뜸 3장을 놓는다).

第十二鬼臣(卽曲池火針).

제12 귀신(鬼臣)(곡지(曲池)혈이며 화침(火針)을 놓는다).

第十三鬼封(舌下一寸縫).

제13 귀봉(鬼封)(혀 아래 1촌으로 설소대에 있다).

依次而行, 針灸並備主之.

이와 같이 순서에 맞추어 시행하며 침과 뜸을 함께 구비하여 치료한다.

1.14.15. 見鬼 | 귀신을 보는 증상

陽谿.

양계(陽谿).

1.14.16. 魘夢 | 가위 눌림

商丘.

상구(商丘).

1.14.17. 中惡不省 | 중악¹⁰⁰으로 인한 인사불성

水溝、中腕、氣海.

수구(水溝)、중완(中腕)、기해(氣海).

1.14.18. 不省人事 | 인사불성

三里、大敦.

족삼리(足三里)、대돈(大敦).

1.14.19. 發狂 | 발광

少海、間使、神門、合谷、後谿、復溜、絲竹空.

소해(少海)、간사(間使)、신문(神門)、합곡(合谷)、후계(後谿)、부류(復溜)
· 사죽공(絲竹空).

1.14.20. 狐魅神邪 迷附癲狂 | 여우나 도깨비에 훌린 것, 전광과 함께 정신이 미혹된 것

以兩手兩足大拇指, 用繩縛定, 艾炷着四處, 盡灸一處, 灸不到其疾不愈, 灸三壯. 卽
鬼眼穴, 小兒胎癇奶癇 驚癇, 亦依此法灸一壯, 灸如小麥大.

양 손과 양 발의 엄지를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 후 쑥 뜰을 네 곳에 붙이고 한 곳씩 불을 붙이는데, 뜰이 이르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으며 세 장을 뜯다. 이것이 귀안혈(鬼眼穴)이다. 소아의 태간(胎癇)과 내간(奶癇), 경간(驚癇)에도 이 방법대로 뜰을 한 장 뜨며 뜰 심지는 밀알 크기로 한다.

1.14.21. 卒狂 | 갑작스런 발광

間使、後谿、合谷。

간사(間使)、후계(後谿)、합곡(合谷).

1.14.22. 狂走 | 광증이 나서 질주하는 것

風府、陽谷。

풍부(風府)、양곡(陽谷).

1.14.23. 瘓瘻指擊 | 계종으로 손가락의 근육이 당겨지는 것

瘻門、陽谷、腕骨、帶脉。

아문(瘻門)、양곡(陽谷)、완골(腕骨)、대맥(帶脉).

1.14.24. 呆痴 | 치매

神門、少商、湧泉、心俞。

신문(神門)、소상(少商)、용천(湧泉)、심수(心俞).

1.14.25. 久狂登高而歌, 棄衣而走 | 광증이 오래되어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 부르거나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다니는 것

神門、後谿、冲陽.

| 신문(神門)、후계(後谿)、충양(冲陽).

1.14.26. 瘦驚 | 경증에 근맥이 당기는 것

百會、解谿.

| 백회(百會)、해계(解谿).

1.14.27. 暴驚 | 갑작스런 경증

下廉.

| 하렴(下廉).

1.14.28. 癲疾 | 간질

前谷、後谿、水溝、解谿、金門、申脈.

| 전곡(前谷)、후계(後谿)、수구(水溝)、해계(解谿)、금문(金門)、신맥(申脈).

96. **전광(癲狂)**: 정신착란의 일종이다. 음(陰)이 중첩되면 전(癲)이 발생하고 양(陽)이 중첩되면 광(狂)이 발생한다. ↪

97. **전질(癲疾)**: 치매와 유사한 정신이상을 말한다. ↪

98. **귀신에게맞은것(鬼擊)**: 갑작스럽게 가슴과 배가 아픈 것이 마치 칼로 베는 것처럼 통증이 참을 수 없고 코에서 피가 나거나 하혈이 발생하는 등 출혈이 동반되는 증상을 말한다. ↪

99. **고(蠹)**: 두꺼비, 지네, 뱀을 잡아 그릇에 담아 서로 잡아먹게 하여 마지막

남은 하나가 “고(蠱)”이고 이것이 변화를 거치면 음식에 넣어 다른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다. 중독이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프며, 얼굴이 청황색이 되고 가래와 피를 토하거나 변으로 피고름이 나온다. 빠르면 십 수 일 만에 죽고 완만한 것은 세월을 끌다가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 고독에 걸려 약을 먹을 때 만약 고독을 퍼뜨린 사람의 이름을 안다면 그 이름을 불러서 가져가라고 해야 한다. 고독을 퍼뜨린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고자 한다면 현 복가죽을 태워 가루내어 미음에 타서 먹이면 환자가 잠시 후 고독을 퍼뜨린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다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여 고독을 가져가라고 하면 곧 낫는다는 내용이 《동의보감》에 나온다. 《신응경》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되, 약이 아닌 침을 통해 퍼뜨린 자의 이름을 알아내도록 한 것이 다르다. ←

100. 중악(中惡) : 부정지기(不正之氣)를 감수(感受)하여 쓰러지는 것을 말한다. ←

1.15. 霍亂部 | 곽란부

1.15.1 霍亂 | 곽란

陰陵、承山、解谿、太白.

음릉천(陰陵泉)、승산(承山)、해계(解谿)、태백(太白).

1.15.2 霍亂嘔吐 | 곽란에 구역질하고 토하는 것

支溝.

지구(支溝).

1.15.3 霍亂吐瀉 | 곽란에 토하고 설사하는 것

關冲、支溝、尺澤、三里、太白. 先取太谿, 後取太倉.

관충(關冲)、지구(支溝)、척택(尺澤)、족삼리(足三里)、태백(太白). 먼저 태계(太谿)에 놓고 다음에 태창(太倉)에 놓는다.

1.15.4 霍亂轉筋 | 곽란에 쥐가 나는 것

支溝、關冲、陰陵、承山、陽輔、中封、解谿、丘墟、公孫、太白、大都.

지구(支溝)、관충(關冲)、음릉천(陰陵泉)、승산(承山)、양보(陽輔)、중봉(中封)、해계(解谿)、구허(丘墟)、공손(公孫)、태백(太白)、**대도(大都)**¹⁰¹.

¹⁰¹. **대도(大都)**: 《초간본》의 원문은 종이 손상으로 누락되었으므로 두 대교본을 참조하여 넣었다. ↪

1.16. 瘧疾部 | 학질부

1.16.1. 瘧疾 | 학질

百會、經渠、前谷.

백회(百會)、경거(經渠)、전곡(前谷).

1.16.2. 溫瘧 | 온학¹⁰²

中脘、大椎.

중완(中脘)、대추(大椎).

1.16.3. 痊瘧 | 해학¹⁰³

腰俞.

요수(腰俞).

1.16.4. 瘧疾發寒熱 | 학질에 추웠다 열이 올랐다 하는 것

合谷、液門、商陽.

합곡(合谷)、액문(液門)、상양(商陽).

1.16.5. 痰瘧寒熱 | 담학¹⁰⁴으로 추웠다 열이 올랐다 하는 것

後谿、合谷.

후계(後谿)、합곡(合谷).

1.16.6. 瘧疾振寒 | 학질에 오한이 심한 것

上星、丘墟、陷谷。

| 상성(上星)、구허(丘墟)、함곡(陷谷)。

1.16.7. 頭痛 | 두통

腕骨。

| 완골(腕骨)。

1.16.8. 寒瘡 | 한학

三間。

| 삼간(三間)。

1.16.9. 心煩 | 가슴이 답답하여 편치 않은 것

神門

| 신문(神門)。

1.16.10. 寒瘡不食 | 한학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公孫、內庭、厲兌。

| 공손(公孫)、내정(內庭)、여태(厲兌)。

1.16.11. 久瘡 | 학질이 오래 된 것

中渚、商陽、丘墟.

| 중저(中渚)、상양(商陽)、구허(丘墟).

1.16.12. 热多寒少 |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은 적은 것

間使、三里.

| 간사(間使)、족삼리(足三里).

1.16.13. 脾寒發瘧 | 비한으로 학질이 된 것

大椎、間使、乳根.

| 대추(大椎)、간사(間使)、유근(乳根).

102. 온학(溫瘧) : 열사(熱邪)로 인한 학질이다. ←

103. 해학(痾瘧) : 본래는 학질과 통용해서 쓰는 명칭이나 이틀에 한 번 발작하는 학질을 가리키기도 한다. ←

104. 담학(痰瘧) : 담(痰)으로 인한 학질이다. ←

1.17. 腫脹部 | 종창부

1.17.1. 淘身浮腫 | 온 몸이 붓는 것

曲池、合谷、三里、內庭、行間、三陰交.

곡지(曲池)、합곡(合谷)、족삼리(足三里)、내정(內庭)、행간(行間)、삼음교
(三陰交).

1.17.2. 水腫 | 수종

列缺、腕骨、合谷、間使、陽陵、陰谷、三里、曲泉、解谿、陷谷、復溜、公孫
、厲兌、冲陽、陰陵、胃俞、水分、神闕.

열결(列缺)、완골(腕骨)、합곡(合谷)、간사(間使)、양릉천(陽陵泉)、음곡
(陰谷)、족삼리(足三里)、곡천(曲泉)、해계(解谿)、함곡(陷谷)、부류(復溜)
、공손(公孫)、여태(厲兌)、충양(冲陽)、음릉천(陰陵泉)、위수(胃俞)、수분
(水分)、신궐(神闕).

1.17.3. 四肢浮腫 | 팔다리가 붓는 것

曲池、通里、合谷、中渚、液門、三里、三陰交.

곡지(曲池)、통리(通里)、합곡(合谷)、중저(中渚)、액문(液門)、족삼리(足
三里)、삼음교(三陰交).

1.17.4. 風浮身腫 | 풍로 인해 몸이 붓는 것

解谿.

해계(解谿).

1.17.5. 腫水氣脹滿 | 물이 차서 불러오면서 그득한 것

復溜、神闕.

부류(復溜)、신궐(神闕).

1.17.6. 水脹脇滿 | 물이 차면서 옆구리가 불러오고 그득한 것

陰陵泉.

음릉천(陰陵泉).

1.17.7. 偏身腫滿食不化 | 몸 한쪽편이 붓고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

腎俞(百壯).

신수(腎俞)(100장).

1.17.8. 豔脹 | 고창¹⁰⁵

復溜、公孫、中封、太白、水分.

부류(復溜)、공손(公孫)、중봉(中封)、태백(太白)、수분(水分).

1.17.9. 消癰 | 소갈병

太谿.

태계(太谿).

1.17.10. 傷飽身黃 | 지나치게 배불리 먹어 황달이 된 것

章門.

장문(章門).

1.17.11. 紅瘡 | 흥단¹⁰⁶

百會、曲池、合谷、三里、委中.

백회(百會)、곡지(曲池)、합곡(合谷)、족삼리(足三里)、위중(委中).

1.17.12. 黃疸 | 황달

百勞、腕骨、三里、湧泉、中腕、膏肓、大陵、勞宮、太谿、中封、然谷、太沖
、復溜、脾俞.

백로(百勞)、완골(腕骨)、족삼리(足三里)、용천(湧泉)、중완(中腕)、고황
(膏肓)、대릉(大陵)、노궁(勞宮)、태계(太谿)、중봉(中封)、연곡(然谷)、태
충(太沖)、부류(復溜)、비수(脾俞).

105. 고창(皺脹) : 겉은 단단하면서 그득한데 속은 비어 있어 복과 같으므로 고
창(皺脹)이라 하였다. ↪

106. 흥단(紅瘡) : “瘡”은 “疽”과 통용된다. ↪

1.18. 汗部 | 한부

1.18.1. 無汗 | 땀이 전혀 없는 것

上星、痘門、風府、風池、支溝、經渠、大陵、陽谷、腕骨、前谷、中渚、液門、魚際、合谷、中冲、少商、商陽、大都、委中、陷谷、厲兌、俠谿.

상성(上星)、아문(痘門)、풍부(風府)、풍지(風池)、지구(支溝)、경거(經渠)、대릉(大陵)、양곡(陽谷)、완골(腕骨)、전곡(前谷)、중저(中渚)、액문(液門)、어제(魚際)、합곡(合谷)、중충(中冲)、소상(少商)、상양(商陽)、대도(大都)、위중(委中)、함곡(陷谷)、여태(厲兌)、협계(俠谿).

1.18.2. 汗不出 | 땀이 나오지 않는 것

曲澤、魚際、少澤、上星、曲泉、復溜、崑崙、俠谿、竅陰.

곡택(曲澤)、어제(魚際)、소택(少澤)、상성(上星)、곡천(曲泉)、부류(復溜)、곤륜(崑崙)、협계(俠谿)、규음(竅陰).

1.18.3. 自汗 | 저절로 땀이 나는 것

曲池、列缺、少商、崑崙、冲陽、然谷、大敦、湧泉.

곡지(曲池)、열결(列缺)、소상(少商)、곤륜(崑崙)、충양(冲陽)、연곡(然谷)、대돈(大敦)、용천(湧泉).

1.18.4. 少汗 | 땀이 적은 것

先補合谷, 次瀉復溜.

먼저 합곡(合谷)을 보(補)하고 다음으로 부류(復溜)를 사(瀉)한다.

1.18.5. 多汗 | 땀이 많은 것

先瀉合谷, 次補復溜.

먼저 합곡(合谷)을 사(瀉)하고 다음으로 부류(復溜)를 보(補)한다.

1.19. 瘰厥部 | 비궐부

1.19.1. 風瘡 | 풍으로 인해 저린 것

尺澤、陽輔.

척택(尺澤)、양보(陽輔).

1.19.2. 積癧痰瘡 | 벽과 담이 쌓여 저린 것

膈俞.

격수(膈俞).

1.19.3. 寒厥 | 한궐 ¹⁰⁷

太淵、液門.

태연(太淵)、액문(液門).

1.19.4. 瘫厥 | 근육이 마르면서 차가워지는 것

丘墟.

구허(丘墟).

1.19.5. 尸厥如死, 及不知人事 | 주검처럼 쓰러져 싸늘해지면서 사람을 못 알아 보는 것

灸厲兌(三壯).

여태(厲兌)에 뜸을 뜯다(3장).

1.19.6. 身寒痺 | 몸이 차면서 저린 것

曲池、列缺、環跳、風市、委中、商丘、中封、臨泣.

곡지(曲池)、열결(列缺)、환도(環跳)、풍시(風市)、위중(委中)、상구(商丘)
、중봉(中封)、족임읍(足臨泣).

1.19.7. 厥逆 | 손발이 싸늘한 것

陽輔、臨位、章門.

양보(陽輔)、족임읍(足臨位)、장문(章門).

1.19.8. 如脉絕 | 맥이 끊어질 듯 약한 것

灸間使, 或針伏溜.

간사(間使)에 뜸을 뜨거나 부류(復溜)¹⁰⁸에 침을 놓는다.

1.19.9. 尸厥 | 주검처럼 쓰러져 몸이 싸늘한 것

列缺、中冲、金門、大都、內庭、厲兌、隱白、大敦.

열결(列缺)、중충(中冲)、금문(金門)、대도(大都)、내정(內庭)、여태(厲兌)
、은백(隱白)、대돈(大敦).

1.19.10. 四肢厥 | 팔다리가 싸늘한 것

尺澤、小海、支溝、前谷、三里、三陰交、曲泉、照海、太谿、內庭、行間、大
都.

척택(尺澤)、소해(小海)、지구(支溝)、전곡(前谷)、족삼리(足三里)、삼음교
(三陰交)、곡천(曲泉)、조해(照海)、태계(太谿)、내정(內庭)、행간(行間)、
대도(大都).

107. **한궐(寒厥)** : 원양(元陽)이 손상되어 경락으로 스미지 못하여 음기만 흘로
남아 손발이 다 싸늘해진 것이다. ←

108. **부류(復溜)** : 원문에는 “복류(伏溜)”로 되어 있다. 현재는 “부류”로 읽으
나 당시에는 “복류”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

1.20. 腸痔大便部 | 장치대변부

1.20.1. 腸鳴 | 장에서 소리가 나는 것

三里、陷谷、公孫、太白、章門、三陰交、水分、神闕、胃俞、三焦俞.

족삼리(足三里)、함곡(陷谷)、공손(公孫)、태백(太白)、장문(章門)、삼음교
(三陰交)¹⁰⁹、수분(水分)、신궐(神闕)、위수(胃俞)、삼초수(三焦俞).

1.20.2. 腸鳴而泄 | 장에서 소리가 나고 설사하는 것

神闕、水分、三間.

신궐(神闕)、수분(水分)、삼간(三間).

1.20.3. 食泄 |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 것

上廉、下廉.

상렴(上廉)、하렴(下廉).

1.20.4. 暴泄 | 급박하게 설사하는 것

隱白.

은백(隱白).

1.20.5. 洞泄 | 먹으면 바로 설사하는 것

腎俞.

신수(腎俞).

1.20.6. 潤泄 | 대변이 물은 것

太冲、神闕、三陰交.

| 태충(太冲)、신궐(神闕)、삼음교(三陰交).

1.20.7. 泄不止 |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

神闕.

| 신궐(神闕).

1.20.8. 出泄不覺 | 자신도 모르게 설사가 새어 나오는 것

中腕.

| 중완(中腕).

1.20.9. 痢疾 | 이질(痢疾)

曲泉、太谿、太冲、丹田、脾俞、小腸俞.

| 곡천(曲泉)、태계(太谿)、태충(太冲)、단전(丹田)、비수(脾俞)、소장수(小腸俞).

1.20.10. 便血 | 대변에 피가 섞인 것

承山、復溜、太冲、太白.

| 승산(承山)、부류(復溜)、태충(太冲)、태백(太白).

1.20.11. 大便不禁 | 대변을 참지 못하는 것

丹田、大腸俞.

단전(丹田)、대장수(大腸俞).

1.20.12. 大便不通 |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것

承山、太谿、照海、太冲、小腸俞、太白、章門、膀胱俞.

승산(承山)、태계(太谿)、조해(照海)、태충(太冲)、소장수(小腸俞)、태백
(太白)、장문(章門)、방광수(膀胱俞).

1.20.13. 大便下重 | 대변 볼 때 뒤가 무거운 것

承山、解谿、太白、帶脉.

승산(承山)、해계(解谿)、태백(太白)、대맥(帶脉).

1.20.14. 閉塞 | 대변이 막힌 것

照海、太白、章門.

조해(照海)、태백(太白)、장문(章門).

1.20.15. 泄瀉 | 설사

曲泉、陰陵、然谷、束骨、隱白、三焦俞、中脘、天樞、脾俞、腎俞、大腸俞.

곡천(曲泉)、음릉천(陰陵泉)、연곡(然谷)、속골(束骨)、은백(隱白)、삼초수(三焦俞)、중완(中脘)、천추(天樞)、비수(脾俞)、신수(腎俞)、대장수(大腸俞).

1.20.16. 五痔 | 오치 110

委中、承山、飛揚、陽輔、復溜、太冲、俠谿、氣海、會陰、長強.

위중(委中)、승산(承山)、비양(飛揚)、양보(陽輔)、부류(復溜)、태충(太冲)、협계(俠谿)、기해(氣海)、회음(會陰)、장강(長強).

1.20.17. 腸風 | 장풍

尾窮骨盡處, 灸百壯卽愈.

꼬리뼈가 끝나는 곳에 뜸 100장을 뜨면 즉시 낫는다.

1.20.18. 大小便不通 | 대소변이 막힌 것

胃脘(炙三百壯).

위완(胃脘)(뜸 300장).

1.20.19. 腸癰痛 | 장옹으로 아픈 것

太白、陷谷、大腸俞.

태백(太白)、함곡(陷谷)、대장수(大腸俞).

1.20.20. 脱肛 | 탈항

百會、尾窮(七壯)、臍中(隨年壯).

백회(百會)、미궁(尾窮)(7장)、제중(臍中)(나이 수대로 뜰을 뜯다).

1.20.21. 血痔泄復腫 | 혈치가 줄었다가 다시 붓는 것

承山、復溜.

승산(承山)、부류(復溜).

1.20.22. 痘疾骨疽蝕 | 치질로 뼈까지 침식된 것

承山、商丘.

승산(承山)、상구(商丘).

1.20.23. 久痔 | 오래 된 치질

三百(在掌後四寸)、承山、長強.

삼백(三百)(손바닥에서 위로 4촌)、승산(承山)、장강(長強).

¹⁰⁹. 삼음교(三陰交) : 원문에는 ‘二陰交’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대교 본과 중국판본에 준하여 고쳤다. ↪

¹¹⁰. 오치(五痔) : 모(牡), 빙(牝), 맥(脈), 장(腸) 혈치(血痔)의 다섯 가지 종류를 말한다. ↪

1.21. 陰疝小便部 | 음산소변부

1.21.1. 寒疝腹痛 | 한疝¹¹¹으로 배가 아픈 것

陰市、太谿、肝俞.

음시(陰市)、태계(太谿)、간수(肝俞).

1.21.2. 瘡瘕 | 산가¹¹²

陰蹻(此二穴在足內踝下陷中, 主卒疝小腹疼痛, 左取右右取左, 灸三壯. 女人月水不調亦灸).

음교(陰蹻)(양쪽의 음교(陰蹻)혈은 발 안쪽 복사뼈 아래의 오목한 곳이며, 갑작스런 산기(疝氣)나 소복통(小腹痛)을 치료하는데,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에,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에 뜸 3장을 뜯다. 여자의 월경이 고르지 못한 데에도 뜸을 뜯다).

1.21.3. 卒疝 | 갑작스런 산기

丘墟、大敦、陰市、照海.

구허(丘墟)、대돈(大敦)、음시(陰市)、조해(照海).

1.21.4. 痘癬 | 현벽¹¹³

太谿、三里、陰陵、曲泉、脾俞、三陰交.

태계(太谿)、족삼리(足三里)、음릉천(陰陵泉)、곡천(曲泉)、비수(脾俞)、삼음교(三陰交).

1.21.5. 癰疝 | 퇴산¹¹⁴

曲泉、中封、太冲、商丘.

곡천(曲泉)、중봉(中封)、태충(太冲)、상구(商丘).

1.21.6. 瘡瘕 | 산가

陰陵、太谿、丘墟、照海.

음릉천(陰陵泉)、태계(太谿)、구허(丘墟)、조해(照海).

1.21.7. 腸癖, 瘡疝, 小腸痛 | 장벽¹¹⁵, 퇴산¹¹⁶, 소장통¹¹⁷

通谷(灸百壯)、束骨、大腸俞.

통곡(通谷)(뜸을 백장 뜯다)、속골(束骨)、대장수(大腸俞).

1.21.8. 偏墜木腎 | 편추¹¹⁸와 목신¹¹⁹

歸來、大敦、三陰交.

귀래(歸來)、대돈(大敦)、삼음교(三陰交).

1.21.9. 痙癖膀胱小腸 | 현벽, 방광기¹²⁰, 소장기

燔針刺五樞. 氣海、三里、三陰交、氣門(百壯).

번침(燔針)으로 오추(五樞)를 놓는다. 기해(氣海)、족삼리(足三里)、삼음교
(三陰交)¹²¹、기문(氣門)(100장).

1.21.10. 陰痛 | 음기가 아픈 것

太冲、大敦.

태충(太冲)、대돈(大敦).

1.21.11. 陰腎偏大小便數, 或陰入腹 | 한쪽 음낭이 커지면서 대소변을 자주보거나 음낭이 복강으로 들어간 것

大敦.

대돈(大敦).

1.21.12. 陰腫 | 음낭이 부은 것

曲泉、太谿、大敦、腎俞、三陰交.

곡천(曲泉)、태계(太谿)、대돈(大敦)、신수(腎俞)、삼음교(三陰交).

1.21.13. 陰莖痛 | 음경(陰莖)이 아픈 것

陰陵、曲泉、陰谷、行間、太冲、三陰交、大敦、太谿、腎俞、中極.

음릉천(陰陵泉)、곡천(曲泉)、음곡(陰谷)、행간(行間)、태충(太冲)、삼음교(三陰交)、대돈(大敦)、태계(太谿)、신수(腎俞)、중극(中極).

1.21.14. 陰莖痛, 陰汗濕 | 음경이 아프고 음낭에 땀이 나서 습한 것

太谿、魚際、中極、三陰交.

태계(太谿)、어제(魚際)、중극(中極)、삼음교(三陰交).

1.21.15. 腎藏虛冷, 日漸羸瘦, 勞傷陰疼, 凜凜少氣, 遺精 | 신장의 허랭으로 날이 갈 수록 마르는 것, 과로로 음기가 아프면서 춥고 기운 없는 것, 정액이 새는 것

腎俞.

| 신수(腎俞).

1.21.16. 轉胞不溺淋瀝 | 전포¹²²로 소변을 못 보거나 잘 나오지 않는 것

關元.

| 관원(關元).

1.21.17. 遺精白濁 | 정액이 새거나 희고 탁한 것

腎俞、關元、三陰交.

| 신수(腎俞)、관원(關元)、삼음교(三陰交).

1.21.18. 夢遺失精 | 꿈을 꾸면서 정액을 배설하는 것

曲泉(百壯)、中封、太冲、至陰、膈俞、脾俞、三陰交、腎俞、關元、三焦俞.

| 곡천(曲泉)(100장)、중봉(中封)、태충(太冲)、지음(至陰)、격수(膈俞)、비수(脾俞)、삼음교(三陰交)、신수(腎俞)、관원(關元)、삼초수(三焦俞).

1.21.19. 寒熱氣淋 | 오한과 발열이 있으면서 기림¹²³이 된 것

陰陵.

| 음릉천(陰陵泉).

1.21.20. 淋癃 | 소변이 뚝뚝 떨어지면서 나오거나 전혀 안 나오는 것

曲泉、然谷、陰陵、行間、大敦、小腸俞、湧泉、氣門(百壯).

곡천(曲泉)、연곡(然谷)、음릉천(陰陵泉)、행간(行間)、대돈(大敦)、소장수(小腸俞)、용천(湧泉)、기문(氣門)(100장).

1.21.21. 小便黃赤 | 소변이 누렇거나 붉은 것

陰谷、太谿、腎俞、氣海、膀胱俞、關元.

음곡(陰谷)、태계(太谿)、신수(腎俞)、기해(氣海)、방광수(膀胱俞)、관원(關元).

1.21.22. 小便五色 | 소변이 다섯 색깔을 띠는 것

委中、前谷.

위중(委中)、전곡(前谷).

1.21.23. 小便不禁 |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것

承漿、陰陵、委中、太冲、膀胱俞、大敦.

승장(承漿)、음릉천(陰陵泉)、위중(委中)、태충(太冲)、방광수(膀胱俞)、대돈(大敦).

1.21.24. 小便赤如血 | 소변이 피처럼 붉은 것

大陵、關元.

대릉(大陵)、관원(關元).

1.21.25. 婦人胞轉, 不利小便 | 부인의 전포증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

灸關元(二七壯).

관원(關元)에 뜸을 뜯다(14장).

1.21.26. 遺溺 | 소변이 새는 것

神門、魚際、太沖、大敦、關元.

신문(神門)、어제(魚際)、태충(太沖)、대돈(大敦)、관원(關元).

1.21.27. 陰瘻丸蹇 | 음경이 일어서지 않고 음낭이 오그라드는 것

陰谷、陰交、然谷、中封、太沖.

음곡(陰谷)、삼음교(三陰交)、연곡(然谷)、중봉(中封)、태충(太沖).

1.21.28. 陰挺出 | 음문으로 자궁이 빠져나오는 것

太沖、少府、照海、曲泉.

태충(太沖)、소부(少府)、조해(照海)、곡천(曲泉).

1.21.29. 痘氣偏墜 | 산기로 한쪽 음낭이 붓고 처진 것

以小繩量患人口兩角爲一分, 作三摺成三角如△樣, 以一角安臍心, 兩角在臍下兩傍盡處是穴. 患左灸右, 患右灸左, 二七壯立愈, 二穴俱灸亦可.

얇은 끈으로 환자의 양쪽 입가를 잣 것을 접어 △모양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그 한쪽 각을 배꼽 중앙에 놓고 나머지 양쪽 각을 배꼽 아래 양방으로 두었을 때의 양 끝점이다. 왼쪽에 병이 있으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병이 있으면 왼쪽에 뜰을 뜨며, 14장을 뜨면 바로 낫고 두 혈 모두 뜰을 떠도 괜찮다.

1.21.30. 膀胱氣攻兩脅臍下, 陰腎入腹 | 방광기가 양 옆구리와 배꼽 아래에 미치거나 음낭이 복강 안으로 들어간 것

灸臍下六寸兩傍各一寸, 烊如小麥大, 患左灸右, 患右灸左.

배꼽 6촌 아래에서 양쪽으로 각 1촌 부위에 뜰을 뜨는데, 심지는 밀알크기로 하고 왼쪽에 병이 있으면 오른쪽에, 오른쪽에 병이 있으면 왼쪽에 뜰을 뜯다.

- 111. **한산(寒疝)** : 음낭이 돌처럼 단단해지면서 아픈 것이다. ↪
- 112. **산가(疝瘕)** : 《내경》에 따르면 비(脾)의 병이 신(腎)으로 전변되면서 습(濕)과 결합해서 발생한 것이다. 아랫배에 열이 나오고 아프며 요도에서 점액이 나오기도 한다. ↪
- 113. **현벽(痃癖)** : 현(痃)은 배꼽 근처 뱃속에 좌우로 1줄기씩의 근맥이 당기고 아픈 것으로 마치 손가락이나 활시위 같은 모양새를 이룬 것이다. 벽(癖)은 양 쪽 옆구리에 치우쳐 있어서 붙은 이름이며 간혹 통증이 있다. ↪
- 114. **퇴산(癰疝)** : 음낭이 뒷박만하게 커지는 산기(疝氣)의 일종이다. ↪
- 115. **장벽(腸癖)** : 보통은 ‘장벽(腸癖)’으로 쓴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한다. ↪
- 116. **퇴산(瘻疝)** : 앞의 퇴산(癰疝)과 같은 병이다. ↪
- 117. **소장통(小腸痛)** : 소장기(小腸氣), 혹은 소장기통(小腸氣痛)이라고도 한

다. 배꼽 아래가 갑자기 매우 아프면서 하리까지 뻗치고 고환이 당기며 아픈 증상이다. ↵

118. 편추(偏墜) : 한쪽 고환이 붓고 처지면서 아픈 것이다. ↵

119. 목신(木腎) : 《동의보감》에서는 두 종류의 목신(木腎)을 기록하였는데, 고환이 몹시 붓고 아프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말하거나 음경이 단단하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통증이 없는 것을 말한다. ↵

120. 방광기(膀胱氣) : 퇴산(癰瘍)을 말한다. ↵

121. 삼음교(三陰交) : 《초간본》의 원문에는 “二陰交”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두 대교본에 준하여 고쳤다. ↵

122. 전포(轉胞) : 배꼽 아래가 몹시 아프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대개 소변을 억지로 참거나 소변이 급한 상태에서 빨리 달린 경우, 과식 후에 소변을 참거나 말을 달린 경우, 소변을 참은 상태로 성교를 한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

123. 기림(氣淋) : 소변이 뚝뚝 떨어지면서 끝나지 않고 시원치 않으면서 아랫 배가 불러오고 그득한 증상이다. ↵

1.22. 頭面部 | 두면부

1.22.1. 頭痛 | 두통

百會、上星、風府、風池、攢竹、絲竹空、小海、陽谿、大陵、後谿、合谷、腕骨、中冲、中渚、崑崙、陽陵.

백회(百會)、상성(上星)、풍부(風府)、풍지(風池)、찬죽(攢竹)、사죽공(絲竹空)、소해(小海)、양계(陽谿)、대릉(大陵)、후계(後谿)、합곡(合谷)、완골(腕骨)、중충(中冲)、중저(中渚)、곤륜(崑崙)、양릉천(陽陵泉).

1.22.2. 頭強痛 | 머리가 뻣뻣하면서 아픈 것

頰車、風池、肩井、少海、後谿、前谷.

협거(頰車)、풍지(風池)、견정(肩井)、소해(少海)、후계(後谿)、전곡(前谷).

1.22.3. 頭偏痛 | 머리가 한쪽으로 아픈 것

頭維.

두유(頭維).

1.22.4. 腦瀉 | 콧물에 고름이 섞인 것

顱會、通谷.

신회(顱會)、통곡(通谷).

1.22.5. 頭風 | 두풍¹²⁴

上星、前頂、百會、陽谷、合谷、關冲、崑崙、俠谿.

상성(上星)、전정(前頂)、백회(百會)、양곡(陽谷)、합곡(合谷)、관충(關冲)
、곤륜(崑崙)、협계(俠谿).

1.22.6. 腦痛 | 뇌통

上星、風池、腦空、天柱、少海.

상성(上星)、풍지(風池)、뇌공(腦空)、천주(天柱)、소해(少海).

1.22.7. 面目赤 | 두풍으로 얼굴과 눈이 붉어지는 것

通里、解谿.

통리(通里)、해계(解谿).

1.22.8. 牽引腦項痛 | 두풍으로 머리와 뒷목까지 당기고 아픈 것

上星、百會、合谷.

상성(上星)、백회(百會)、합곡(合谷).

1.22.9. 偏正頭風 | 편정두통

百會、前頂、神庭、上星、絲竹空、風池、合谷、攢竹、頭維.

백회(百會)、전정(前頂)、신정(神庭)、상성(上星)、사죽공(絲竹空)、풍지
(風池)、합곡(合谷)、찬죽(攢竹)、두유(頭維).

1.22.10. 醉後頭風 | 술에 취한 후 생긴 두풍

印堂、攢竹、三里.

인당(印堂)、찬죽(攢竹)、족삼리(足三里).

1.22.11. 頭風眩暈 | 두풍으로 어지러운 것

合谷、豐隆、解谿、風池. 垂手着兩腿, 灸虎口內.

합곡(合谷)、풍릉(豐隆)、해계(解谿)、풍지(風池). 팔을 늘어뜨려 양넓적다
리에 붙이고 호구(虎口)혈¹²⁵ 안쪽에 뜰을 뜯는다.

1.22.12. 面腫 | 얼굴이 붓는 것

水溝、上星、攢竹、支溝、間使、中渚、液門、解谿、行間、厲兌、噫嘻、天牖
、風池.

수구(水溝)、상성(上星)、찬죽(攢竹)、지구(支溝)、간사(間使)、중저(中渚)
、액문(液門)、해계(解谿)、행간(行間)、여태(厲兌)、의희(噫嘻)、천유(天
牖)、풍지(風池).

1.22.13. 面痒腫 | 얼굴이 가려우면서 붓는 것

迎香、合谷.

영향(迎香)、합곡(合谷).

1.22.14. 頭項俱痛 | 머리와 뒷목이 모두 아픈 것

百會、後頂、合谷.

백회(百會)、후정(後頂)、합곡(合谷).

1.22.15. 頭風冷淚出 | 두풍에 냉루가 나오는 것

攢竹、合谷.

찬죽(攢竹)、합곡(合谷).

1.22.16. 頭痛項強重不能舉, 脊反折不能反顧 |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무거워 들지 못하며, 척추가 뒤로 휘면서 좌우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

承漿先瀉後補. 風府.

승장(承漿)을 사(瀉)한 후에 보(補)한다. 풍부(風府).

1.22.17. 腦昏目赤 | 머리가 아득하고 눈이 붉은 것

攢竹.

찬죽(攢竹).

1.22.18. 面腫項強, 鼻生瘡肉 | 얼굴이 붓고 뒷목이 뻣뻣한 것, 코에 덧살이 생기는 것

承漿(三分, 推上復下).

승장(承漿)(3푼을 놓되 위로 밀었다가 다시 아래로 만다).

1.22.19. 頭旋 |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目窓、百會、申脉、至陰、絡却.

목창(目窓)、백회(百會)、신맥(申脉)、지음(至陰)、낙각(絡却).

1.22.20. 頭腫 | 머리가 붓는 것

上星、前頂、大陵(出血)、公孫.

| 상성(上星)、전정(前頂)、대릉(大陵)(출혈시킨다)、공손(公孫).

1.22.21. 頰腫 | 뺨이 붓는 것

頰車.

| 협거(頰車).

1.22.22. 頤頷腫 | 턱이 붓는 것

陽谷、腕骨、前谷、商陽、丘墟、俠谿、手三里.

| 양곡(陽谷)、완골(腕骨)、전곡(前谷)、상양(商陽)、구허(丘墟)、협계(俠谿)
、수삼리(手三里).

1.22.23. 風動如蟲行 | 풍으로 인해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迎香.

| 영향(迎香).

1.22.24. 頸項強急 | 목줄기가 앞뒤로 모두 굳어 뻣뻣한 것

風府.

| 풍부(風府).

1.22.25. 頭目浮腫 | 머리와 눈이 붓는 것

目窓、陷谷.

복창(目窓)、함곡(陷谷).

1.22.26. 眼瞼瞼動 | 눈꺼풀이 떨리는 것

頭維、攢竹.

두유(頭維)、찬죽(攢竹).

1.22.27. 腦風而疼 | 뇌에 풍이 들어 아픈 것

少海.

소해(少海).

1.22.28. 頭重身熱 | 머리가 무겁고 몸에 열이 나는 것

腎俞.

신수(腎俞).

1.22.29. 眉後痛 | 눈썹 끄리부분이 아픈 것

肝俞.

간수(肝俞).

1.22.30. 毛髮焦脫 |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것

下廉.

하렴(下廉).

1.22.31. 面浮腫 | 얼굴이 붓는 것

厲兌.

| 여태(厲兌).

1.22.32. 面腫 | 얼굴이 붓는 것

灸水分.

| 수분(水分)에 뜸을 뜯다.

1.22.33. 頭目眩疼, 皮腫生白屑 | 머리와 눈이 어질하면서 아프고, 피부가 부어오르면서 하얗게 일어나는 것

(灸)顛會.

| (뜸)신회(顛會).

124. **두풍(頭風)** : 평소 담음(痰飲)이 있거나 머리를 감다가 한사(寒邪)를 받았을 때, 혹은 바람을 오래 맞아서 적풍(賊風)이 침범하여 생긴다. 머리나 목, 얼굴에 갑각이 둔해지거나 머리가 무거우면서 어지러운 등의 증상이 있다. ↵

125. **호구(虎口)** : 경외혈(經外穴)이며 《천금요방(千金要方)》에 나온다.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이며 합곡혈 앞의 적백육제(赤白肉際)에 있다. ↵

1.23. 咽喉部 | 인후부

1.23.1. 喉痺 | 후두가 붓고 아픈 것

頰車、合谷、少商、尺澤、經渠、陽谿、大陵、二間、前谷.

협거(頰車)、합곡(合谷)、소상(少商)、척택(尺澤)、경거(經渠)、양계(陽谿)
、대릉(大陵)、이간(二間)、전곡(前谷).

1.23.2. 鼓額 | 오한으로 위아래 이를 딱딱 마주치는 것

少商.

소상(少商).

1.23.3. 咽中如鯁 |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한 것

間使、三間.

간사(間使)、삼간(三間).

1.23.4. 咽腫 | 목이 붓는 것

中渚、太谿.

중저(中渚)、태계(太谿).

1.23.5. 咽外腫 | 목구멍 밖이 붓는 것

液門.

액문(液門).

1.23.6. 咽痛 | 목구멍이 아픈 것

風府.

풍부(風府).

1.23.7. 噫食不下 |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

炙中.

단중(宣中)에 뜸을 뜯다.

1.23.8. 咽中閉 | 목구멍이 막힌 것

曲池、合谷.

곡지(曲池)、합곡(合谷).

1.23.9. 咽喉腫痛閉塞, 水粒不下 | 목구멍이 붓고 아프면서 막혀서 물 한 방울 삼키지 못하는 것

合谷、少商. 兼以三稜針, 刺手大指背頭節上甲根下, 排刺三針.

합곡(合谷)、소상(少商). 겹하여 삼릉침(三稜針)으로 엄지손가락 손등 쪽 끝 마디의 손톱 밑단을 일렬로 세 군데 찌른다.

1.23.10. 雙鵝 | 양쪽 후두가 붓는 것

玉液、金津、少商.

옥액(玉液)、금진(金津)、소상(少商).

1.23.11. 單鵝 | 한쪽 후두만 붓는 것

少商、合谷、廉泉.

소상(少商)、합곡(合谷)、염천(廉泉).

1.23.12. 咽喉腫閉甚者 | 목이 붓고 막힌 증상이 심한 것

以細三棱針藏於筆管中，戲言以沒藥點腫漚處，乃刺之，否則病人恐懼不能愈疾。

가는 삼릉침(三稜針)을 붓대통 속에 숨긴 채 이런저런 말로 주의를 돌리면서, 몰약(沒藥)을 붓고 아픈 곳에 바른 후에 침을 찌르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자가 두려워하므로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1.24. 耳目部 | 귀와 눈

1.24.1. 耳鳴 |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

百會、聽會、聽宮、耳門、絡却、陽谿、陽谷、前谷、後谿、腕骨、中渚、液門、商陽、腎俞.

백회(百會)、청회(聽會)、청궁(聽宮)、이문(耳門)、낙각(絡却)、양계(陽谿)、양곡(陽谷)、전곡(前谷)、후계(後谿)、완골(腕骨)、중저(中渚)、액문(液門)、상양(商陽)、신수(腎俞).

1.24.2. 瞬生瘡有濃汁 | 귀의 염증으로 헐고 놓이 나오는 것

耳門、醫風、合谷.

이문(耳門)、예풍(醫風)、합곡(合谷).

1.24.3. 重聽無所聞 | 귀가 어둡거나 안 들리는 것

耳門、風池、俠谿、翳風、聽會、聽宮.

이문(耳門)、풍지(風池)、협계(俠谿)、예풍(翳風)、청회(聽會)、청궁(聽宮).

1.24.4. 目赤 | 눈이 붉은 것

目窓、大陵、合谷、液門、上星、攢竹、絲竹空.

목창(目窓)、대릉(大陵)、합곡(合谷)、액문(液門)、상성(上星)、찬죽(攢竹)、사죽공(絲竹空).

1.24.5. 目風赤爛 | 풍으로 인해 눈이 붉어지며 짓무르는 것

陽谷.

양곡(陽谷).

1.24.6. 赤翳 | 붉은 예막이 눈동자를 가리는 것

攢竹、後谿、液門.

찬죽(攢竹)、후계(後谿)、액문(液門).

1.24.7. 目赤膚翳 | 눈이 붉어지면서 예막이 덮는 것

太淵、俠谿、攢竹、風池.

태연(太淵)、협계(俠谿)、찬죽(攢竹)、풍지(風池).

1.24.8. 目翳膜 | 눈에 예막이 생긴 것

合谷、臨泣、角孫、液門、後谿、中渚、睛明.

합곡(合谷)、두임읍(頭臨泣)、각손(角孫)、액문(液門)、후계(後谿)、중저(中渚)、정명(睛明).

1.24.9. 白翳 | 흰 예막이 생긴 것

臨泣、肝俞.

두임읍(頭臨泣)、간수(肝俞).

1.24.10. 睛痛 | 눈동자가 아픈 것

內庭、上星.

내정(內庭)、상성(上星).

1.24.11. 冷淚 | 냉루 ¹²⁶

晴明、臨泣、風池、腕骨.

정명(晴明)、두임읍(頭臨泣)、풍지(風池)、완골(腕骨).

1.24.12. 迎風有淚 | 바람을 맞아 눈물이 나는 것

頭維、晴明、臨泣、風池.

두유(頭維)、정명(晴明)、두임읍(頭臨泣)、풍지(風池).

1.24.13. 目淚出 |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

臨泣、百會、液門、後谿、前谷、肝俞.

두임읍(頭臨泣)、백회(百會)、액문(液門)、후계(後谿)、전곡(前谷)、간수(肝俞).

1.24.14. 風生卒生醫膜, 兩目疼痛不可忍者 | 풍이 생겨 갑자기 예막이 생기거나 두 눈이 참을 수 없이 아픈 것

晴明. 手中指本節間尖上, 三壯.

정명(晴明). 가운데 손가락 본절(本節) 중간의 솟은 부분에 3장을 뜯다.

1.24.15. 靑盲無所見 | 곁으로는 정상인데 눈이 안 보이는 것

肝俞、商陽(左取右, 右取左).

간수(肝俞)、상양(商陽)(왼쪽에 병이 있으면 오른쪽을 치하고, 오른쪽에 병이 있으면 왼쪽을 치한다).

1.24.16. 眼睫毛倒 |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것

絲竹空.

사죽공(絲竹空).

1.24.17. 目眥急痛 | 눈 가장자리가 갑자기 아픈 것

三間.

삼간(三間).

1.24.18. 目昏 | 눈이 흐릿한 것

頭維、攢竹、睛明、目窓、百會、風府、風池、合谷、肝俞、腎俞、絲竹空.

두유(頭維)、찬죽(攢竹)、정명(睛明)、목창(目窓)、백회(百會)、풍부(風府)
、풍지(風池)、합곡(合谷)、간수(肝俞)、신수(腎俞)、사죽공(絲竹空).

1.24.19. 目眩 | 눈이 어질한 것

臨泣、風府、風池、陽谷、中渚、液門、魚際、絲竹空.

두임읍(頭臨泣)、풍부(風府)、풍지(風池)、양곡(陽谷)、중저(中渚)、액문
(液門)、어제(魚際)、사죽공(絲竹空).

1.24.20. 目痛 | 눈이 아픈 것

陽谿、二間、大陵、三間、前谷、上星.

양계(陽谿)、이간(二間)、대릉(大陵)、삼간(三間)、전곡(前谷)、상성(上星).

1.24.21. 風目眶爛, 風淚出 | 풍으로 인해 눈자위가 짓무르거나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것

頭維、顴髎(在面頤骨下原陷中, 針八分).

두유(頭維)、권료(顴髎)(얼굴의 이골(頤骨) 아래 오목한 곳이며 침은 8푼을 놓는다) ¹²⁷.

1.24.22. 眼痒眼疼 | 눈이 가렵고 아픈 것

光明(攢竹也)瀉. 五會.

광명(光明)(사죽공(攢竹也)이다) ¹²⁸을 사(瀉)한다. 오회(五會).

1.24.23. 目生翳 | 눈에 예막이 생긴 것

肝俞、命門、瞳子竅(在目外眥五分, 得氣乃瀉)、合谷、商陽.

간수(肝俞)、명문(命門)、동자교(瞳子竅)(눈자위 바깥쪽으로 5푼에 있으며 득기(得氣)가 되면 사(瀉)한 것이다)、합곡(合谷)、상양(商陽).

1.24.24. 小兒雀目, 夜不見物 | 어린 아이가 밤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灸手大指甲後一寸內廉, 橫紋頭白肉際各一壯.

엄지손가락 손톱에서 뒤로 1촌 되는 곳의 내측이며, 가로금이 시작되는 곳의 적백육제(赤白肉際)에 뜸을 각 1장씩 둔다.

126. **냉루(冷淚)** :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

127. : 소장자가 덧붙인 주석이다. [←](#)

128. : 소장자가 덧붙인 주석이다. [←](#)

1.25. 鼻口部 | 비구부

1.25.1. 鼻有瘻肉 | 코에 덧살이 난 것

迎香.

영향(迎香).

1.25.2. 峩血 | 코피

風府、曲池、合谷、三間、二間、後谿、前谷、委中、申脉、崑崙、厲兌、上星、隱白.

풍부(風府)、곡지(曲池)、합곡(合谷)、삼간(三間)、이간(二間)、후계(後谿)
、전곡(前谷)、위중(委中)、신맥(申脉)、곤륜(崑崙)、여태(厲兌)、상성(上
星)、은백(隱白).

1.25.3. 勸衄 | 맑은 콧물이 나면서 코피가 나는 것

風府、二間、迎香.

풍부(風府)、이간(二間)、영향(迎香).

1.25.4. 鼻塞 | 코가 막힌 것

上星、臨泣、百會、前谷、厲兌、合谷、迎香.

상성(上星)、두임읍(頭臨泣)、백회(百會)、전곡(前谷)、여태(厲兌)、합곡
(合谷)、영향(迎香).

1.25.5. 鼻流清涕 |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

人中、上星、風府.

인중(人中)、상성(上星)、풍부(風府).

1.25.6. 腦瀉鼻中臭涕出 | 농이 섞여 냄새나는 콧물이 나오는 것

曲差、上星.

곡차(曲差)、상성(上星).

1.25.7. 鼻衄 | 코피

上星(灸二七壯)、絶骨、頤會. 又一法, 灸項後髮際兩筋間宛宛中.

상성(上星)(뜸 14장)、절골(絶骨)、신회(頤會).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뒷목의 머리카락 경계에 있는 양쪽 근육 사이 오목한 곳에 뜸을 뜯다.

1.25.8. 久病流涕不禁 | 콧물이 오랫동안 그치지 않는 것

百會(灸).

백회(百會)(뜸).

1.25.9. 口乾 | 입이 마르는 것

尺澤、曲澤、大陵、二間、少商、商陽.

척택(尺澤)、곡택(曲澤)、대릉(大陵)、이간(二間)、소상(少商)、상양(商陽).

1.25.10. 咽乾 | 목구멍이 마르는 것

太淵、魚際.

태연(太淵)、어제(魚際).

1.25.11. 消渴 | 소갈

水溝、承漿、金津、玉液、曲池、勞宮、太冲、行間、商丘、然谷、隱白(百日已上者, 切不可灸).

수구(水溝)、승장(承漿)、금진(金津)、옥액(玉液)、곡지(曲池)、노궁(勞宮)
· 태충(太冲)、행간(行間)、상구(商丘)、연곡(然谷)、은백(隱白)(백일 이상
된 자에게는 절대로 뜸을 떠서는 안 된다).

1.25.12. 唇乾有涎 | 입술은 마르면서 침이 고이는 것

下廉.

하렴(下廉).

1.25.13. 舌乾涎出 | 혀는 마르는데 침을 흘리는 것

復溜.

부류(復溜).

1.25.14. 唇乾飲不下 | 입술은 마르는데 물을 삼키지 못하는 것

三間、少商.

삼간(三間)、소상(少商).

1.25.15. 唇動如蟲行 | 입술이 떨리면서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水溝.

수구(水溝).

1.25.16. 唇腫 | 입술이 붓는 것

迎香.

영향(迎香).

1.25.17. 口喎眼喎 | 입과 눈이 한 쪽으로 돌아가는 것

頰車、水溝、列缺、太淵、合谷、二間、地倉、絲竹空.

협거(頰車)、수구(水溝)、열결(列缺)、태연(太淵)、합곡(合谷)、이간(二間)
、지창(地倉)、사죽공(絲竹空).

1.25.18. 口禁 | 입을 굳게 다물고 벌리지 못하는 것

頰車、支溝、外關、列缺、內庭、厲兌.

협거(頰車)、지구(支溝)、외관(外關)、열결(列缺)、내정(內庭)、여태(厲兌).

1.25.19. 失音不語 |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말을 못하는 것

間使、支溝、靈道、魚際、合谷、陰谷、復溜、然谷.

간사(間使)、지구(支溝)、영도(靈道)、어제(魚際)、합곡(合谷)、음곡(陰谷)
、부류(復溜)、연곡(然谷).

1.25.20. 舌緩 | 혀가 늘어지는 것

太淵、合谷、沖陽、內庭、崑崙、三陰交、風府.

태연(太淵)、합곡(合谷)、충양(沖陽)、내정(內庭)、곤륜(崑崙)、삼음교(三陰交)、풍부(風府).

1.25.21. 舌強 | 혀가 굳어지는 것

痙門、少商、魚際、二間、中冲、陰谷、然谷.

아문(痙門)、소상(少商)、어제(魚際)、이간(二間)、중충(中冲)、음곡(陰谷)
、연곡(然谷).

1.25.22. 舌黃 | 혀가 누런 것

魚際.

어제(魚際).

1.25.23. 齒寒 | 이가 시린 것

少海.

소해(少海).

1.25.24. 齒痛 | 이가 아픈 것

商陽.

상양(商陽).

1.25.25. 齒齷惡風 | 충치가 생겨서 바람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것

合谷、厲兌.

합곡(合谷)、여태(厲兌).

1.25.26. 齒齲 | 충치

少海、小海、陽谷、合谷、液門、二間、內庭、厲兌.

소해(少海)、소해(小海)、양곡(陽谷)、합곡(合谷)、액문(液門)、이간(二間)
、내정(內庭)、여태(厲兌).

1.25.27. 斷痛 | 잇몸이 아픈 것

角孫、小海.

각손(角孫)、소해(小海).

1.25.28. 舌齒腐 | 혀와 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

承漿、勞宮(各一壯).

승장(承漿)、노궁(勞宮)(각 1장).

1.25.29. 牙疼 | 어금니가 아픈 것

曲池、少海、陽谷、陽谿、二間、液門、頰車、內庭、呂細(在內踝骨尖上, 灸二
七壯).

곡지(曲池)、소해(少海)、양곡(陽谷)、양계(陽谿)、이간(二間)、액문(液門)
、협거(頰車)、내정(內庭)、여세(呂細)(안쪽 복사뼈의 솟은 뼈 위에 뜸 14
장).

1.25.30. 上牙疼 | 위의 어금니가 아픈 것

人中、太淵、呂細. 灸臂上起肉中, 五壯.

인중(人中)、태연(太淵)、여세(呂細). 위팔의 살이 솟은 곳 위에 뜰 5장을 뜯다.

1.25.31. 下牙疼 | 아래 어금니가 아픈 것

龍玄(在側腕交叉脉)、承漿、合谷. 腕上五寸兩筋中間, 灸五壯.

용현(龍玄)(손목 측면의 교차맥(交叉脉))、승장(承漿)、합곡(合谷). 손목에 서 위로 5촌 올라가서 두 힘줄 사이에 뜰 4장을 뜯다.

1.25.32. 不能嚼物 |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것

角孫.

각손(角孫).

1.25.33. 牙疳蝕爛生瘡 | 어금니가 썩고 짓물려 헐은 것

承漿(炷如小筋頭大, 灸七壯).

승장(承漿)(심지는 작은 젓가락 머리 크기로 하여 7장을 뜯다).

1.26. 胸背脅部 | 흉배협부

1.26.1. 胸滿 | 가슴이 그득한 것

經渠、陽谿、後谿、三間、間使、陽陵、三里、曲泉、足臨泣.

경거(經渠)、양계(陽谿)、후계(後谿)、삼간(三間)、간사(間使)、양릉천(陽陵泉)、족삼리(足三里)、곡천(曲泉)、족임읍(足臨泣).

1.26.2. 胸痺 |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픈 것

太淵.

태연(太淵).

1.26.3. 胸悶悶 | 가슴에서 팔까지 답답한 것

肩井.

견정(肩井).

1.26.4. 胸脇痛 | 가슴과 옆구리가 아픈 것

天井、支溝、間使、大陵、三里、太白、丘墟、陽輔.

천정(天井)、지구(支溝)、간사(間使)、대릉(大陵)、족삼리(足三里)、태백(太白)、구허(丘墟)、양보(陽輔).

1.26.5. 胸中澹澹 | 가슴이 울렁대는 것

間使.

간사(間使).

1.26.6. 胸滿支腫 | 가슴이 그득하면서 팔이 붓는 것

內關、膈俞.

내관(內關)、격수(膈俞).

1.26.7. 胸脇滿引腹 |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면서 배까지 당기는 것

下廉、丘墟、俠谿、腎俞.

하렴(下廉)、구허(丘墟)、협계(俠谿)、신수(腎俞).

1.26.8. 胸煩 | 가슴이 답답하면서 편치 않은 것

期門.

기문(期門).

1.26.9. 胸中寒 | 가슴 속이 추운 것

膻中.

단중(膻中).

1.26.10. 肩背痠疼 | 어깨와 등이 시큰거리고 아픈 것

風門、肩井、中渚、支溝、後谿、腕骨、委中.

풍문(風門)、견정(肩井)、중저(中渚)、지구(支溝)、후계(後谿)、완골(腕骨)
、위중(委中).

1.26.11. 心胸痛 | 심장 쪽 가슴이 아픈 것

曲澤、內關、大陵.

곡택(曲澤)、내관(內關)、대릉(大陵).

1.26.12. 胸滿血膨有積塊, 霍亂腸鳴善噫 | 가슴이 그득하면서 피가 고여 뭉친 것, 곽란에 장에서 소리가 나고 트림을 자주 하는 것

三里、期門(向外刺二寸, 不補不瀉).

족삼리(足三里)、기문(期門)(바깥을 향하여 2촌 깊이로 놓으며 보(補)하거나 사(瀉)하지 않는다).

1.26.13. 脇滿 | 옆구리가 그득한 것

章門.

장문(章門).

1.26.14. 脇痛 | 옆구리가 아픈 것

陽谷、腕骨、支溝、膈俞、申脈.

양곡(陽谷)、완골(腕骨)、지구(支溝)、격수(膈俞)、신맥(申脈).

1.26.15. 缺盆腫 | 결분¹²⁹이 붓는 것

足臨泣、太淵、商陽.

족임읍(足臨泣)、태연(太淵)、상양(商陽).

1.26.16. 脇與脊引 | 옆구리와 척추가 당기는 것

肝俞.

| 간수(肝俞).

1.26.17. 背膊項急 | 등과 팔에서 뒷목까지 뻣뻣한 것

大椎.

| 대추(大椎).

1.26.18. 腰背強直, 不能轉側 | 허리와 등이 굳고 뻣뻣하면서 몸을 돌리지 못하는 것

腰俞、肺俞.

| 요수(腰俞)、폐수(肺俞).

1.26.19. 腰脊痛楚 | 허리와 등뼈가 몹시 아픈 것

委中、復溜.

| 위중(委中)、부류(復溜).

1.26.20. 腰背僵僂 | 허리와 등이 굽는 것

風池、肺俞.

| 풍지(風池)、폐수(肺俞).

1.26.21. 背拘急 | 등이 당기면서 뻣뻣한 것

經渠.

경거(經渠).

1.26.22. 肩背相引 | 어깨와 등이 서로 당기는 것

二間、商陽、委中、崑崙.

이간(二間)、상양(商陽)、위중(委中)、곤륜(崑崙).

1.26.23. 偏脇背痛痺 | 한쪽 옆구리와 등이 아프고 저린 것

魚際、委中.

어제(魚際)、위중(委中).

1.26.24. 背痛 | 등이 아픈 것

經渠、丘墟、魚際、崑崙、京骨.

경거(經渠)、구허(丘墟)、어제(魚際)、곤륜(崑崙)、경골(京骨).

1.26.25. 脊膂強痛 | 척추가 굳고 아픈 것

委中.

위중(委中).

1.26.26. 腰背俱疼難轉 | 허리와 등이 모두 아프면서 몸을 돌리기 힘든 것

天牖、風池、合谷、崑崙.

천유(天牖)、풍지(風池)、합곡(合谷)、곤륜(崑崙).

1.26.27. 脊內牽疼不能屈伸 | 척추 속으로 당기고 아프면서 굽히거나 펴지 못하는 것

합谷、復溜、崑崙.

합곡(合谷)、부류(復溜)、곤륜(崑崙).

1.26.28. 脊強渾身痛, 不能轉側 | 등이 굳고 온 몸이 아프면서 돌아눕지 못하는 것

癌門.

아문(癌門).

1.26.29. 胸運脇痛 | 가슴에서 옆구리까지 아픈 것

期門(先針)、章門、丘墟、行間、湧泉.

기문(期門)(먼저 침을 놓는다)、장문(章門)、구허(丘墟)、행간(行間)、용천(湧泉).

1.26.30. 肩痺痛 | 어깨가 저리고 아픈 것

肩髃、天井、曲池、陽谷、關冲.

견우(肩髃)、천정(天井)、곡지(曲池)、양곡(陽谷)、관충(關冲).

¹²⁹. 결분(缺盆) : 양 쇄골 사이의 오목한 곳이다. ←

1.27. 手足腰腋部 | 수족요액부

1.27.1. 手臂痛不能舉 | 팔이 아파 들지 못하는 것

曲池、尺澤、肩髃、三里、少海、太淵、陽池、陽谿、陽谷、前谷、合谷、液門、外關、腕骨。

곡지(曲池)、척택(尺澤)、견우(肩髃)、수삼리(手三里)、소해(少海)、태연(太淵)、양지(陽池)、양계(陽谿)、양곡(陽谷)、전곡(前谷)、합곡(合谷)、액문(液門)、외관(外關)、완골(腕骨)。

1.27.2. 臂塞 | 팔이 시린 것

尺澤、神門。

척택(尺澤)、신문(神門)。

1.27.3. 臂內廉痛 | 팔 안쪽이 아픈 것

太淵。

태연(太淵)。

1.27.4. 臂腕側痛 | 팔과 손목의 측면이 아픈 것

陽谷。

양곡(陽谷)。

1.27.5. 手腕動搖 | 손목을 떠는 것

曲澤.

곡택(曲澤).

1.27.6. 腋痛 | 겨드랑이가 아픈 것

少海、間使、少府、陽輔、丘墟、足臨泣、申脉.

소해(少海)、간사(間使)、소부(少府)、양보(陽輔)、구허(丘墟)、족임읍(足臨泣)、신맥(申脉).

1.27.7. 腕勞 | 손목을 많이 썼을 때

天井、曲池、間使、陽谿、中渚、陽谷、太淵、腕骨、列缺、液門.

천정(天井)、곡지(曲池)、간사(間使)、양계(陽谿)、증저(中渚)、양곡(陽谷)、태연(太淵)、완골(腕骨)、열결(列缺)、액문(液門).

1.27.8. 手腕無力 | 손목에 힘이 없는 것

列缺.

열결(列缺).

1.27.9. 肘臂痛 | 팔꿈치와 팔이 아픈 것

肩髃、曲池、通里、手三里.

견우(肩髃)、곡지(曲池)、통리(通里)、수삼리(手三里).

1.27.10. 肘攣 | 팔꿈치가 떨리는 것

尺澤、肩髃、小海、間使、大陵、後谿、魚際.

척택(尺澤)、견우(肩髃)、소해(小海)、간사(間使)、대릉(大陵)、후계(後谿)
、어제(魚際).

1.27.11. 肩臂痠重 | 어깨와 팔이 시큰하고 무거운 것

支溝.

지구(支溝).

1.27.12. 肘臂手指不能屈 | 팔꿈치와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것

曲池、三里、外關、中渚.

곡지(曲池)、수삼리(手三里)、외관(外關)、중저(中渚).

1.27.13. 手臂麻木不仁 | 팔에 감각이 없는 것

天井、曲池、外關、經渠、支滿、陽谿、腕骨、上廉、合谷.

천정(天井)、곡지(曲池)、외관(外關)、경거(經渠)、지구(支滿)、양계(陽谿)
、완골(腕骨)、상령(上廉)、합곡(合谷).

1.27.14. 手臂冷痛 | 팔이 차가우면서 아픈 것

肩井、曲池、下廉.

견정(肩井)、곡지(曲池)、하령(下廉).

1.27.15. 手指拘攣筋緊 | 손가락이 당기면서 떨리고 근육이 오그라든 것

曲池、陽谷、合谷.

곡지(曲池)、양곡(陽谷)、합곡(合谷).

1.27.16. 手熱 | 손이 뜨거운 것

曲池、曲澤、內關、列缺、經渠、太淵、中冲、少冲、勞宮.

곡지(曲池)、곡택(曲澤)、내관(內關)、열결(列缺)、경거(經渠)、태연(太淵)
· 중충(中冲)、소충(少冲)、노궁(勞宮).

1.27.17. 手臂紅腫 | 손에서 팔까지 붉어지며 붓는 것

曲池、通里、中渚、合谷、手三里、液門.

곡지(曲池)、통리(通里)、중저(中渚)、합곡(合谷)、수삼리(手三里)、액문
(液門).

1.27.18. 兩手拘攣, 偏風癰疹, 喉痺胸脇墳滿, 筋緩手擊無力, 皮膚枯燥 | 양 손이 당 기면서 떨리는 것, 풍으로 인한 두드러기, 후비,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한 것, 근육이 늘어지면서 팔에 힘이 없는 것, 피부가 마르고 건조한 것

曲池(先瀉後補)、肩髃、手三里.

곡지(曲池)(먼저 사(瀉)한 후에 보(補)한다)、견우(肩髃)、수삼리(手三里).

1.27.19. 風痺肘攣不舉 | 풍비로 인해 팔꿈치가 떨리고 들지 못하는 것

尺澤、曲池、合谷.

척택(尺澤)、곡지(曲池)、합곡(合谷).

1.27.20. 肩膊煩疼 | 어깨와 팔이 답답하면서 아픈 것

肩髃、肩井、曲池.

견우(肩髃)、견정(肩井)、곡지(曲池).

1.27.21. 五指皆疼 | 다섯 손가락이 모두 아픈 것

外關.

외관(外關).

1.27.22. 手攀指痛 | 손이 떨리고 손가락이 아픈 것

少商.

소상(少商).

1.27.23. 掌中熱 | 손바닥이 뜨거운 것

列缺、經渠、太淵.

열결(列缺)、경거(經渠)、태연(太淵).

1.27.24. 腋肘腫 | 겨드랑이와 팔꿈치가 붓는 것

尺澤、小海、間使、大陵.

척택(尺澤)、소해(小海)、간사(間使)、대릉(大陵).

1.27.25. 腋下腫 | 겨드랑이 아래가 붓는 것

陽輔、丘墟、臨泣.

양보(陽輔)、구허(丘墟)、족임읍(足臨泣).

1.27.26. 腰痛 | 허리 아픈 것

肩井、環跳、陰市、三里、委中、承山、陽輔、崑崙、腰俞、腎俞.

견정(肩井)、환도(環跳)、음시(陰市)、족삼리(足三里)、위중(委中)、승산
(承山)、양보(陽輔)、곤륜(崑崙)、요수(腰俞)、신수(腎俞).

1.27.27. 腰痛難動 |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 힘든 것

風市、委中、行間.

풍시(風市)、위중(委中)、행간(行間).

1.27.28. 腰腿如冰 | 허리와 넓적다리가 얼음장 같은 것

陰市.

음시(陰市).

1.27.29. 挫閃腰疼, 脇肋痛 | 허리를 빠끗하여 아픈 것, 옆구리와 갈비뼈가 아픈 것

尺澤、曲池、合谷、手三里、陰陵、陰交、行間、足三里.

척택(尺澤)、곡지(曲池)、합곡(合谷)、수삼리(手三里)、음릉천(陰陵泉)、삼
음교(三陰交)、행간(行間)、족삼리(足三里).

1.27.30. 腰脊強痛 | 허리의 척추가 뻣뻣하고 아픈 것

腰俞、委中、湧泉、小腸俞、膀胱俞.

요수(腰俞)、위중(委中)、용천(湧泉)、소장수(小腸俞)、방광수(膀胱俞).

1.27.31. 腰脚痛 | 허리에서 다리까지 아픈 것

環跳、風市、陰市、委中、承山、崑崙、申脉.

환도(環跳)、풍시(風市)、陰市、위중(委中)、承山、곤륜(崑崙)、신맥(申脉).

1.27.32. 腿膝痠疼 | 넓적다리와 무릎이 시큰하게 아픈 것

環跳、陽陵、丘墟.

환도(環跳)、양릉천(陽陵泉)、구허(丘墟).

1.27.33. 股膝內痛 | 넓적다리와 무릎의 안쪽이 아픈 것

委中、三里、三陰交.

위중(委中)、족삼리(足三里)、삼음교(三陰交).

1.27.34. 脚膝痛 | 다리와 무릎이 아픈 것

委中、三里、曲泉、陽陵、風市、崑崙、解谿.

위중(委中)、족삼리(足三里)、곡천(曲泉)、양릉천(陽陵泉)、풍시(風市)、곤륜(崑崙)、해계(解谿).

1.27.35. 膝脇股腫 | 무릎과 종아리, 넓적다리가 붓는 것

委中、三里、陽輔、解谿、承山。

| 위중(委中)、족삼리(足三里)、양보(陽輔)、해계(解谿)、승산(承山)。

1.27.36. 腰如坐冰 | 허리가 얼음처럼 찬 것

陽輔。

| 양보(陽輔)。

1.27.37. 足痿不收 | 다리가 마르면서 쓰지 못하는 것

復溜。

| 부류(復溜)。

1.27.38. 風痺脚筋麻木 | 풍비로 인해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環跳、風市。

| 환도(環跳)、풍시(風市)。

1.27.39. 足麻痺 | 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것

環跳、陰陵、陽陵、陽輔、太谿、至陰。

| 환도(環跳)、음릉천(陰陵泉)、양릉천(陽陵泉)、양보(陽輔)、태계(太谿)、지
음(至陰)。

1.27.40. 脚氣 | 각기

肩井、膝眼、風市、三里、承山、太沖、丘墟、行間。

견정(肩井)、슬안(膝眼)、풍시(風市)、족삼리(足三里)、승산(承山)、태충
(太冲)、구허(丘墟)、행간(行間).

1.27.41. 體樞痛 | 고관절이 아픈 것

環跳、陽陵、丘墟.

환도(環跳)、양릉천(陽陵泉)、구허(丘墟).

1.27.42. 足寒熱 | 발이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

三里、委中、陽陵、復溜、然谷、行間、中封、大都、隱白.

족삼리(足三里)、위중(委中)、양릉천(陽陵泉)、부류(復溜)、연곡(然谷)、행
간(行間)、중봉(中封)、대도(大都)、은백(隱白).

1.27.43. 脚腫 | 다리가 붓는 것

承山、崑崙、然谷、委中、下廉、寬骨、風市.

승산(承山)、곤륜(崑崙)、연곡(然谷)、위중(委中)、하렴(下廉)、관골(寬骨)
、풍시(風市).

1.27.44. 足寒如冰 | 발이 얼음처럼 찬 것

腎俞.

신수(腎俞).

1.27.45. 淘身戰掉脢瘦 | 온몸이 떨리면서 정강이가 시큰한 것

承山、金門.

승산(承山)、금문(金門).

1.27.46. 足脈寒 | 발과 정강이가 찬 것

復溜、申脉、厲兌.

부류(復溜)、신맥(申脉)、여태(厲兌).

1.27.47. 足攣 | 발이 떨리는 것

腎俞、陽陵、陽輔、絕骨.

신수(腎俞)、양릉천(陽陵泉)、양보(陽輔)、절골(絕骨).

1.27.48. 諸節皆痛 | 모든 관절이 다 아픈 것

陽輔.

양보(陽輔).

1.27.49. 脫腫 | 장딴지가 붓는 것

承山、崑崙.

승산(承山)、곤륜(崑崙).

1.27.50. 足緩 | 발이 늘어지는 것

陽陵、沖陽、太冲、丘墟.

양릉천(陽陵泉)、충양(冲陽)、태종(太冲)、구허(丘墟).

1.27.51. 脚弱 | 다리에 힘이 없는 것

委中、三里、承山.

위중(委中)、족삼리(足三里)、승산(承山).

1.27.52. 兩膝紅腫疼痛 | 양 무릎이 붉어지면서 붓고 아픈 것

膝關、委中、三里、陰市.

슬관(膝關)、위중(委中)、족삼리(足三里)、음시(陰市).

1.27.53. 足不能行 | 발을 옮기지 못하는 것

三里、曲泉、委中、陽輔、三陰交、復溜、冲陽、然谷、申脈、行間、脾俞.

족삼리(足三里)、곡천(曲泉)、위중(委中)、양보(陽輔)、삼음교(三陰交)、부류(復溜)、충양(冲陽)、연곡(然谷)、신맥(申脈)、행간(行間)、비수(脾俞).

1.27.54. 穿跟草鞋風 | 짚신의 뒷꿈치를 뚫고 풍(風)이 든 것

崑崙、丘墟、商丘、照海.

곤륜(崑崙)、구허(丘墟)、상구(商丘)、조해(照海).

1.27.55. 脚筋短急足沈重, 鶴膝歷節風腫, 惡風發不能起床 | 다리 근육이 짧아지면서 발이 무거운 것, 학슬풍과 역절풍으로 붓는 것, 바람을 싫어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風池.

풍지(風池).

1.27.56. 脚腕疼 | 발목이 아픈 것

委中、崑崙.

위중(委中)、곤륜(崑崙).

1.27.57. 足心疼 | 발바닥이 아픈 것

崑崙.

곤륜(崑崙).

1.27.58. 腰痛不能久立, 腿膝脛痠重, 及四肢不舉 | 허리가 아파 오래 서있지 못하는 것, 넓적다리와 무릎, 종아리가 시큰하고 무거운 것, 팔다리를 들지 못하는 것

付陽.

부양(付陽).

1.27.59. 腰重痛不可忍, 及轉側起臥不便, 冷痺脚筋攣急, 不得屈伸 | 허리가 무거워서 참을 수 없이 아프고, 돌아눕거나 누웠다 일어났다하기 불편하며, 냉비로 다리 근육이 떨리고 당기면서 굴신을 못하는 것

灸兩脚曲臍兩紋頭四處, 各三壯一同灸, 用兩人兩邊同吹至火滅. 若午時灸了至晚, 或藏府鳴, 或行一二次, 其疾立愈.

양쪽 다리 오금의 가로금 끝 네 곳에 뜸을 3장씩 동시에 뜨는데, 두 사람이 양 쪽에서 동시에 불어서 불을 꺼준다. 만일 정오에 뜸을 떴는데 오후 늦게 장부에서 소리가 날 경우 한두 차례 더 해주면 병이 낫는다.

1.27.60. 腰痛不能舉 | 허리가 아파서 들지 못하는 것

僕參二穴(在跟骨下陷中, 拱足取之. 灸三壯).

복삼(僕參) 두 혈(발뒤꿈치 아래의 오목한 곳이며 발을 모으고 취혈한다. 뜸 3 장).

1.27.61. 膝以上病 | 무릎 위의 병

灸環跳、風市.

환도(環跳)、풍시(風市)에 뜸을 뜯다.

1.27.62. 膝以下病 | 무릎 아래의 병

灸犢鼻、膝關、三里、陽陵.

독비(犢鼻)、슬관(膝關)、족삼리(足三里)、양릉천(陽陵泉)에 뜸을 뜯다.

1.27.63. 足踝以上病 | 발목 위의 병

灸三陰交、絕骨、崑崙.

삼음교(三陰交)、절골(絕骨)、곤륜(崑崙)에 뜸을 뜯다.

1.27.64. 足踝以下病 | 발목 아래의 병

灸照海、申脉。

| 조해(照海)、신맥(申脉)에 뜸을 뜯다.

1.27.65. 腿痛 | 종아리가 아픈 것

寬骨。

| 관골(寬骨)。

1.27.66. 氣腳 | 각기

一. 風市(百壯或五十壯)。

| 一. 풍시(風市)(100장 혹은 50장)。

二. 伏兎(針三分禁灸)。

| 二. 복토(伏兎)(침 3푼, 금구(禁灸))。

三. 瘢鼻(五十壯)。

| 三. 독비(瘡鼻)(50장)。

四. 膝眼。

| 四. 슬안(膝眼)。

五. 三里(百壯)。

| 五. 족삼리(足三里)(100장)。

六. 上廉。

| 六. 상렴(上廉)。

七. 下廉(百壯).

七. 하렴(下廉)(100장).

八. 絶骨.

八. 절골(絶骨).

1.27.67. 脚轉筋發時不可忍者 | 다리에 쥐가 나서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

脚踝上(一壯). 內筋急灸內, 外筋急灸外.

복사뼈 위(1장). 안쪽 근육이 당기면 안쪽에 뜰을 뜯고, 바깥쪽 근육이 당기면 바깥쪽에 뜰을 뜯다.

1.27.68. 脚轉筋多年不愈, 諸藥不效者 |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몇 해도록 낫지 않고 모든 약에 효과가 없을 때

灸承山(二七壯).

승산(承山)에 뜰을 뜯다(14장).

1.28. 婦人部 | 부인부

1.28.1. 月脉不調 |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것

氣海、中極、帶脈(一壯)、三陰交、腎俞.

| 기해(氣海)、중극(中極)、대맥(帶脈)(1장)、삼음교(三陰交)、신수(腎俞).

1.28.2. 月事不利 | 월경이 잘 나오지 않는 것

足臨泣、三陰交、中極.

| 족임읍(足臨泣)、삼음교(三陰交)、중극(中極).

1.28.3. 過時不止 | 때가 지났는데 월경이 그치지 않는 것

隱白.

| 은백(隱白).

1.28.4. 下經若冷, 來無定時. | 월경시 몸이 차고 주기가 일정치 않은 것

關元.

| 관원(關元).

1.28.5. 女人漏下不止 | 자궁 출혈이 멎지 않는 것

太冲、三陰交.

| 태충(太冲)、삼음교(三陰交).

1.28.6. 血崩 | 월경이 아닌데 자궁 출혈이 심한 것

氣海、大敦、陰谷、太冲、然谷、三陰交、中極.

기해(氣海)、대돈(大敦)、음곡(陰谷)、태충(太冲)、연곡(然谷)、삼음교(三陰交)、중극(中極).

1.28.7. 痘聚 | 가취¹³⁰

關元.

관원(關元).

1.28.8. 赤白帶下 | 적백색의 대하

帶脈、關元、氣海、三陰交、白環俞(壯)、間使(三十壯).

대맥(帶脈)、관원(關元)、기해(氣海)、삼음교(三陰交)、백환수(白環俞)(장
(壯)¹³¹)、간사(間使)(30장).

1.28.9. 小腹堅 | 아랫배가 단단한 것

帶脈.

대맥(帶脈).

1.28.10. 絶子 | 자식이 끊긴 것

商丘、中極.

상구(商丘)、중극(中極).

1.28.11. 因產惡露不止 | 출산 후 오로가 멎지 않는 것

氣海、關元.

기해(氣海)、관원(關元).

1.28.12. 產後諸病 | 산후의 모든 병

期門.

기문(期門).

1.28.13. 乳癰 | 유옹

下廉、三里、俠谿、魚際、委中、足臨泣、少澤.

하렴(下廉)、족삼리(足三里)、협계(俠谿)、어제(魚際)、위중(委中)、족임읍
(足臨泣)、소택(少澤).

1.28.14. 乳腫痛 | 유방이 붓고 아픈 것

足臨泣.

족임읍(足臨泣).

1.28.15. 難產 | 난산

合谷(補)、三陰交(瀉)、太冲.

합곡(合谷)(보(補))、삼음교(三陰交)(사(瀉))、태충(太冲).

1.28.16. 橫生死胎 | 출산 시 아이가 가로로 있거나 태아가 죽었을 때

太冲、合谷、三陰交.

태충(太冲)、합곡(合谷)、삼음교(三陰交).

1.28.17. 橫生手先出 | 출산 시 아이가 가로로 있어서 손이 먼저 나온 것

右足小指尖(三壯立產, 烊如小麥大).

오른쪽 새끼발가락 끝(3장을 뜨면 바로 출산하며 심지는 밀알크기로 한다).

**1.28.18. 子上逼心, 氣悶欲絕 | 태아가 심장 쪽으로 치받쳐 올라가서 숨이 답답하고
喘어질 듯한 것**

巨闕、合谷(補)、三陰交(瀉).

거궐(巨闕)、합곡(合谷)(보(補))、삼음교(三陰交)(사(瀉)).

如子手掬母心, 生下男左女右手心, 有針痕可驗, 不然, 在人中或腦後有針痕.

태아가 마치 어머니의 심장을 쥔 것 같을 경우, 태어난 아기가 남자면 왼쪽 손 바닥에 여자이면 오른쪽 손바닥에 침(針) 자국이 있으면 효험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중(人中)이나 뇌후(腦後)에 있어도 된다.

1.28.19. 產後血暈不識人 | 산후의 혈흔¹³²으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支溝、三里、三陰交.

지구(支溝)、족삼리(足三里)、삼음교(三陰交).

1.28.20. 墮胎後手足如冰厥逆 | 유산이 된 후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

肩井(五分, 若覺悶亂, 急針三里).

견정(肩井)(5푼을 놓는데, 만약 답답하고 혼란해하면 속히 족삼리(足三里)에 침을 놓는다).

1.28.21. 胎衣不下 | 태반이 나오지 않는 것

中極、肩井.

중극(中極)、견정(肩井),

1.28.22. 陰挺出 | 자궁이 음문 밖으로 나온 것

曲泉、照海、大敦.

곡천(曲泉)、조해(照海)、대돈(大敦).

1.28.23. 無乳 | 젖이 안 나오는 것

臺中(灸)、少澤(補. 此二穴神效).

단중(臺中)(뜸)、소택(少澤)(보(補)). 이 두 혈은 효과가 매우 좋다).

1.28.24. 血塊 | 피가 뭉친 것

曲泉、復溜、三里、氣海、丹田、三陰交.

곡천(曲泉)、부류(復溜)、족삼리(足三里)、기해(氣海)、단전(丹田)、삼음교(三陰交).

1.28.25. 婦人經事正行與男子交, 日漸羸瘦寒熱往來, 精血相競. | 월경 중에 성교를 한 후 날이 갈수록 마르고 한열이 왕래하여 정혈이 서로 다투는 것

百勞、腎俞、風門、中極、氣海、三陰交. 若以前證作虛勞治者, 非也.

백로(百勞)、신수(腎俞)、풍문(風門)、증극(中極)、기해(氣海)、삼음교(三陰交). 만약 앞의 증상을 허로(虛勞)로 보고 치료한다면 잘못 된 것이다.

1.28.26. 女子月事不來, 面黃乾嘔, 妊娠不成. | 날짜가 지나도 월경을 하지 않고 얼굴이 누렇게 되면서 헛구역질을 하나 임신은 안 되는 것

曲池、支溝、三里、三陰交.

곡지(曲池)、지구(支溝)、족삼리(足三里)、삼음교(三陰交).

1.28.27. 經脉過多 | 경맥이 과다한 것 ¹³³

通里、行間、三陰交.

통리(通里)、행간(行間)、삼음교(三陰交).

1.28.28. 無時漏下 | 수시로 자궁출혈이 되는 것

三陰交.

삼음교(三陰交).

1.28.29. 欲斷產 | 더 이상 출산하지 않게 하는 법

右足內踝上一寸. 又一法, 灸臍下二寸三分三壯.

오른쪽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위로 1촌 부위. 또 다른 방법으로 배꼽 아래 2촌 3푼 부위에 뜰을 3장 뜯다.

1.28.30. 一切冷憊 | 일체의 냉증(冷症)으로 인한 곤비(困憊)

灸關元.

관원(關元)에 뜰을 뜯다.

1.28.31. 月水不調, 因結成塊. | 월경이 순조롭지 못하여 덩어리가 생긴 것

針間使.

간사(間使)에 침을 놓는다.

130. **가취(瘕聚)**: 아랫배에 생긴 덩어리로, 손으로 밀면 이동하고 통증 부위도 일정하지 않다. ↪

131. **장(壯)**: 판본상의 오기로 보인다. 《인조간본》에는 이 글자가 없고 《정보간본》은 《초간본》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

132. **혈훈(血暉)**: 산후 혈훈이란 산후에 기혈이 갑자기 허약해져서 혈이 기를 따라 올라가 심신(心神)을 어지럽게 하므로 눈앞이 어질하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말한다. ↪

133. **경맥(經脉)이과다한것** : 월경과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1.29. 小兒部 | 소아부

1.29.1. 大小五癓 | 크고 작은 다섯 가지 간질

水溝、百會、神門、金門、崑崙、巨闕.

| 수구(水溝)、백회(百會)、신문(神門)、금문(金門)、곤륜(崑崙)、거궐(巨闕).

1.29.2. 驚風 | 경풍

腕骨.

| 완골(腕骨).

1.29.3. 瘰瘍五指製¹³⁴ | 계종으로 다섯 손가락이 당기는 것

陽谷、腕骨、崑崙.

| 양곡(陽谷)、완골(腕骨)、곤륜(崑崙).

1.29.4. 搖頭張口反折 | 머리를 흔들고 입을 벌린 채 등이 뒤로 휘는 것

金門.

| 금문(金門).

1.29.5. 風癇目戴上 | 풍간으로 눈을 위로 치우쳐 보는 것

百會、崑崙、絲竹空.

| 백회(百會)、곤륜(崑崙)、사죽공(絲竹空).

1.29.6. 脫肛 | 탈항

百會、長強.

백회(百會)、장강(長強).

1.29.7. 卒疝 | 갑작스런 산기

太冲.

태충(太冲).

1.29.8. 角弓反張 | 각궁반장¹³⁵

百會.

백회(百會).

1.29.9. 瀉痢 | 설사와 이질

神闕.

신궐(神闕).

1.29.10. 赤遊風 | 적유풍¹³⁶

百會、委中.

백회(百會)、위중(委中).

1.29.11. 秋深冷痢 | 가을이 깊었을 때의 냉리

灸臍下二寸及三寸動脈中.

배꼽 아래 2촌에서 3촌 부위의 맥이 뛰는 곳에 뜸을 뜯다.

1.29.12. 吐乳 | 젖을 토하는 것

灸中庭(在臺中下六分).

증정(中庭)에 뜸(단증(臺中) 아래 6푼).

1.29.13. 卒癟及猪癟 | 갑작스런 간질이나 저간¹³⁷

巨闕(灸三壯).

거궐(巨闕)(뜸 3장).

1.29.14. 口有瘡蝕斷, 臭穢氣衝人 | 입안이 헐고 잇몸이 짓물러서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

勞宮(二穴各一壯).

노궁(勞宮)(두 혈에 각 1장씩).

1.29.15. 卒患腹痛, 肚皮青黑. |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뱃가죽이 청흑색으로 변하는 것

灸臍四邊(各半寸, 三壯), 鳩尾骨下一寸(三壯).

배꼽 주변의 4곳(각 5푼 떨어진 곳에 3장 씩)과 구미골(鳩尾骨) 아래 1촌(3장)에 뜸을 뜯다.

1.29.16. 驚癇 | 경간

頂上旋毛中(灸二壯), 耳後青絡(三壯, 炁如小麥大).

정수리 위의 가리마 가운데(뜸 2장), 귀 뒤의 푸른 혈관(3장을 뜨되 심지는 밀 알 크기).

1.29.17. 風癇手指屈如數物者 | 풍간에서 마치 수를 세듯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

鼻上髮際宛宛中(灸三壯).

코에서 위로 올라가 발제(髮際)부위의 오목한 곳(뜸 3장).

1.29.18. 二三歲兩目眥赤 | 두세 살 된 아이의 양 눈가가 붉은 것

大指次指間後一寸五分(灸三壯).

엄지와 둘째손가락 사이에서 1촌 5푼 물러난 곳(뜸 3장).

1.29.19. 頤門不合 | 숨골이 닫히지 않는 것

臍上臍下各五分二穴(各三壯, 灸瘡未發, 頤門先合).

배꼽 위와 배꼽 아래로 각 5푼거리의 두 혈(각 3장을 뜨며 뜸 상처가 나기 전에 숨골이 먼저 닫힌다).

1.29.20. 夜啼 | 밤마다 우는 것

百會(三壯).

백회(百會)(3장).

1.29.21. 腎脹偏墜 | 신창¹³⁸과 한쪽 음낭이 부어서 처지는 것

關元(灸三七壯)、大敦(七壯).

관원(關元)(뜸 21장)、대돈(大敦)(7장).

1.29.22. 猪癟如尸厥吐沫 | 저간에서 주검처럼 몸이 싸늘해지면서 거품을 토하는 것

巨闕(三壯).

거궐(巨闕)(3장).

1.29.23. 食癟先寒熱, 洒淅乃發. | 식간에 먼저 한열이 생기고 이어서 오싹한 것

鳩尾上五分(灸三壯).

구미(鳩尾) 위 5푼(뜸 3장).

1.29.24. 羊癟 | 양간¹³⁹

九椎下節間(灸三壯). 又法大椎上(三壯).

9번째 척추 아래의 마디 사이(뜸 3장). 다른 방법으로는 대추(大椎) 위(3장).

1.29.25. 牛癟 | 우간¹⁴⁰

鳩尾(三壯). 又法鳩尾、大椎(各三壯).

구미(鳩尾)(3장). 다른 방법으로는 구미(鳩尾)、대추(大椎)(각 3장).

1.29.26. 馬癟 | 마간¹⁴¹

僕參(二穴各三壯). 又法風府、臍中(各三壯).

복삼(僕參)(두 혈에 각 3장). 다른 방법으로는 풍부(風府)·제중(臍中)(각 3장).

1.29.27. 犬癇 | 견간¹⁴²

兩手心、足太陽、肋戶(各灸一壯).

양 손바닥·족태양(足太陽)·늑호(肋戶)(뜸 각 1장).

1.29.28. 鷄癇 | 계간¹⁴³

足諸陽(各三壯).

발의 양경(陽經) 부위(각 3장).

1.29.29. 牙疳蝕爛 | 잇몸이 붓고 짓무르는 것

承漿(針灸皆可).

승장(承漿)(침과 뜸 모두 가능하다).

134. 製 : 《초간본》에는 희미해진 글자 위로 “製”자가 가필되어 있으나 원본의 글씨는 “掣”에 가까워 보인다. 《인조간본》과 《정보간본》도 모두 “掣”로 되어 있다. ↪

135. 각궁반장(角弓反張) : 풍이나 간질에서 머리와 발만 바닥에 닿은 채 등이 들리면서 몸이 휘는 것을 말한다. ↪

136. 적유풍(赤遊風) : 얼굴과 목, 몸통의 피부색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

다. ↵

137. **저간(豬癟)** : 육축간(六畜癟) 중의 하나로 거품을 토하면서 돼지 울음소리를 내는 간질이다. ↵

138. **신창(腎脹)** : 고창(鼓脹)의 일종이며 허리가 아픈 증상을 동반한다. ↵

139. **양간(羊癟)** : 육축간(六畜癟) 중의 하나로 양 울음소리를 내는 간질이다.

↵

140. **우간(牛癟)** : 육축간(六畜癟) 중의 하나로 눈을 똑바로 직시(直視)하며 배가 불려온다. ↵

141. **마간(馬癟)** : 육축간(六畜癟) 중의 하나로 발작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 울음소리를 낸다. ↵

142. **견간(犬癟)** : 육축간(六畜癟) 중의 하나로 손이 오그라들어 변형되는 간질이다. ↵

143. **계간(鷄癟)** : 육축간(六畜癟) 중의 하나로 머리를 흔들고 각궁반장이 있으며 잘 놀라고 몸이 절로 떨린다. ↵

1.30. 瘡毒部 | 창독부

1.30.1. 治癰疽瘡毒 | 옹저와 창독을 치료하는 법

騎竹馬灸法. 用薄箋, 量患人手上尺澤穴橫紋, 比起循肉, 至中指尖止截斷. 外用竹杠一條, 以竹杠兩頭置凳上, 令患人去衣騎竹杠, 以足微點地以先比箋安杠上, 積箋循背直上箋盡處, 以墨點記. 只是取中非灸穴也. 更以薄箋, 量手中指節兩橫紋爲一寸, 將箋於所點墨上兩傍各量一寸. 是穴各灸五壯或七壯止, 不可多灸. 此法灸之無不愈者. 蓋此二穴心脉所過, 凡癰疽之疾, 皆心氣留滯故生此毒, 灸此則心脉流通, 卽時安愈, 可以起死回生, 有非常效.

기죽마구법(騎竹馬灸法). 얇은 대나무껍질을 사용하여 환자의 척택혈(尺澤穴) 가로금부터 도드라진 살을 따라서 가운데손가락 끝까지 채서 절단한다. 큰 대나무 하나를 마련하여 양쪽 끝을 평상에 얹고 환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대나무에 올라타서 발끝이 땅에 살짝 닿을 정도로 하고, 앞서 재놓은 대나무껍질을 대나무 막대기 위에 고정시킨 채 대나무껍질을 세워서 등을 따라 수직으로 세워서 끝이 닿는 곳에 먹으로 점을 찍어 표시한다. 이것은 혈 자리를 잡는 과정일 뿐이고 뜸자리는 아니다. 다시 대나무껍질을 사용하여 가운데손가락 마디의 두 가로금 사이 거리를 1촌으로 잡아서 재고, 대나무껍질을 먹점 찍은 곳 위에 놓고 양쪽으로 각 1촌이 되도록 잣다. 이 혈 자리에는 뜸을 5장이나 7장까지 만 뜨며 많이 떠서는 안 된다. 이 방법으로 뜸을 떠서 낫지 않은 이가 없다. 대개 이 두 혈은 심맥(心脉)이 지나는 부위인데, 무릇 옹저(癰疽)는 모두 심기(心氣)가 머무르고 정체되어 독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곳에 뜸을 뜨면 심맥(心脉)이 흘러 통하게 되어서 즉시 낫게 되므로 기사회생(起死回生)의 방법이라 할 만 하며 범상한 효능이라 할 수 없다.

1.30.2. 热風癰疹 | 열풍으로 인한 두드러기

肩髃、曲池、曲澤、環跳、合谷、湧泉.

견우(肩髃)、곡지(曲池)、곡택(曲澤)、환도(環跳)、합곡(合谷)、용천(湧泉).

1.30.3. 瘰癰 | 나력 ¹⁴⁴

少海(先推針皮上, 三十六息, 推針入內追核大小, 勿出核, 三十三下乃出針)、天池
、章門、臨泣、支溝、陽輔(百壯)、手三里、肩井(隨年壯).

소해(少海)(먼저 침으로 피부를 누르면서 36회 호흡시키고, 침을 밀어 넣어서 핵(核)의 대소를 따라가 보되, 핵(核)을 끄집어내서는 안 되며 33회 눌러준 후에 침을 뺀다)、천지(天池)、장문(章門)、족임읍(足臨泣)、지구(支溝)、양보(陽輔)(100장)、수삼리(手三里)、견정(肩井)(나이 수대로 뜰을 뜯다).

1.30.4. 疔癰瘡 | 개선창

曲池、支溝、陽谿、陽谷、大陵、合谷、後谿、委中、三里、陽輔、崑崙、行間
、三陰交、百虫窠(即膝眼).

곡지(曲池)、지구(支溝)、양계(陽谿)、양곡(陽谷)、대릉(大陵)、합곡(合谷)
、후계(後谿)、위중(委中)、족삼리(足三里)、양보(陽輔)、곤륜(崑崙)、행간
(行間)、삼음교(三陰交)、백충과(百虫窠)(슬안(膝眼)이다).

1.30.5. 瘰腫振寒 | 종양으로 인해 오한이 심한 것

少海.

소해(少海).

1.30.6. 腋腫, 馬刀瘻 | 겉드랑이의 종양과 마도 ¹⁴⁵

陽輔、太冲、足臨泣.

양보(陽輔)、태충(太冲)、족임읍(足臨泣).

1.30.7. 癰疽發背 | 옹저와 발배¹⁴⁶

肩井、委中(以蒜片貼瘡上灸. 如不疼灸至疼, 疼灸至不疼, 愈多愈好).

견정(肩井)、위중(委中)(마늘 조각을 상처 위에 붙이고 뜸을 뜯다.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아플 때까지 뜸을 뜨고 만약 아팠다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뜸을 뜨며 많이 할수록 좋다).

1.30.8. 疗瘡 | 정창¹⁴⁷

生面上口角, 灸合谷. 生手上, 灸曲池. 生背上, 灸肩井. 三里、委中、行間、通里、小海、太冲、臨泣.

얼굴이나 입가에 생겼으면 합곡(合谷)에 뜸을 뜯다. 손에 생겼으면 곡지(曲池)에 뜸을 뜯다. 등에 생겼으면 견정(肩井)에 뜸을 뜯다. 족삼리(足三里)、위중(委中)、행간(行間)、통리(通里)、소해(小海)、태충(太冲)、족임읍(足臨泣).

1.30.9. 遍身生疥癩 | 온몸에 옴 부스럼이 생긴 것

曲池、合谷、三里、絕骨、膝眼(灸二七壯).

곡지(曲池)、합곡(合谷)、족삼리(足三里)、절골(絕骨)、슬안(膝眼)(뜸 14 장).

144. **나력(瘰癧)**: 《내경》에서 결핵(結核)이라 한 것으로 목의 앞과 옆에 콩알이나 은행씨만 한 멍울이 생기는 것이다. ↪

145. **마도(馬刀)**: 가슴이나 옆구리, 겨드랑이에 돌같이 단단하고 말조개만 한

것이 생긴 것이다. 멍울이 잇달아 생기는 것을 나력(癰癧)이라 하고 생김새가 길쭉하여 조개와 같은 것을 마도(馬刀)라 칭하기도 한다. ↵

146. **발배(發背)** : 등에 나는 종기를 말한다. ↵

147. **정창(疔瘡)** : 창(瘡)의 모양이 마치 못을 박아놓은 듯한 것이며 외관상 작은 부스럼처럼 보이지만 응저(癰疽)에 비해 독이 깊고 강하다. ↵

1.31. 雜病部 | 잡병부

1.31.1. 人脉微細不見, 或時無者 | 맥이 미하고 세하여 잘 느껴지지 않으며 때로는 맥이 없어지는 것

以圓利針, 刺足少陰經復溜穴, 針至骨, 順針住¹⁴⁸下刺之, 候回陽脉生, 方可出針.

원리침(圓利針)¹⁴⁹으로 족소음경(足少陰經)의 부류(復溜) 혈을 찌르되 뼈에 닿을 정도로 하고 침을 아래로 따라가며 찌르는데, 회양맥(回陽脈)이 생겨나는 것이 확인되면 침을 빼도 된다.

1.31.2. 蝶蟄蛇犬蜈蚣傷, 痛不可忍者 | 전갈、독충、뱀、개、지네에 물려 참을 수 없이 아픈 것

各詳其經絡部分, 逆順感氣刺之, 盖逆順感氣者, 使其毒氣隨經直瀉, 不欲呼吸使毒氣行經也. 用針呪曰, 天靈節榮願保長生, 太玄之一守其眞形, 五藏神君各保安寧, 神針一下萬毒潛形, 急急如律令攝. 凡針默念呪一遍, 次氣在針上, 想針如火龍, 便從病人心腹中出, 其病速愈.

물린 부위의 해당 경락을 살피고 경락의 순행방향을 거슬러 기운을 막도록 찌르는데, 대개 순행방향을 거슬러 기운을 막는 것은 그 독기가 경락을 따라 바로 빠지게 하려는 것이며, 호흡을 통해 경락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침을 놓으면서, “천령절영원보장생(天靈節榮願保長生), 태현지일수기진형(太玄之一守其眞形), 오장신군각보안녕(五藏神君各保安寧), 신침일하만독잠형(神針一下萬毒潛形), 급급여율령섭(急急如律令攝)”¹⁵⁰이라고 주문을 왔다. 침을 놓을 때에는 고요히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한 번 완 후 기운이 침 위로 가도록 하고, 침을 화룡(火龍)이라 상상하면서 병자의 심복(心腹)을 따라 나온다고 여기면 병이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1.31.3. 窽水死經宿可救 | 물에 빠져 죽은 지 하루가 지난 것을 살릴 수 있다.

卽解死人衣帶, 灸臍中.

| 죽은 사람의 옷과 허리띠를 즉시 헤치고 배꼽에 뜸을 뜯다.

1.31.4. 狂犬傷人 | 미친개에게 물린 것

灸咬處瘡上.

| 물려서 생긴 상처에 뜸을 뜯다.

1.31.5. 傷 | 혈이라는 벌레에 물린 것

灸傷處三壯, 仍以蒜片貼咬處, 灸蒜上.

| 상처에 뜸 3장을 뜨고, 이어서 마늘을 썰어서 물린 부위에 붙인 후 마늘 위에 뜸을 뜯다.

148. 住 : 《초간본》원문에는 “住”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往”이 맞다. 《인조간본》과 《정보간본》도 “往”으로 되어 있다. ↪

149. 원리침(圓利針) : 구침(九針) 중 하나로 침체는 가늘고 끝은 둥글면서 날카로운 모양의 침이다. ↪

150. “천령절영원보장생(天靈節榮願保長生)...급급여율령섭(急急如律令攝)” : “하늘의 신령과 절영은 장생을 돋고자 하고, 태현지일은 진형을 지키며, 오장마다 신군은 안녕을 돋고, 신침 한 번에 만독이 형체를 감추니, 빠르고 급하게 이 같은 법령을 끌어 잡아라”는 뜻의 주문이다. ↪

1.32. 逐日人神所在 | 축일인신소재 151

一日在足大指厥陰分, 刺之跗腫.

1일에는 엄지발가락의 궤음분(厥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발등이 붓는다.

二日在足外踝少陽分, 刺之筋經緩.

2일에는 바깥쪽 복사뼈의 소양분(少陽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근육과 경락이 늘어진다.

三日在股內少陰分, 刺之小腹痛.

3일에는 넓적다리 안쪽의 소음분(少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아랫배가 아프다.

四日在腰太陽分, 刺之腰僂無力.

4일에는 허리의 태양분(腰太陽)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허리가 굽으면서 힘이 없어진다.

五日在口太陰分, 刺灸之舌強.

5일에는 입의 태음분(太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혀가 굳어진다.

六日在手陽明分, 刺之咽喉不利.

6일에는 손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목구멍이 막힌다.

七日在內踝少陰分, 刺灸之陰經筋急.

7일에는 안쪽 복사뼈의 소음분(少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뜰을 뜨면 음경(陰經)의 근육이 당긴다.

八日在手腕太陽分, 刺灸之腕不收.

8일에는 손목의 태양분(太陽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손목을 쓰지 못한다.

九日在尻厥陰分, 刺灸之病急.

9일에는 엉덩이의 궤음분(尻厥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병이 급해진다.

十日在腰背太陰分, 刺灸之腰背僵.

10일에는 허리와 등의 태음분(太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허리와 등이 굽어진다.

十一日在鼻柱陽明分, 刺灸之齒面腫.

11일에는 콧등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치아와 얼굴이 붓는다.

十二日在髮際少陽分, 刺灸之令人重聽.

12일에는 머리카락 경계의 소양분(少陽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귀가 어두워진다.

十三日在牙齒少陰分, 刺灸之氣寒.

13일에는 치아의 소음분(少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기운이 차가워진다.

十四日在胃脘陽明分, 刺之氣腫.

14일에는 위완(胃脘)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기종(氣腫)**¹⁵²이 된다.

十五日在遍身, 不宜補瀉, 針灸大忌.

15일에는 온몸에 있으므로 보사(補瀉)를 해서는 안 되며 침구를 크게 꺼리는 날이다.

十六日在胸太陰分, 刺之逆息.

16일에는 가슴의 태음분(太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숨이 치밀어 오른다.

十七日在氣衝陽明分, 刺之難息.

17일에는 기충(氣衝)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숨쉬기가 어렵다.

十八日在股內少陰分, 刺之引陰氣痛.

18일에는 넓적다리 안쪽의 소음분(少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음기(陰器)가 당기면서 아프다.

十九日在足趺陽明分, 刺灸之發腫.

19일에는 발등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붓는다.

二十日在內踝少陰分, 刺之經筋攣.

20일에는 안쪽 복사뼈의 소음분(少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경락의 근육이 떨린다.

二十一日在手小指太陽分, 刺之手不仁.

21일에는 새끼손가락의 태양분(太陽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손에 감각이 없어진다.

二十二日在足外踝少陽分, 刺之經筋緩.

22일에는 바깥쪽 복사뼈의 소양분(少陽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경락의 근육이 늘어진다.

二十三日在肝及足厥陰分, 刺之發轉筋.

23일에는 간과 발의 궤음분(厥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쥐가 난다.

二十四日在手陽明分, 刺之咽喉中不利.

24일에는 손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목구멍이 막힌다.

二十五日在足陽明分, 刺之胃氣脹.

25일에는 발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위(胃)가 불러온다.

二十六日在胸大陰分, 刺灸之喘咳.

26일에는 가슴의 태음분(大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거나 뜰을 뜨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난다.

二十七日在膝陽明分, 刺之足經厥逆.

27일에는 무릎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발이 차가워진다.

二十八日在陰少陰分, 刺之小腹急痛.

28일에는 음기(陰器)의 소음분(少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아랫배가 갑자기 아프다.

二十九日在膝脛厥陰分, 刺之筋痠無力.

29일에는 무릎과 정강이의 궤음분(厥陰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근육이 마르면서 힘이 없어진다.

三十日在足趺上陽明分, 刺之有傷胃氣.

30일에는 발등의 양명분(陽明分)에 있으니, 침을 놓으면 위기(胃氣)를 해친다.

考之碇炳一科, 雖有資生經針灸四書, 其間浩瀚廣漠, 不能窺其要妙. 獨宏綱陳先生, 得梓桑君家傳之秘, 乃纂其備要, 編爲是書, 以便後學. 今重校正, 定其詳略, 尤爲切要, 使天下後世, 咸躋於仁壽之域也.

침뜸의 한 과목을 고찰한 책 중에 비록 《자생경(資生經)》과 《침구사서(針灸四書)》¹⁵³가 있기는 하나, 그 너비가 광대하고 넓어서 그 요점과 정묘함을 엿보기가 어렵다. 오직 광강(宏綱) 진(陳)선생이 재상군(梓桑君) 집안에서 내려온 비법을 얻었으므로 그 갖추어진 요점을 모아 이 책을 엮어서 후학들로 하여금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제 거듭 교정하여 상세하고 간략한 것을 바로잡아 더욱 긴요하게 하였으니, 천하의 후세로 하여금 모두 인수(仁壽)¹⁵⁴의 경지에 오르게 하고자 함이다.

神應經終.

《신응경(神應經)》 마침.

151. **축일인신소재(逐日人神所在)**: 날짜별로 인신(人神)이 머무는 부위에 따른 금기(禁忌)법이다. ↪

152. **기종(氣腫)**: 기체(氣滯)로 인한 수종(水腫)을 말한다. ↪

153. **《침구사서(針灸四書)》**: 《자오유주침경(子午流注針經)》, 《침경지남(針經指南)》, 《황제명당구경(黃帝明堂灸經)》, 《구고황수혈법(灸膏肓腧穴法)》을 말한다. ↪

154. **인수(仁壽)**: 인수(仁壽)는 원래 《논어》의 <옹야(雍也)>편에, “어진 자는 장수한다”는 대목에서 온 말이다. 《한서(漢書)》의 <예악지(禮樂志)>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구례(舊禮)를 찬술하고 왕제(王制)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을 이끌어 인수의 경지(人壽之域)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때의 태평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高宗)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인용한 것이다. ↪

2.1. 부록

- 2.1.1. 팔혈구법 八穴灸法
- 2.1.2. 침구택일 鍼灸擇日
- 2.1.3. 발문 跛

成化九年癸巳, 孟冬, 日本國 山殿所使副官人信州隱士良心言, 我國二百年前有兩名醫, 一爲和介氏, 一爲丹波氏, 此二醫專治癰疽疔瘻瘞等瘡, 定八處灸法, 甚有神效.

성화(成化) 9년 계사(癸巳, 1473) 10월 일본국전산전소사 부관인 신주은사 양심(良心)이 말하길, “우리나라에 2백 년 전에 두 명의 명의가 있었는데, 한 명은 화개(和介)씨이고 다른 한명은 단파(丹波)씨였다. 이 두 의사는 오로지 옹저(癰疽)·정절(疔瘻)·나력(瘰疬) 등의 부스럼만 치료하여 8곳에 뜸 뜨는 방법을 정립하였는데,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하였다.

2.1.1. 八穴灸法¹⁵⁵ | 팔혈구법

2.1.1.1. 頭部二穴 | 머리 부위 치료에 사용되는 2혈

諸瘡發于頭部, 則耳尖上周迴用禾桿量之 [自左耳尖上起端右旋, 經右耳尖上, 還至起端處斷之], 以其桿當結喉下, 至項後雙垂之, 以患者手橫握其端而切去之 [以其桿中央當結喉下, 兩端左右會于項後, 雙垂之. 以患者手橫握其兩端之末而斷之, 如《鍼經》一夫之法], 其桿端當處脊中骨上點之. 瘡出左者, 去中骨半寸灸左, 出右者, 灸右, 出左右者, 紛灸左右.

부스럼이 머리 부위에 생긴 경우. 귀 끝 위 한 바퀴를 벗침으로 재고 [왼쪽 귀 끝을 시작으로 오른쪽으로 감아 오른쪽 귀 끝을 지나 다시 시작점까지 이르게 하고, 이 길이만큼을 재어 자른다] 그 벗침을 목울대뼈 아래에 대고 뒷덜미로 나란히 늘어뜨린다. 환자의 손으로 그 끝을 가로로 쥐게 하여 잘라 낸 뒤 [벗침 가운데를 목울대뼈에 대고 늘어뜨리고 좌우 양쪽 끝을 목덜미 뒤에서 만나도록 나란히 늘어뜨린다. 환자의 손으로 벗침 양 끝을 가로로 쥐게 하여 《침경》

[의 일부법(一夫法) 같이 자른다] 그 벗짚이 척추뼈에 닿는 곳에 표시한다. 부스럼이 왼쪽에 난 경우에는 표시한 곳에서 0.5치 왼쪽에 뜸뜨고, 오른쪽에 난 경우에는 그렇게 오른쪽에 뜸뜬다. 양쪽 난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뜸뜬다.

2.1.1.2. 手部二穴 | 상지(上肢) 부위 치료에 사용되는 2혈

瘡發于手部, 則自肩上高骨端 [即肩髃穴]至第三指頭爪甲端斷之. 以其桿當結喉下, 至項後雙垂之, 如頭部法.

부스럼이 손 부위에 생긴 겨우. 어깨 위 솟은 뼈 끝 [견우혈]에서 셋째 손가락 손톱 끝까지 재어 자른다. 그 벗짚을 목을대뼈 아래에 대고 뒷덜미로 나란히 늘어뜨리고 머리 부위에 생겼을 때처럼 뜸뜬다.

2.1.1.3. 背腹部二穴 | 등과 배 부위 치료에 사용되는 2혈

[自大椎下至鳩尾骨端爲背部, 自天突穴下至陰毛際爲腹部, 兩腋亦屬腹背部]瘡發于背或腹, 則乳上周迴 [自左乳頭上起端, 右旋周身, 經右乳頭上, 還至起端處], 以其桿當結喉下, 至項後雙垂, 如頭部法.

[대추에서 구미 끝까지는 등 부위이고, 천돌(天突)부터 음모가 난 부위까지 배 부위이다. 양 옆구리도 등과 배 부위에 속한다] 부스럼이 등 부위나 배 부위에 생긴 경우. 유두 위 한 바퀴를 재어 [왼쪽 유두 뒤를 시작으로 오른쪽으로 감아 몸을 둘러 오른쪽 유두 위를 돌아 다시 시작점까지 이르게 한다] 그 벗짚을 목을대뼈 아래에 대고 뒷덜미로 나란히 늘어뜨리고 머리 부위에 생겼을 때처럼 뜸뜬다.

2.1.1.4. 足部二穴 | 하지(下肢) 부위 치료에 사용되는 2혈

瘡發于足部, 則竝立兩足令相着, 自左大拇指端至右大拇指端周迴 [自左足大拇指頭起端, 從足際右旋, 經左右足踵右足指端, 還至起端處], 以其桿當結喉下, 頸後雙垂, 如頭部法.

부스럼이 하지부위에 생긴 경우. 환자에게 가지런히 서서 두 발을 붙이게 하고 왼쪽 첫째발가락 끝에서 오른쪽 첫째발가락 끝까지 한 바퀴를 채어 [왼쪽 첫째발가락 끝에서 발 경계를 따라 오른쪽으로 감아 두 발 뒤꿈치를 지나 오른쪽 발가락 끝을 지나 다시 시작점까지 이르게 한다.] 그 벗장을 목울대빼 아래에 대고 뒷덜미로 나란히 늘어뜨리고 머리 부위에 생겼을 때처럼 뜸뜬다.

灸八穴, 痛則灸到不痛, 不痛則灸到痛. 或五百壯, 或七八百壯, 大炷多灸尤妙. 瘰疽始發而灸, 則不潰而自愈, 已潰而灸, 則生肌止痛, 亦無再發.

팔혈에 뜸 뜨는 경우에 아프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아프지 않으면 아플 때까지 뜸뜬다. 500장 혹은 700-800장 뜸뜨며 쑥심지를 크게 하여 많이 뜰수록 좋다. 옹저가 처음 생겼을 때 뜸뜨면 곪지 않고 저절로 나으며, 이미 곽은 경우에 뜸뜨면 새 살이 나고 통증이 멎으며 재발하지 않는다.

155. 팔혈구법(八穴灸法) : 현전하는 초간본에는 누락되어 없으나 인조간본을 근거로 추가하였다. ↵

2.1.2. 鍼灸擇日 156 | 침구택일

鍼灸吉日. [丁卯 丁亥 庚午 庚子 甲戌 甲申 丙子 丙申 丙午 癸丑 丙戌 壬午 壬子 壬戌 辛卯 戊戌 戊申 己亥 乙巳 丁丑]

침、뜸하기 좋은 날. [정묘 정해 경오 경자 갑술 갑신 병자 병신 병오 계축 병술
임오 임자 임술 신묘 무술 무신 기해 을사 정축]

每月初六、十五、十八、二十二、二十四，小盡日及五辰、五酉、五未。又忌弦望
晦朔，入節前後各一日凶。素問云各五日。男忌除戌，女忌破巳。

매 달 6일, 15일, 18일, 22일, 24일. 소진일(小盡日)과 5개의 진일(辰日), 5
개의 유일(酉日), 5개의 미일(未日). 또 상현달과 하현달이 뜨는 날, 달이 차
는 날, 그믐날과 초하룻날, 절기가 바뀌는 앞뒤 1일씩은 침뜸 치료를 피한다.
《소문(素問)》에는 5일씩이라고 하였다. 남자는 제일(除日)인 술일(戌日)에, 여
자는 파일(破日)인 사일(巳日)에 침뜸 치료를 피한다.

旁通	正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 —
月厭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丑	子
月忌	戌	戌	戌	丑	丑	丑	辰	辰	辰	未	未
月殺	丑	戌	未	辰	丑	戌	未	辰	丑	戌	未
月刑	巳	子	辰	申	午	丑	寅	酉	未	亥	卯
大	戌	巳	午	未	寅	卯	辰	亥	子	丑	申

殺	戌	巳	午	未	寅	卯	辰	亥	子	丑	申
大害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血忌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午
血支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天醫	卯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巳	午
天滅	丑	卯	申	酉	丑	卯	申	酉	丑	卯	申

방통	1	2	3	4	5	6	7	8	9	10	11
월염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월기	술	술	술	축	축	축	진	진	진	미	미
월살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진	축	술	미
월형	사	자	진	신	오	축	인	유	미	해	묘

살											
대 해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혈 기	축	미	인	신	묘	유	진	술	사	해	오
혈 지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천 의	묘	인	축	자	해	술	유	신	미	사	오
천 멸	축	묘	신	유	축	묘	신	유	축	묘	신

瘟瘞 [正羊二戌三居辰] [四寅五午六蛇行] [七酉八猴九在亥] [十子十一丑中存] [十二月當居卯位] [犯着瘟瘞必殺人]

온황일 [정월에는 미일(未日), 2월에는 술일(戌日), 3월에는 진일(辰日)에 있고] [4월에는 인일(寅日), 오월에는 오일(午日), 6월에는 사일(巳日)을 지나네] [7월에는 유일(酉日), 8월에는 신일(申日), 9월에는 해일(亥日)에 있고] [10월에는 자일(子日), 11월에는 축일(丑日) 가운데 있으며] [12월에는 묘일(卯日)에 있게 되네.] [온황일을 범하면 반드시 환자를 죽일 거라오.]

不向 [正五九月東] [二六十月西] [三七十一北] [四八十二南]

치료 시 피해야 할 방향 [정월·5월·9월에는 동쪽을 피한다.] [2월·6월·10월에는 서쪽을 피한다.] [3월·7월·11월에는 북쪽을 피한다.] [4월·8월·12월에는 남쪽을 피한다.]

2.1.2.1. 太乙遊入節日數^[157] | 태을이 노닐다 들어가는 절기의 날 수

	立 春	春 分	立 夏	夏 至	立 秋	秋 分	立 冬	冬 至
一日、十日、十九日、二十八日、三十七日	左 脚	左 脇	左 肩	頭 首	右 肩	右 脇	右 脚	腰 尻
二日、十一日、二十日、二十九日、三十八日	頭 首	左 肩	臟 腑	腰 尻	左 脇	左 脚	右 脇	右 肩
三日、十二日、二十一日、三十日、三十九日	腰 尻	臟 腑	右 脚	右 肩	左 肩	頭 首	左 脚	左 脇
四日、十三日、二十二日、三十一日、四十日	右 肩	右 脚	右 脇	左 脇	臟 腑	腰 尻	頭 首	左 肩
五日、十四日、二十三日、三十二日、四十一日	左 脇	右 脇	左 脚	左 肩	右 脚	右 肩	腰 尻	臟 腑
六日、十五日、二十四日、三十三日、四十二日	左 肩	左 脚	頭 首	臟 腑	右 脇	左 脇	右 肩	右 脚
七日、十六日、二十五日、三十四日、四十三日	臟 腑	頭 首	腰 尻	右 脚	左 脚	左 肩	左 脇	右 脇

八日、十七日、二十一日、三十五日、四十四日	右脚	腰尻	右肩	右脇	頭首	臟腑	左肩	左脚
九日、十八日、二十七日、三十六日、四十五日	右脇	右肩	左脇	左脚	腰尻	右脚	臟腑	頭首

	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	동지
1、10 · 19、 28、37 일	왼쪽다리	왼쪽옆구리	왼쪽어깨	머리	오른쪽어깨	오른쪽옆구리	오른쪽다리	허리영치
2、11、 20、29 · 38일	머리	왼쪽어깨	장부	허리영치	왼쪽옆구리	왼쪽다리	오른쪽옆구리	오른쪽어깨
3、12 · 21、 30、39 일	허리영치	장부	오른쪽다리	오른쪽어깨	왼쪽어깨	머리	왼쪽다리	왼쪽옆구리

4·13 ·22· 31·40 일	오른쪽 어깨	오른쪽 엎구리	오른쪽 엎구리	왼쪽 엎구리	장부	허리殃치	머리	왼쪽 어깨
5·14 ·23· 32·41 일	왼쪽 엎구리	오른쪽 엎구리	왼쪽 다리	왼쪽 어깨	오른쪽 다리	오른쪽 어깨	허리殃치	장부
6·15 ·24· 33·42 일	왼쪽 어깨	왼쪽 다리	머리	장부	오른쪽 엎구리	왼쪽 엎구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다리
7·16 ·25· 34·43 일	장부	머리	허리殃치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어깨	왼쪽 엎구리	오른쪽 엎구리
8·17	오	허	오	오른			원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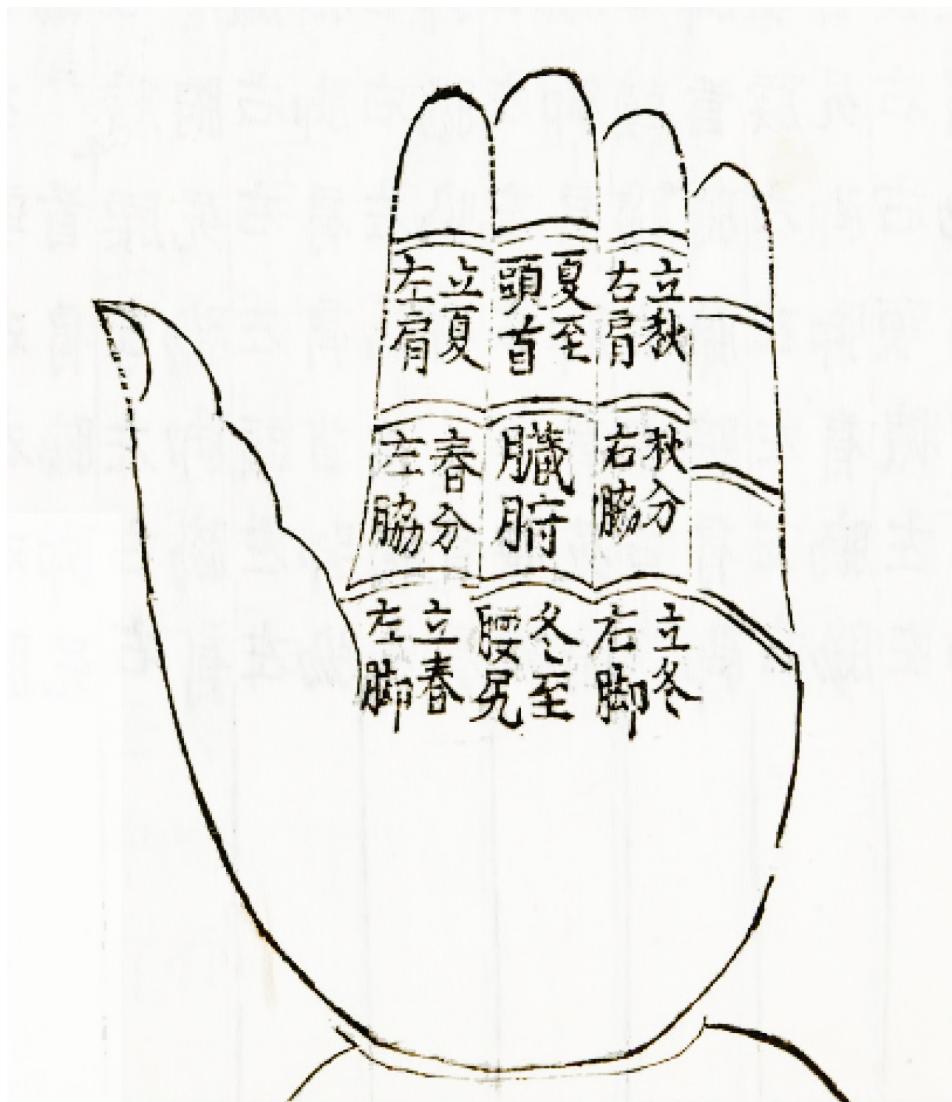
· 26 ·	른 쪽 일 리	리 엉 치 어	른 쪽 어 깨	쪽 옆 구 리	머 리 리	장 부 리	쪽 어 깨	쪽 다 리
9 · 18 · 27 · 36 · 45 일	오 른 쪽 옆 구 리	오 른 쪽 어 깨	원 쪽 옆 구 리	원 쪽 다 리	허 리 영 치	오 른 쪽 다 리	장 부	머 리

方云通人達士는 不拘此例云云이러라.

의방서(醫方書)에 “이치에 통달하고 뛰어난 사람은 이러한 침구택일(鍼灸擇日)에 얹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巽 [四]	离 [九]	坤 [二]
震 [三]	中 [五]	兌 [七]
艮 [八]	坎 [一]	乾 [六]

손 [4]	리 [9]	곤 [2]
진 [3]	중 [5]	태 [7]
간 [8]	감 [1]	건 [6]



左肩, 立夏, 頭首, 夏至, 右肩, 立秋, 左脚, 立春, 腰尻, 冬至, 右脚, 立冬

좌견, 입하, 두수, 하지, 우견, 입하, 좌협, 춘분, 장부, 우협, 추분, 좌각, 입춘, 요고, 동지, 우각, 입동

左肩 立夏	頭首 夏至	右肩 立秋

左脇 春分	臟腑	右脇 秋分
左脚 立春	腰尻 冬至	右脚 立冬

왼쪽어깨 입하	머리 하지	오른쪽어깨 입추
왼쪽옆구리 춘분	장부	오른쪽옆구리 추분
왼쪽다리 입춘	허리엉치 동지	오른쪽다리 입동

156. 침구택일(鍼灸擇日) : 본래 제목은 없으나 편의상 제목을 부여하였다.

1643년 인조간본 간행 때 추가된 내용이다. ↵

157. 太乙遊入節日數 : 『東醫寶鑑』에는 “태을이 팔절에서 노니는 날의 수. 太

乙遊八節日數.”라고 되어 있다. ↵

2.1.3. 跋 | 발문

醫家救人之方，鍼與藥均也。然藥或有難得之物，而鍼則數寸鐵而已，能盡其法，則有起死回生之效，鍼之功用大矣哉。神應一經，最得鍼法之要妙，而兵燹之後，此書甚罕，世之技於此者，皆手自抄寫。臣忝在藥房，以爲內局必有此書，使掌故取來則無也。內局而無此書，此書將絕其傳矣。遂議於諸提調，聚字以印之，因附擇日法於下。噫，求之於書者，固其糟粕，而並與其書而亡之，則梓桑君之妙指，何所據而尋之哉。方今聖明臨御，仁洽生民，痒癥疾痛，呼父母以望救者，舉將賴此而全活。此書之有補於春臺壽域之化者，夫豈淺鮮哉。

의가(醫家)에서 사람을 치료하여 구하는 방도로는 침과 약이 균등합니다. 그러나 약 중에는 혹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반면 침은 몇 촌 길이의 쇠붙이에 지나지 않아도 능히 그 법도를 다 한다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효험이 있으니 침의 공로와 쓰임새가 크다 하겠습니다. 《신응경》은 침법의 오묘한 요지를 가장 잘 포착한 책임에도 병란이 끝난 뒤 이 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이 책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 베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이 약방(藥房)의 직책을 맡게 되면서 내국(內局)에는 반드시 이 책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장고(掌故)를 담당한 관원에게 가져오라 하였으나 책이 없었습니다. 내국에도 없다면 이 책은 결국 후대로 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 제조들과 의논하여 활자를 모아 인쇄하고 책의 말미에는 택일법(擇日法)을 덧붙였습니다. 아! 책 속에서 구한 지식은 실로 찌꺼기와 같은 것이지만, 책에 있는 지식마저 없어진다면 재상군(梓桑君)으로부터 전해진 침법의 오묘한 침을 과연 어디에 의거하여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상께서 어좌에 임하셔서 어진 은택이 백성을 살리기에 넉넉하니, 온갖 괴로운 질병의 고통 속에 아비어미를 부르며 구제받을 날만 기다리는 이들이 비로소 여기에 힘입어 온전히 소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교화에 보탬을 주는 바가 어찌 미약하다 하겠습니까?

時癸未孟冬，[臣]金堉謹跋。

계미년(1643, 인조 21) 초겨울에 [신] 김육은 삼가 발문을 씁니다.

都提調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監
春秋館事 世子傳 靑原府院君 [臣]沈器遠

提調 正憲大夫 戸曹判書 [臣]李溟

副提調 嘉善大夫 行承政院都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 尚
瑞院正 [臣]金堉

監印官 通訓大夫 行內醫院副奉事 [臣]安志淵

監校官 禦侮將軍 行忠武衛副司果 [臣]金尙誠

도제조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영경
연감 춘추관사 세자부 청원부원군 [신] 심기원(沈器遠)

제조 정헌대부 호조판서 [신] 이명(李溟)

부제조 가선대부 행승정원도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신] 김육(金堉)

감인관 통훈대부 행내의원부봉사 [신] 안지연(安志淵)

감교관 어모장군 행충무위부사과 [신] 김상성(金尙誠)

3.1. 해제

3.1.1. 편찬배경

3.1.1.1. 『神應經』

『神應經』은 명대 陳會가 지은 침구서적을 그의 제자 劉瑾이 1425년에 교정하고 증보한 책이다. 陳會의 제자이자 조정의 의사로 복무했던 劉瑾은 朱元璋의 16번째 아들인 寧獻王 朱權으로부터 陳會의 『廣愛書』를 토대로 『神應經』을 편찬하도록 명을 받았다. 陳會는 『廣愛書』 12권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방대하였기에 이를 다시 정리하여 『廣愛書括』을 펴냈다. 劉瑾은 자신의 서문에서 “『廣愛書括』이 간략한 책이기에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필요한 요점을 알기 어려울까 염려되어 다시 119혈을 골라 시와 그림을 기록하고 여기에 치병요혈을 더 모아 한 권으로 묶음으로써 배우는 자의 지침으로 삼게 하였다”고 하였다.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劉瑾의 설명에 의거하면 『神應經』은 방대한 『廣愛書』 12권이 아닌 축약본 『廣愛書括』을 토대로 교정한 결과로 보인다. 劉瑾은 『廣愛書括』이 『廣愛書』에서 요점을 추린 책(“斯亦約矣”)이라면 『神應經』은 더욱 요점을 추린 책(“約之又約”)으로 빗대고 있다. 劉瑾이 진술한 陳會의 『廣愛書』는 12권이었고, 朱權이 교정을 명한 『廣愛書』는 분량이 10권이었는데, 이처럼 책의 권수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추론의 여지가 있다.

3.1.1.2. 『重刊神應經』

1473년(성종4년)에 일본의 畠山殿 使臣 副官으로 왔던 승려 良心은 『神應經』과 『治癰疽八穴法』을 바쳤다. 다음해인 1474년에 성종의 명에 따라 두 책을 합하여 『重刊神應經』이 간행되었다. 『治癰疽八穴法』의 경우 일본에서 神醫로 일컬어졌던 丹波氏와 和介氏의 경험방인데, 조선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으므로 『神應經』에 붙여 함께 간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을 쓴 韓繼禧는 특히 『神應經』의 切量法과 補瀉法, 取穴法의 정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神應經』이 다루고 있는

증후의 범위와 選穴의 요긴함에도 주목하였다. 침구전문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였음은 물론, 실용적 측면에서 활용범위가 크다는 점을 일찍이 인식하였기에 『神應經』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간행될 수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구급의학의 전통은 의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궁촌벽지에서도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각종 구급방들이 약재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神應經』은 의술의 또 다른 축으로서의 침구법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위정자들의 필요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3.1.2. 저술목적

『神應經』은 300년간 이어져 내려온 席氏 가문의 침술을 이어받은 陳會라는 인물로부터 출발한다. 陳會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廣愛書』 속에 詩와 賦로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제자를 가르쳤다. 詩와 賦로 책을 썼다는 것은 암송이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책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었다고 자부한 것을 보면 기초부터 실전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익혀야 할 여러 단계의 기술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금이 다르지 않은 듯, 『廣愛書』가 보여주는 “넓고 광막한 세계”를 제자들이 온전히 받아들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陳會는 제자 교육이라는 효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廣愛書』의 번다함을 대신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제자들이 반드시 익히고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다시 추려서 『廣愛書括』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된다. 요긴한 쓰임을 지향하였던 『神應經』은 저술의 목적 면에서 『廣愛書括』의 연장선에 있다고 여겨진다. 의학은 학문의 영역이면서도 철저한 기술 영역에 속한다. 임상 실전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요하며 이는 책 속의 문자지식이 임상가의 몸을 통해 체화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핵심기술들이 그러하듯, 문자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사실상 책의 기능은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고차원의 기술은 기술 전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달된다. 기술의 전수 과정은 숙련이라는 목표를 향한 지난한 과정이다. 많은 제자를 가르쳤을 陳會는 이를 “뛰어난 장인

이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규구(規矩)를 쓰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을지언정 기술을 이해시키지는 못한다”고 표현했다. 특히 침술 분야는 침이라는 도구의 노련한 활용이 관건이 된다. 요리사가 칼을 자기 손의 연장선으로 느끼듯, 임상가는 침끝으로부터 전달되는 감각을 자기 몸의 감각으로 인지한다. 劉瑾 역시 앞서 陳會의 말과 마찬가지로 “神聖工巧는……마음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며 “말로써 전하기 어려운 것은 오래도록 참되게 힘써 쌓아감으로써 스스로 얻어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神應經』은 침구 실용서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고도의 기술적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낸 지침 서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3.1.3. 판본

중국에 남아있는 『神應經』의 판본은 세 가지 종류로 확인된다. 첫째는 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明 洪熙元年(1425) 각본으로 『神應經』의 초간본이다. 『神應經』의 서문 말미에는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초간본의 경우 朱權이 즐겨 사용하였던 “咸躋壽域”이라는 印章과 “神”자 花押이 찍혀 있어 朱權이 직접 서문을 썼음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두 번째 판본은 日本 正保2년(1645)에 田原仁左衛門에서 明 成化10년 본을 翻刊한 것으로 中國中醫科學院과 上海圖書館, 大連圖書館, 大北故宮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세 번째 판본은 四庫全書存目叢書本이다. 중국에 남아있는 日本 正保2년 간본의 모본인 明 成化10년 본은 조선의 『重刊神應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성종5년(1474, 成化10년)에 『重刊神應經』이 처음 간행된 이래 여러 차례 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선조 초기에 간행된 『敎事撮要』의 「八道冊板」에는 晉州板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인조21년(1643) 癸未에 訓鍊都監活字로 重印된 기록이 三木榮의 『朝鮮醫書誌』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현종7년(1666)에는 『神應經』 등의 의서 간행에 관하여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承政院日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 밖에도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 인조 21년에 나온 癸未 간본의 경우 당시 도승지로서 元孫輔養 兼藥局提調를 맡고 있던 金堉이 쓴跋文이 『潛谷先生遺稿』 9卷에 「新印神應經跋」로 남아있

다. 그에 따르면 전란 후에 『神應經』이 유실되어 內醫院에 조차 구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여러 提調들과 의논하여 활자를 모아 간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책 뒤에 擇日法을 덧붙였다고 되어 있다. 『神應經』은 명대 침구학의 기술적 노하우가 응집되어 있는 침구서이자 조선의 구급의학에서 지향했던 실용의서의 측면을 두루 구비하고 있었기에 조선 의학의 테두리 속에서 그 효용성을 꾸준히 인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1.4. 침구사적 의의

『神應經』의 침구사적 의의는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취혈의 근거가 되는 折量法이다. 정확한 처방이 세밀한 진찰에 근거하듯 침술의 효과는 정확한 취혈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취혈을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며 折量法, 즉 골도분촌은 그 기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神應經』에서는 배수혈을 취혈할 때 척추뼈를 제외한 거리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神應經』의 折量法은 許任의 『鍼灸經驗方』에도 수록되었으며, 조선통신사와의 문답이 담긴 『兩東唱和後錄』에서도 나타나듯이 취혈의 전범이 되는 의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둘째는 瀉訣直說, 補訣直說로 서술된 補瀉手法이다. 침구의학사 면에서 명대는 침구보사와 자침수기법이 성행하였던 시기였다. 『醫學綱目』, 『醫學入門』, 『鍼灸大成』, 『鍼灸聚英』, 『鍼灸節要』, 『鍼灸問對』 등의 의서에는 다양한 침구보사법과 수기법이 등장한다. 이러한 보사수법들은 의가와 의서별로 특징이 있으며 남녀, 좌우, 호흡, 시간, 운기 등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神應經』도 비슷한 시기의 다른 침구서들과 마찬가지로 보사수법을 정리해 놓았으며 이를 비교해봄으로써 그 발전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중국의 특정지역에서 가문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침구기술의 전승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본문의 「梓桑君鍼道傳宗圖」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梓桑君鍼道傳宗圖」는 일종의 계보도로서 南宋 高宗 대로부터 明 洪熙 元年까지 근 3백 년 동안 12대에 걸쳐 席宏의 鍼道가 끊이지 않고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3.1.5. 맷음말

『神應經』은 침술의 궁극을 보여주는 의서가 아니며, 席氏 가문에서 전승되어온 침술 그 자체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廣愛書』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지언정 『神應經』에서 추구한 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神應經』은 침술의 세계가 어떠한지에 관해 기본 수법부터 치병 요혈까지 비교적 간략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에 가깝다. 劉瑾이 陳會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의 핵심은 말이나 글로 전해질 수 있는 치병요혈 따위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침술의 완성은 결국 변통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자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아마도 劉瑾이 스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에 가까울 듯하다. 현대의 독자들이 『神應經』을 임상의 참고서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풍미했던 침술유파의 비전된 기술을 발견하고자 하기보다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침술의 기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神應經』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침술의 궁극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자 기준이기 때문이다.

작성자 흥세영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신응경 神應經

원저자 : 진회·유근

국역 : 홍세영

해제 : 홍세영

편집 : 문진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2월 10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역사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김선진이며, 원서에 가
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6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
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
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